

기타연구보고 M111 | 2011. 4.

중점협력국 농업분야 현황 기초조사 - 6개국을 대상으로

허 장 연구 위원
이 대 섭 부 연구 위원
정 승 은 인 턴 연구 원
홍 정 원 위촉 연구 조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허	장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서론,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이	섭	부 연 구 위 원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솔로몬군도
정	은	인 턴 연 구 원	국가별 ODA 현황
홍	정	위촉연구조원	부록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정식으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이 된 이래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양과 질적 내용을 제고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의 금액까지 ODA 원조총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질적으로는 작년에 정부 각 부처가 모여 ‘선진화 방안’과 중장기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는 최빈국과 개도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협력전략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 전략은 대상국의 특성과 수요, 그리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보고서는 농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협력전략을 만들기 위하여 참고하여야 할 자료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수집, 정리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향후 여러 가지로 볼 때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 중 6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협력대상국들은 대체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라 각종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다 상세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일단은 여기 제시된 기본 자료들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이 보고서가 총괄적인 국가별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담당자, 혹은 기타 목적으로 대상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1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이 연구는 2010~2011년 국별협력전략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중점협력국 가운데 농업분야 국별협력전략 수립에서 제외되는 6개 국가와의 향후 농업협력 사업의 추진 및 농업분야 지원전략 수립에 대비하여 농업 및 농촌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나라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가뭄과 홍수 등 재해관리와 대처가 농업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및 경제개발정책과 계획에서 핵심과제이다. 2005년 1억 5,30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1억 8,500만 명, 2050년 2억 2,2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농지에 대한 인구 압박 요인이 크다.

국가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0% 이하로 감소한 이래 큰 변화가 없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49.6%에 달하며 이를 2009년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약 8,000만 명이나 된다. GNI에서 ODA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2%이다. 농촌인구 1인당 농업 ODA 규모는 0.9달러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는 2008년 발표한 “전진: 가속적 빈곤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통해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① 빈곤계층의 성장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 ②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활력 제공, ③ 필수 인프라의 건설, ④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⑤ 인적 개발의 집약화 등 다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주 농산물인 벼를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과 고원지역에서 다양한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해안

에서는 영세한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는 790만 ha인데 이는 국민 1인당 0.05ha에 불과한 작은 면적이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8년에 3,556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ha당 곡물 생산량은 2000~2009년에 15% 늘고 농업 생산자당 부가가치는 2000년 336달러에서 2009년 435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오히려 2000년의 25.2%에서 2009년 18.7%로 위축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 황마, 차, 밀, 사탕수수, 감자, 담배, 콩, 종자유, 향신료, 과일, 쇠고기, 우유, 가금류 등이다. 쌀은 계절에 따라 다른 종자를 식재한다.

일반적인 빈곤국가와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도 2009년 기준 전체 인구의 72.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빈곤층의 85%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감소가 시급한 과제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 농촌개발 전략으로는 ‘국가식량정책(National Food Policy, NFP)’(2006), 이것의 실행계획서인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 2008~2015(National Food Policy Plan of Action, 2008~2015)’, 그리고 투자계획 ‘방글라데시 국가투자계획: 농업, 식량안보, 영양 분야 투자를 위한 로드맵(Bangladesh Country Investment Plan: A Road Map Towards Investment i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2010)이 있다.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의 회원국으로 천연 및 유전 자원이 풍부하며 광활한 토지를 보유한 나라이다. 구소련으로부터 1991년에 분리 독립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강도 높은 경제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 기업의 사유화가 부진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차 상품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자국의 공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1차 산업 중에서 특히 농

업은 2007년 GDP의 21.7%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28%를 고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산업이다.

우즈베키스탄의 ODA 수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공여국은 일본, 독일, 미국이고, 한국은 약 700만 달러를 공여하여 열 번째로 많은 공여를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OECD/DAC 회원국의 공여액 13억 2,500만 달러 중 농업부문에 사용된 예산은 2.4%로 미미한 수준이다.

농민들은 영구임대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아직까지 토지의 사유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전체 토지규모 중 농지가 약 50%인 2,226만 ha, 경작 가능면적이 9%인 405만 ha이다. 농업부문 경제활동 인구는 2008년 약 275만 명이며, 총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중은 약 63%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작물은 밀과 면화이다. 면화는 원면과 가공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원료로 우즈베키스탄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주식인 밀은 식량자급을 위하여 중요한 작물로, 대부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된다.

정부는 정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통해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적인 형태로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수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밀은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 중 약 90%를 차지하는 138만 ha에서 재배된다.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작물로 생산량은 미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다음의 세계 5위이며 수출량은 세계 2위이다. 인구의 약 60%가 면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총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잠정 후생개선전략보고서(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I-WIS) 중 농업·농촌부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성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면화 및 밀 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촌부문에서는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으로 농촌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깨끗한 식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위생시설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0.6%, 천연가스는 0.8%를 차지하여 중동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카스피 해 지역에서 중요한 산유국으로 등장하였다. 2005년 BTC 송유관(Baku-Tbilisi-Ceyhan pipeline)이 완성되면서 석유, 가스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석유부문은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GDP의 40~50%를 차지한다. 빠른 경제성장과 공공투자의 증대에 따라 빈곤율이 2008년에 15.8%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ODA 수원규모는 적은 편이어서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6%에 불과하다. 순지출액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 총액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 열 번째를 차지한다. 정부의 중장기 빈곤감소 프로그램은 ‘빈곤감소와 경제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2003-2005(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PPRED)’와, 연이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2006-2015(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PPRSD)’로 대표된다. 이들 계획이 표방하는 개발목표는 거시경제적 안정의 유지,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 인프라 개선,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강화 등이다.

1996년 시작된 농지개혁을 통해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이 해체되어 농지가 농민에게 배분되고 소규모 자작농이 대거 형성되었다. 현재는 농산물 생산량의 99%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 농업부문 종사인구는 2007년 기준 전체 고용인구의 38.7%를 차지한다. 아직도 농업부문은 석유산업,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GDP를 생산하고(2009년 7.1%), 두 번째로 큰 수출산업이자 최대의 노동

인력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은 9개의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 생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ha당 곡물 생산량은 점차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2.6~2.7톤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생산액이 많은 20대 농산물은 우유,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밀, 감자 등이며, 토마토나 사과, 포도, 수박과 같은 과채류도 중요한 농업소득원이 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구소련 치하에서는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아제르바이잔 국민이 소비하는 육류의 양은 소련 연방 평균인 65kg보다 훨씬 적은 37kg 정도에 불과하다.

‘아제르바이잔 농업부문 개발 국가계획 2002~2006(State Program of Development of Agrarian Sector in Azerbaijan)’, ‘제1차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 (2004~2008)(State Program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 농업은 개발 우선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농업부문 국가계획 (2008-15)(State Program for Agriculture)’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역의 증대를 위해서도 농업을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개망의 재건, 식품가공 업체의 육성, 육류와 유가공예의 민간부문의 진입 확대, 금융자원의 확대, 연구센터의 설치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World Bank, 2010).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행정적 장애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농업부와 같은 정부 정책기구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와 은, 주석, 리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국제기업과 정권과의 국유화, 민영화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인구의 67%는 빈곤선 이하이고, 38%는 극빈층에 속하며, 농촌에는 빈곤선 이하 인구가 84%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자료에 의하면 34%의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 절반의 인구는 인디오 계통에 속하는데 인디오의 58% 정도는 도시

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며, 비인디오계 주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천연가스와 광물의 수출 호조와 해외송금 수취에 의한 소비증가로 경제성장은 2008년엔 6.1%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국제적 경제위기,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별 GDP 구성에서는 농업이 11%, 제조업이 37%, 서비스업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은 장기적으로 감소, 제조업은 증가추세에 있다.

GNI 대비 ODA의 비율은 4.4%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남미 전체에 대한 ODA 총액 중 약 25%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미지역 전체공여 중 24%(2위)를 이 나라에 지원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볼리비아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거부하고 이른바 ‘경제사회 공동체적, 생산적 모델(Economic, Social, Communitarian and Productive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탄화수소, 광업, 전기업, 기타 환경자원 분야를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부문으로 설정하고, 여기서의 잉여를 공업, 제조업, 관광, 농업 등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분야로 재분배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에는 빈곤경감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생산적인(productive) 볼리비아, 위엄 있는(dignified) 볼리비아, 자주적인(sovvereign) 볼리비아, 민주적이고 참여하는(democratic and participative) 볼리비아라고 하는 네 가지를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15년까지 빈곤선 이하 인구를 22%까지로 떨어트려 MDGs의 하나인 빈곤인구 감소를 달성하려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이다.

농경지 면적이 361만 ha에 이르며 국민 1인당 농경지 면적은 약 0.4ha이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190만 6,000명이다. 생산액 기준으로 볼리비아의 20대 농산물에는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와 우유 등 축산물이 포함된다. 아울러 콩과 사탕수수, 플랜테인(바나나와 비슷한 열매), 감자, 호두, 벼, 해바라기 씨, 옥수수 등이 주요한 생산품목이다.

볼리비아의 농촌인구는 2009년 334만 9,000명 가량이며 전체 인구의 34%

정도이다. 빈곤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2009년까지도 총인구의 58.3%에 이르고 농촌지역은 이보다 심하여 7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솔로몬군도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위치한 약 1,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인구는 2010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61만 명이다.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간의 분쟁이 악화되어 내전 발발의 일촉즉발 위기까지 도달하였지만 2000년 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4년 37%, 서비스부문은 51.6%로, 이 두 부문에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주요 자원 중의 하나인 목재의 과대벌목으로 인해 산림 재건이 절실한 상황이다. 솔로몬군도의 수산업은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광산업 또한 전망이 밝은 산업이다.

2011~2015년 목표로 한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은 ‘새롭고 통합된 역동적인 솔로몬군도 건설’을 위하여 1) 사회·경제활동의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 2) 인구 증가율 조정 및 가족계획 구체화, 3)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선정하였다.

ODA 총수원액은 2000년 약 6,800만 달러에서 2003년 평화협정을 계기로 2009년 2억 6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이 주 공여국이다.

산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솔로몬군도의 농지면적은 약 840km²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작이 가능한 농지는 약 만 6,000ha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협소한 농지규모로 인해 곡물을 대량 생산하거나 토지가 대량으로 필요한 축산업 및 사료작물 생산은 어렵다. 코프라(Corpra)와 팜오일 등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다. 팜유는 국내소비 없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총인구의 82%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6.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된 이래 타밀족과 실론족의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적대세력과의 정치적 휴전으로 국가가 정상화되었으나 장기간의 정치적 분쟁과 내전으로 국민들은 빈곤에 고통 받고 있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외국인 투자가 불안하며 지방정부의 구조적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2004년 쓰나미 재해로 많은 국토가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복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과거 30년 동안 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3년부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약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열대성 기후대의 섬나라 특성상 수산물이 풍부하고 쌀, 차, 코코넛 제품 등을 주로 생산한다. 최근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차 생산단지의 사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인구 2,030만 명 중 약 85%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중 약 31%(2007년 기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스리랑카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연간 6억 5,000만 달러 정도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전체 중에서 스리랑카는 5위 정도의 원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꽤 높은 수원규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2009년에 스리랑카에 평균 1,880만 달러를 해마다 원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이다.

스리랑카는 10개년 개발계획(10 Year Development Framework, 10YDF)을 통하여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공평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 지방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10YDF에는 민간부분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개발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촉진시켜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10YDF에서 설정한 성장률이 달성된다면 2016년 1인당 소득은 3,960달러가 되며, MDGs 세부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17%이다. 2007년 농업용지는 236만 ha, 경작가능 면적은 약 97만 ha이다. 쌀이 생산량으로나 생산액으로나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그 뒤를 차와 코코넛, 닭고기 등이 잇고 있다.

쌀은 전체 농업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 스리랑카 최대의 농산업이다. 약 80만 농가가 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의 단위 수확량은 1995년 3.5톤/ha에서 2010년 3.6톤/ha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스리랑카 정부의 쌀 산업 진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반 구축이 미비하고 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생산현장과 시장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스리랑카 정부는 고품질의 쌀 생산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틈새 시장공략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미곡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수출농산품인 차와 코코넛은 2008년 기준 각 32만 톤과 220만 톤이 생산되었다. 스리랑카의 차 제품은 세계 20여 국가로 수출되고 있고 2008년 기준 약 9만 1,000톤을 수출하여 2억 7,500만 달러 수준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이 중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이 최대 수출국이며, 수출량으로는 이란이 최대 수출국이다.

ABSTRACT

Basic Facts about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Six Focus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systematic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developing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each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 2010-2011. Among them, six countries are excluded from the Agricultur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preparation for future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support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 situ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those six countries. The situations of those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Bangladesh

Management and handling of natural disasters including drought and flood are not only a step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 core initiative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2005, the population was 153 million but it is expected to increase to 185 million in 2020 and to 222 million in 2050. Therefore, as the population grows, the farmland is placed under great pressure.

In 2007, the agricultural sector accounted for less than 20% of GDP and not much has changed since then. As of 2005, 49.6% of the population was living on less than a dollar a day but if the total population of 2009 is applied,

the figure jumps to approximately 80 million. ODA accounted for 1.2% of GNI in 2009 and ODA volume per rural population is merely 0.9 dollar.

In the government document “Moving Ahead: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 2008,” Bangladesh set a long-term goal to become a developing country by 2021 in celebration of its 5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The goal included the following 5 objectives:

1. maintaining stability in macro-economy b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of low-income population
2. invigorating vitality in impoverished rural areas
3. constructing necessary infrastructure
4. providing social protection for the vulnerable
5. integra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its rich water resources, rice, the major agricultural crop, is cultivated widely. Wheat is also produced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horticultural crops cultivated in highland regions. Also, small-scale fishing is commonly seen on the seaside.

The size of fertile farmland is 790,000 ha., but this equals to only 0.05 ha. per capita. In 2008, 35.56 million people worked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is accounted for almost half of the total industry workers. Grain production per hectare has expanded 15% during 2000-2009 and the value-added per agriculture producer has jumped from \$336 in 2000 to \$435 in 2009. However, the value-added percentag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GDP has decreased from 25.2% in 2000 to 18.7% in 2009. The maj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ice, jute, tea, wheat, sugar cane, potatoes, cigarette, soy bean, oil, herb, fruits, beef, milk,

and poultry. Depending on the season, different rice seeds are planted.

Just like other low-income nations, rural areas support many of its population and in 2009, 72.4% of the Bangladeshi people lived in these areas. Since 85% of the poor live in rural areas, poverty-reduction through development of rural areas is in urgent need. “National Food Policy Plan of Action 2008-2015” and “Bangladesh Country Investment Plan: A Road Map towards Investment i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10” are placed as agriculture and rural area development strategies.

2. Uzbekistan

As a member state of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Uzbekistan is a country of vast land with rich natural and oil resources. It became an independent state from the Soviet Union in 1991. It adopted a presidential system and is gradually adopting market economy as well. But, unlike Russia and Kazakhstan, Uzbekistan has not fervently demonstrated the desire for economic reform. Thus, privatization of companies is inactive and foreign capital attraction is slow. Through profits made from primary commodity export, the Uzbekistan government is carrying out an industrial policy of substituting imports by fostering manufacturing industries. Among primary industries, agriculture is the biggest industry, which accounted for 21.7% of GDP in 2007 and employed approximately 28%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op donors of Uzbekistan ODA are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has donated about \$7 million and is the 14th largest contributor. Among the \$1.325 billion donation from OECD/DAC members, only 2.4% is

used for the agricultural sector.

Farming is conducted by renting land in a permanent rental system. Since privatization of land has not been enforced, land is state-owned, except for special cases where law is enacted. Of the total land area, farmland is about 22,260,000 ha. (50%) and arable land is 4,050,000 ha. (9%). In 2008, about 2,750,000 people worked in agricultural sectors and of the total population, 63% were living in rural areas.

Major agricultural products are wheat and raw cotton. As a raw material to export finished textile products, raw cotton is the major earner of foreign currency in Uzbekistan. Wheat is also an important crop for food self-sufficiency and is mostly produced to fulfill domestic demand.

Through Goszakas (a procurement system of products for the state and municipal), the government buys agricultural products at a low price in a forceful way and exports at a high price exclusively. The profits made from this are redistributed as subsidies for domestic manufacturing sectors or are absorbed as government revenue. Of the total crop cultivation area, wheat accounts for about 90% of the area and is grown on 1,380,000 ha.

As the biggest export product in agriculture, Uzbekistan's raw cotton ranks the world's 5th in production volume following the U.S, India, China, and Pakistan and ranks the world's second in export volume. About 60% of its population is working in the raw cotton industry and in 2010, raw cotton accounted for about 20% of Uzbekistan's total export volume.

As part of the 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I-WIS), the govern-

ment has created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is making effort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arm income based on mostly sustainable farming. As for the farming sector, the government is focused o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income through efficient marketing of raw cotton and wheat. In the rural development sector, building efficient infrastructure to improve accessibility for farmers and constructing a clean drinking water system to improve the basic sanitation facilities for a better housing environment in the future are central plans.

3. Azerbaijan

Azerbaij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oil-producing nation in the Caspian Sea, as it produces plentiful petroleum and energy resources following the Middle East and Russia. The country holds 0.6% of the world's oil reserve and 0.8% of the world's natural gas. The completion of the Baku-Tbilisi-Ceyhan (BTC) pipeline in 2005 led to an expansion of petroleum gas export and since then, the country has recorded a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e petroleum sector accounts for 40-50% of today's GDP and as the country achieves rapid economic growth and acquires more public investment, the poverty rate has considerably dropped to 15.8% in 2008.

Since the amount of ODA is fairly small, it only accounts for 0.6% of GNI. In terms of net expenditure, Azerbaijan ranks tenth among South and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e total amount of aid from South Korea. The government's mid and long-term poverty-reduction programs are the 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2003-2005 (SPPRED) and the subsequent 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6-15 (SPPRSD). These development programs aim to maintain macro-economic stability, create circumstances to expand the opportunity to generate income, improve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basic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improve the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the social protection (for refugees and underprivileged people).

Through the farmland reform that was initiated in 1996, state-owned farms and collective farms were dissolved, farmlands were distributed to farmers, and numerous small independent farmers emerged. Currently, 90% of agricultural production volume is produced from the private sector. In 2007, the people engag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accounted for 38.7% of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Still, agriculture produces the most GDP (7.1% in 2009) after petroleum and construction, and it is the second largest export industry with the largest labor force. Since Azerbaijan has 9 different climate zones, it produces a variety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crop production volume per hectare is gradually increasing, but there is still a room for improvement since the production volume is about 2.6-2.7 tons per hectare.

Top 20 products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are livestock items, such as milk, beef, lamb, and chicken, and wheat and potatoes. Moreover, fruit and vegetables, such as tomato, apple, grapes, and watermelon, also make an important source of income. Under the Soviet rule, the livestock were artificially repressed. As a result, the amount of beef consumed by the Azerbaijan people was 37kg whereas the people of Soviet Union consumed 65kg on average.

In the State Program of Development of Agrarian Sector in Azerbaijan 2002-2006 and the first State Program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2004-2008, agriculture was chosen as the development priority. In the State

Program for Agriculture 2008-15,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agricultur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ector not only for food security but also for increasing employment and trade. Accordingly, reconstructing the irrigation network, fostering food processing companies, expanding the private sector's entry into the meat and dairy industry, increasing financial resources, and establishing research center are suggested as important measures (World Bank, 2010). However, the administrative barrier is blocking investment as the law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attract investment is unavailable. Especially the fact that government institutions suc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re weak is seen as a major problem.

4. Bolivia

Bolivia is rich in energy resources such as petroleum and gas and mineral resources such as silver, tin, and lithium. Inter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are at tug-of-war over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on the usage of the nation's resources. In Bolivia, 67% of total population live below the poverty line and 38% live in extreme poverty. In rural areas, 84% of people are estimated to b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A data showed that in 2005, 34% of population lived with an income of less than \$2/day. Half of the population is of Indio descent and 58% of Indios reside in cities and suburban areas in more economically-vulnerable conditions than non-Indios.

Thanks to the upswing in the export of natural gas and minerals and increased consumption due to overseas remittance inflows, the country recorded 6.1% economic growth in 2008. But in 2009, the economy was affect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deteriorated relation with the U.S. The composi-

tion of GDP by industry is as follows: agriculture 11%, manufacturing 37%, and service 52%. Agriculture has been diminishing in the long term, but manufacturing has been on the rise.

ODA accounts for 4.4% of GNI and of the total ODA for South America, Bolivia receives 25% of i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total aid that South Korea donates to South America, 24% (Rank 2) is given to Bolivia.

After the formation of the new government, the neoliberal economic model based on market economy was deserted and the “Economic, Social, Communitarian and Productive Model” has been chosen. The environmental resource sector, which includes hydrocarbon, mining, and electrical business, was selected as a strategic sector to create national wealth, and the surplus from the sector is redistributed to processing, manufacturing, tourism, and agriculture to create jobs and income for the people. In 2006,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ed, focusing on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is plan aims to achieve 4 central goals: Productive Bolivia, Dignified Bolivia, Sovereign Bolivia, and Democratic and Participative Bolivia. The purpose of this plan is to reduce the population under the poverty line to 22% by 2015 and accomplish on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Farmland is about 3,610,000 ha. and arable land per capita is 0.4 ha. The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engag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was 1,906,000 in 2008. The top 20 agricultural products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include livestock products such as beef, chicken, pork, and milk. Moreover, soy bean, sugar cane, plantain (a fruit similar to banana), potato, walnut, rice, sunflower seed, and corn are also important products.

The rural population in Bolivia was about 3,349,000 in 2009, which accounted for 34% of the total population. The population of the poor is declining but 58.3% were living in poverty until 2009 and the situation is worsening in the rural areas, where 73.8% was reported to be living in poverty.

5. Solomon Islands

The Solomon Islands is located on the east of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The country is made up of approximately 1,000 islands. According to an estimate of 2010, the population is 610,000.

The conflict between the Guadalcanal and Malaita tribes worsened and the nation was on the verge of a civil war, but a peace agreement was signed dramatically in 2000. In terms of value adde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ccounted for 37% and the service industry 51.6% in 2004. Thus, the economic structure is concentrated on these two sectors. The country recorded a negative growth of 2.2% in 2009. Timber, a major resource, has been excessively logged and forest reconstruction is urgently neede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ve been praised as bright industries that can greatly help economically. Tourism is also an another bright industry.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 for 2011-2015 strives to “Construct New, Unified, and Dynamic Solomon Islands” and proposes 3 policy goals: 1)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2) adjustment of population growth and concrete execution of family planning, and 3)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The total amount of ODA has more than tripled from \$68 million in 2000

to \$206 million in 2009 after the peace agreement in 2003. Major contributors are Australia, New Zealand, EU, and Japan.

Since the forest takes up most of the Solomon Islands, farmland accounts for about 3% (840km²) of the total land. Of this land, arable land accounts for 16,000 ha. which holds a potential for development; but due to the small farm area, mass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s facing some difficulties. Moreover, livestock industries and forage crop production also face problems as they need massive land as well. Major export products are copra and palm oil.

In 2009, 82% of total population was reported to be residing in rural areas.

6. Sri Lanka

Since its independence in 1948, Sri Lanka has experienced disputes between Tamil and Ceylon. After the political truce with its hostile force in 2001, the country was normalized. However, long-term political disputes and civil war have caused poverty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at still persist today. Furthermore,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foreign investment is weak and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s deteriorating. Most of the territory has been damaged since the 2004 tsunami and restoration is still in the process. Nevertheless, Sri Lanka has achieved an average of 5% growth in the past 30 years and has continued to grow since 2003. Recently it recorded about 7% growth. Since the country is an island of tropical climate, it is rich in marine products and mainly produces rice, tea, and coconut. Recently, privatization of tea production, which wa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ursued.

Out of its total population of 20,300,000, 85% live in rural areas and 31% (based on 2007) are engaged in agriculture.

The total amount of ODA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nates to Sri Lanka is about \$650 million annually. Sri Lanka receives a fairly large amount of ODA as it ranks fifth among Central and South Asian countries. From 2001 to 2009, South Korea has donated \$18.8 million annually, which makes Sri Lanka the largest recipient of ODA from South Korea among Central and South Asian countries.

Through the “10-Year Development Framework (10YDF),” Sri Lanka is pursuing a fair growth in all sectors, particularly in development sectors where active particip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emphasize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tense nurturing of private sectors and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re included in the plan to help develop neglected areas. If the target growth of 10YDF is achieved, income per capita will be \$3,960 in 2016 and all concrete goals of MDGs will be achieved as well.

Agriculture accounted for 17% of GDP in 2008. In 2007, agricultural land was 2,360,000 ha. and arable land was about 970,000 ha. Rice is the most important product in terms of both production output and value.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tea, cocoa, and chicken are the main products after rice.

Because rice accounts for 30% of agricultural GDP, it is the biggest agricultural product. About 800,000 farmers are engaged in rice production. Crop yield per unit in the past 10 years has inched up from 3.5ton/ha. in 1995 to 3.6ton/ha. in 2010. The first step in promoting the rice industry is to develop

technology and apply it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produce high-quality rice. But, due to lack of resear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olving the actual problems of work sites and the market.

The government is trying hard to set up a rice policy that can help increase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rice for sufficient food supply and increased exports to niche markets.

In 2008, the production volumes of tea and coconut, which are major export products, were 320,000 tons and 2,200,000 tons respectively. Tea products are exported to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n 2008, Sri Lanka exported 91,000 tons of tea and made a profit of \$275 million. Japan is the biggest importer of Sri Lankan tea in terms of monetary amount and Iran is the biggest importer of Sri Lankan tea in terms of quantity.

Researchers: Jang Heo, Dae-Seob Lee, Seung-Eun Chung, Jeong-Won Hong

Research period: 2011. 2. - 2011. 4.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주요 연구내용	4
4. 연구방법	7

제2장 방글라데시

1. 일반 현황	9
2. 경제 현황	14
3. 농업 현황	29

제3장 우즈베키스탄

1. 일반 현황	47
2. 경제 현황	50
3. 농업 현황	62

제4장 아제르바이잔

1. 일반 현황	77
2. 경제 현황	79
3. 농업 현황	90

제5장 볼리비아

1. 일반 현황	101
2. 경제 현황	104

3. 농업 현황	115
----------------	-----

제6장 솔로몬군도

1. 일반 현황	121
2. 경제 현황	123
3. 농업 현황	129

제7장 스리랑카

1. 일반 현황	137
2. 경제 현황	139
3. 농업 현황	150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농업분야 국별지원전략 수립 대상국 선정기준	169
2: 방글라데시 각종 통계자료	171
3: 우즈베키스탄 각종 통계자료	189
4: 아제르바이잔 각종 통계자료	196
5: 볼리비아 각종 통계자료	204
6: 솔로몬군도 각종 통계자료	212
7: 스리랑카 각종 통계자료	216
8: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	224
9: 세계은행의 양허성 자금 지원대상 국가 분류	226

참고 문헌	229
-------------	-----

표 차 례

제2장

표 2-1. 방글라데시 국가개황	9
표 2-2. 인구 및 주요 사회지표	12
표 2-3. 경제성장률	14
표 2-4. 거시경제 지표	15
표 2-5. 부문별 GDP 구성 비율	15
표 2-6. 국내 송금액	16
표 2-7. 수출입 총액 및 주요 수출국(2009년)	16
표 2-8. 주요 수출품목	17
표 2-9. 주요 수입품목	17
표 2-10. 평가기관별 등급	18
표 2-11. 거시경제 전망지표	20
표 2-12. 연도별 다자, 양자 간 원조 수원 현황	21
표 2-13. 중앙-남아시아 국가별 ODA 수원 현황	22
표 2-14.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23
표 2-15. 우리나라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24
표 2-16. 연도별 공여국 및 국제기구 순위	25
표 2-17. ODA 분야별 약정액	26
표 2-18.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농업분야 무상원조 현황	27
표 2-19. 국토의 구성	30
표 2-20. 농업생산지수	31
표 2-21. 농업 부가가치	32
표 2-22. 쌀 품종	32
표 2-23. 쌀 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33

표 2-24. 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33
표 2-25. 쌀 생산, 수입, 소비량	34
표 2-26. 쌀 수입국별 수입량	34
표 2-27. 연도별 밀 생산량	35
표 2-28. 밀 생산, 수입, 소비량	35
표 2-29. 밀 수입국별 수입량	36
표 2-30. 목화 생산면적 및 생산량	36
표 2-31. 기타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37
표 2-32. 농촌 인구 변화 추세	38
표 2-33.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의 목표, 핵심 분야 및 대상	40
표 2-34. 농업부문 투자계획	45

제3장

표 3-1.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	48
표 3-2. 주요 경제지표	51
표 3-3. 외국인투자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	55
표 3-4. 상위 10개 ODA 공여국(기구) 및 공여액	58
표 3-5. OECD/DAC 회원국의 우즈베키스탄 농업 부문에 대한 ODA ..	59
표 3-6.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농업·농촌분야 공여 현황(2006~2009) ...	59
표 3-7. 2006~2010년 국가발전전략과 프로그램 결과 프레임워크 요약	61
표 3-8. 토지 이용 현황	67
표 3-9. 농업 및 농촌지역 인구 분포	67
표 3-10. 주요작물 재배면적	69
표 3-11. 원면 생산량	70
표 3-1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작물별 단위 변화추이	72
표 3-13. 작물별 생산량	73
표 3-14. 농업·농촌부문 발전 전략	75

제4장

표 4-1. 아제르바이잔 국가개황	77
표 4-2. 거시경제 지표	79
표 4-3. 산업 부문별 GDP 성장률	81
표 4-4. 수출입 현황	82
표 4-5. 순 ODA 지원액	83
표 4-6. 중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ODA 수원 현황	84
표 4-7.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85
표 4-8. 우리나라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86
표 4-9. 연도별 공여국 및 국제기구 순위	87
표 4-10. ODA 분야별 약정액	88
표 4-11.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분야 지원 현황	88
표 4-12. 국토의 구성	90
표 4-13. 산업구조	93
표 4-14. 농업 부가가치	93
표 4-15. 농업생산 지수	93
표 4-16. 농산물 생산 현황(2008년)	94
표 4-17. 기타 농산물 생산 현황	95
표 4-18. 농기계 및 비료 공급 현황	96
표 4-19. 농촌 인구 변화 추세	96
표 4-20. 지역별 빈곤율의 변화	97

제5장1

표 5-1. 볼리비아 국가개황	101
표 5-2. 거시경제 지표	104
표 5-3. 부문별 실질 GDP 성장률(2009)	106
표 5-4. 산업별 GDP 구성비율	106

XXX

표 5-5. 수출입 금액, 대상국 및 주요 품목	107
표 5-6. ODA 수원액	108
표 5-7. 남미지역 국가별 ODA 수원 현황	109
표 5-8. 우리나라의 남미 원조액 순위	110
표 5-9. 공여국 및 국제기구 연도별 순위	111
표 5-10. ODA 분야별 약정액	112
표 5-11.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분야 지원 현황	112
표 5-12. 국토의 구성	115
표 5-13. 농업생산 지수	116
표 5-14. 농산물 생산 현황(2008년)	117
표 5-15. 주요 농산물의 수확면적, 생산량	118
표 5-16. 농업자재	119
표 5-17. 농촌인구 현황	119

제6장

표 6-1. 솔로몬군도 국가개황(2006년)	121
표 6-2. 주요 경제지표(2009년 기준)	124
표 6-3. 한국의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	129
표 6-4. 농지분포	130
표 6-5. 코프라 생산 현황	131
표 6-6. 팜유 현황	131
표 6-7. 코코넛 생산 현황	132
표 6-8. 생산액이 많은 10대 농산물의 생산액, 생산량(2008년)	132
표 6-9. 축산물 생산 현황	133
표 6-10. 코코아 빈	134
표 6-11. 오일 팜 열매	135
표 6-12. 바나나	135

표 6-13. 카사바	136
표 6-14. 농촌 인구	136

제7장

표 7-1. 스리랑카 국가개황	137
표 7-2. 주요 경제지표	140
표 7-3. 수출입 현황	141
표 7-4. 인구 현황	142
표 7-5. 중앙-남아시아 국가별 ODA 수원 현황	142
표 7-6.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144
표 7-7. 우리나라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145
표 7-8. 양자/다자 원조 현황	146
표 7-9. 스리랑카 수원 현황-공여국 순위별	146
표 7-10. 스리랑카 ODA 분야별 현황	147
표 7-11. 한국의 스리랑카 농업·농촌분야 지원 현황	148
표 7-12. 투자분야별 투자액 비율	150
표 7-13. 국토의 구성	151
표 7-14. 농업분야 고용인구	152
표 7-15. 농산물 생산액 및 생산량	153
표 7-16. 농산물 생산지수	154
표 7-17. 스리랑카 쌀 생산 현황(정곡 기준)	155
표 7-18. 차 수출량 및 수출액	158
표 7-19. 농기계 및 비료 현황	159
표 7-20. 농촌 인구	160

부록 1

부표 1-1. CPSA 수립국가 선정에 위한 평가요소 및 지표	169
부표 1-2. 요소 및 세부요소별 가중치	170

부록 2

부표 2-1. 농지 등 면적	171
부표 2-2. 농업인구	172
부표 2-3. 농업생산	172
부표 2-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173
부표 2-5. 농업자재	173
부표 2-6. 농촌생활	174
부표 2-7. 인구 및 고용 현황	174
부표 2-8.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176
부표 2-9. ODA 수원 현황	181
부표 2-10.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세부분야별 공여 현황	184
부표 2-11.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 - 원조목적별 세부 프로젝트명	185
부표 2-12.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농어촌개발 무상원조실적 (2000~2009)	187

부록 3

부표 3-1. 농지 등 면적	189
부표 3-2. 농업인구	190
부표 3-3. 농업생산	190
부표 3-4.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191
부표 3-5.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 - 원조목적별 세부 프로젝트명	193

부표 3-6. ODA 수원 현황	194
-------------------------	-----

부록 4

부표 4-1. 농지 등 면적	196
부표 4-2. 농업인구	197
부표 4-3. 농업생산	197
부표 4-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198
부표 4-5. 농업자재	198
부표 4-6. 농촌생활	198
부표 4-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199
부표 4-8. ODA 수원 현황	201
부표 4-9. 우리나라의 아제르바이잔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원조목적별 세부프로젝트명	203

부록 5

부표 5-1. 농지 등 면적	204
부표 5-2. 농업인구	205
부표 5-3. 농업생산	205
부표 5-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206
부표 5-5. 농업자재	206
부표 5-6. 농촌생활	206
부표 5-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207
부표 5-8. ODA 수원 현황	209
부표 5-9.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 - 원조목적별 세부프로젝트명	211

부록 6

부표 6-1. 농지 등 면적	212
부표 6-2. 농업생산	213
부표 6-3. 농업인구	213
부표 6-4.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214

부록 7

부표 7-1. 농지 등 면적	216
부표 7-2. 농업생산	217
부표 7-3. 농업인구	217
부표 7-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218
부표 7-5. 농업자재	218
부표 7-6. 농촌생활	218
부표 7-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219
부표 7-8. 한국의 스리랑카 농업, 농촌분야 지원 현황 - 원조목적별 세부프로젝트명	221

부록 8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	224
--------------------------------------	-----

부록 9 세계은행의 양허성 자금 지원대상 국가 분류	226
------------------------------------	-----

그 립 차 례

제2장

그림 2-1. 연평균 기온(섭씨)	10
그림 2-2. 자연조건	11
그림 2-3. 인구분포	12
그림 2-4. 세계은행의 방글라데시 지원전략	28
그림 2-5. 지역별 영농체계	29
그림 2-6. 국가식품정책 실행계획 추진체계	43

제3장

그림 3-1. 면화 국제가격 시세 동향	70
-----------------------------	----

제4장

그림 4-1. 세계은행의 아제르바이잔 협력전략	99
---------------------------------	----

제5장

그림 5-1. 재정수지 현황	105
그림 5-2. 연도별 양자/다자 간 원조 수원 현황(백만 달러)	108
그림 5-3.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 ‘경제사회 공동체적, 생산적 모델’ ..	113
그림 5-4. 다원적 경제의 개념	114
그림 5-5. 빈곤인구 비율 추이	120
그림 5-6. 극빈인구 비율 추이	120

제6장

그림 6-1. ODA 수원 현황	127
그림 6-2. 양자/다자 원조 현황	127
그림 6-3. 솔로몬군도 수원 현황-공여국 순위별	128
그림 6-4. 솔로몬군도 ODA 분야별 현황	12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에 해당되는 금액을 ODA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될 경우 4조 원에 달하는 유무상 원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의 약 세 배나 되는 액수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원조 선진국에 비하면 금액상으로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2010년도 ODA 예산은 1조 7,667억 엔으로, 우리나라 2010년도 ODA 예산 1조 3,254억 원의 17배 가량 된다(<http://www.odawatch.net>).

우리나라는 ODA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제협력 경험이 일천하고 ODA 예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한정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CPS는 유·무상 원조 간에 효율적

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CPS에 따라 양자 원조의 70%를 배분할 예정이며, 이 협력전략에 따라 대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시행하며, 해당국에 대한 지원 예산은 CPS 내 중점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집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협력사업의 추진에서 CPS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CPS에 농업을 포함한 부문별 지원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 및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CPS는 주관기관(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이 수립하고 중점 지원 분야 선정 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CPS 수립과정에서 농업분야의 중점 지원분야로의 선정, 분야별 지원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은 저개발국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이자 주민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빈곤인구의 4분의 3이 농촌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도 핵심이 되는 과제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0.10)’을 마련할 때에도 농업은 정부의 개발협력 8대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분야이다.¹

한편 정부는 2010년 베트남 등 3개국에 대하여 CPS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관련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제시된 의견의 반영여부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CPS 수립 주관부처가 판단하게 됨에 따라 농업분야에 관한 지원전략이 동 전략서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2010~2011년도에 CPS가 수립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14개국에 대하여 농업분야 지원전략, 즉 CPSA(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Agriculture)를 수립하여 주관부처에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¹ 8대 분야는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경, 산업에너지 지임.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예산으로 CPSA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대상국에 대하여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판단하에, 전략수립 대상국을 선택, 집중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상국의 수원 수요, 발전가능성, 우리나라와의 양자관계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중 8개국을 선정하여 이들 나라에 대해서만 보다 체계적인 CPSA를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CPSA 수립 대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이들 국가와의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CPS를 보완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초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8개국에 대한 CPSA 수립은 별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나머지 6개국에 대한 기초조사를 본 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0~2011년 국별협력전략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중점협력국 14개국 가운데 농업분야 국별협력전략 수립에서 제외되는 국가(6개국)에 대하여 향후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및 농업분야 지원전략 수립에 대비하여 농업 및 농촌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상국에 대한 기초조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협력을 위한 방향수립, 중점협력부문 및 분야의 설정, 중장기 전략의 제시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² 8개국 선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 적용된 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부록 1을 참조.

3.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조사결과는 국가별로 국토면적 등과 같은 일반 현황을 먼저 소개하고, 그 뒤 경제 일반에 관한 각종 수집가능한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분야에 관한 다양한 세부 분야별로 조사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용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 제시된 국가들 사이에 비교가능한 일관된 형태의 자료제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별로 보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세부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일반 현황

- 총괄
- 인구·사회·문화 현황
 - 성별, 연령별 인구
 -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평균수명
 - 문자해독률 혹은 문맹률
 - 학력수준별 인구
 - 영유아 사망률 등
 - 생활환경 관련 지표: 상하수도, 도로 등

□ 경제 현황

-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민소득

- 산업구조
 - 외환보유고 혹은 외채규모
 - 수출입 총액
 - 주요 수출입 품목별, 대상국별 수출입 금액
 - 대미화 환율
 - 소비자 물가지수(인플레이션)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인구
 - 실업률
 - 빈곤, 분배
 - 빈곤율, 지니계수
 - ODA 관련
 - 규모: 집행액 기준
 - 경제개발계획
 - 중앙부처 경제개발계획,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 등
- 농업 현황
- 농지 및 토지제도
 - 농지분포
 - 농경지 이용 형태
 - 관개율
 - 토지제도

6

- 인구
 - 농업취업자
 - 농가
- 농업생산
 - 분야별 생산 현황
 - 주요 작물별 생산 현황
 - 주요 축종별 사육 현황
- 농산물 유통
 - 주요 품목별 수출입
- 농업자재
 - 비료, 농약 사용량
 - 농기계 보유 현황
- 농촌
 - 인구
 - 빈곤율
 - 농촌생활환경 관련 지표
- 농업부문 개발전략
 - 농업부문 개발계획
 - 농업부문 투자계획
- 기타

4.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현황과 경제, 농업과 농촌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계자료와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위주로 한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한 통계자료의 수집 등의 절차는 짧은 연구기간 등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생략되었다.

여기서 다루는 6개 나라들(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스리랑카, 솔로몬군도)에 대한 농업분야 관련 현황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자료들 가운데에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가 제공하는 국가개황, 최근 정치·경제동향, 투자환경,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등 일반사항과 민간의 투자를 위한 정보를 참고로 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은 국별, 권역별(서아시아, 중남미 등) 특성과 통상정책, 산업별 특성, 자원 관련 현황(예: 천연가스) 등에 관한 동향과 전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FAO, OECD/DAC 등은 FAOSTAT, OECD. StatExtracts와 같은 온라인 DB를 통해 국가별, 주요 관심사항별 통계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대상국에 관한 중장기 협력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 및 성과를 점검하는 사업수행 결과 프레임워크(Result Framework) 등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UN개발계획(UNDP)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지표별 성취도 등을 국가별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 혹은 권역별로 ‘베트남 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인도네시아 통계(Statistics Indonesia)’, ‘아프리카 통계연보(African Statistical Yearbook)’ 등과 같은 통계연보를 발간하기도 하는데, 영문으로 간행되어 온라인에서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농업분야 투자계획서가 있다. 가령, 방글라데시는 ‘국가식품정책 실행계획(National Food Policy Plan of Action,

2008~2015)', '국가투자계획: 농업, 식량안보, 영양 분야 투자를 위한 로드맵 (Country Investment Plan: A Road Map towards investment i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제2 장

방글라데시

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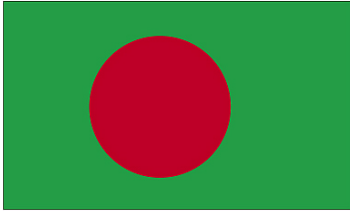
방글라데시는 오랜 기간 평화로운 정치체제를 유지하다가 2006년 소요사태 이후 군부에 의한 과도정부 통치를 맞게 되었다. 그 뒤 2008년 12월 선거를 통하여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는 등 후진국으로서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면적은 14만 8,000km²로,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이며,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 후 독립하였다.

표 2-1. 방글라데시 국가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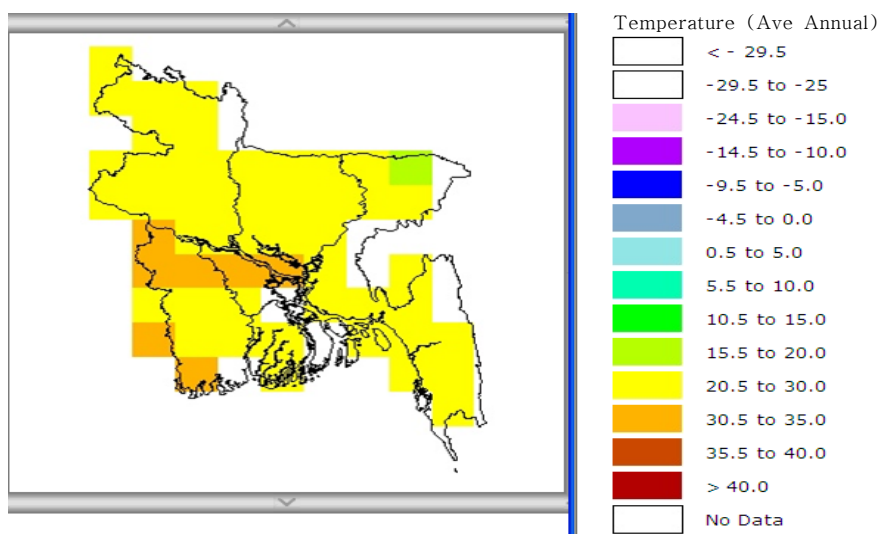
국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위치	서아시아 동부, 인도 및 미얀마 접경 (23° 42' 0" N, 90° 21' 0" E)
면적	148천 km ² (한반도의 2/3)
기후	열대 몬순, 연평균 강우량 2,666mm
수도	다카(Dhaka)
인구	158백만명(2010년)

표 2-1. 방글라데시 국가개황(계속)

국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민족	벵갈인(98%)
언어	벵갈어, 우루두어, 힌두어, 영어
종교	회교(83%), 힌두교(16%)
독립기념일	1971년 3월 26일: 서파키스탄에서 독립한 날 1971년 12월 16일: 방글라데시 국가의 공식 출범의 날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Zillur Rahman 대통령
의회	단원제(300석)
국기	 초록: 이슬람교의 전통색, 젊은이 의 의기와 푸른 벵골 지방을 나 타냄 빨강: 피로써 쟁취한 자유의 태 양과 독립을 얻기 위해 국민이 치른 희생을 나타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http://www.cia.gov>; <http://100.naver.com>.

그림 2-1. 연평균 기온(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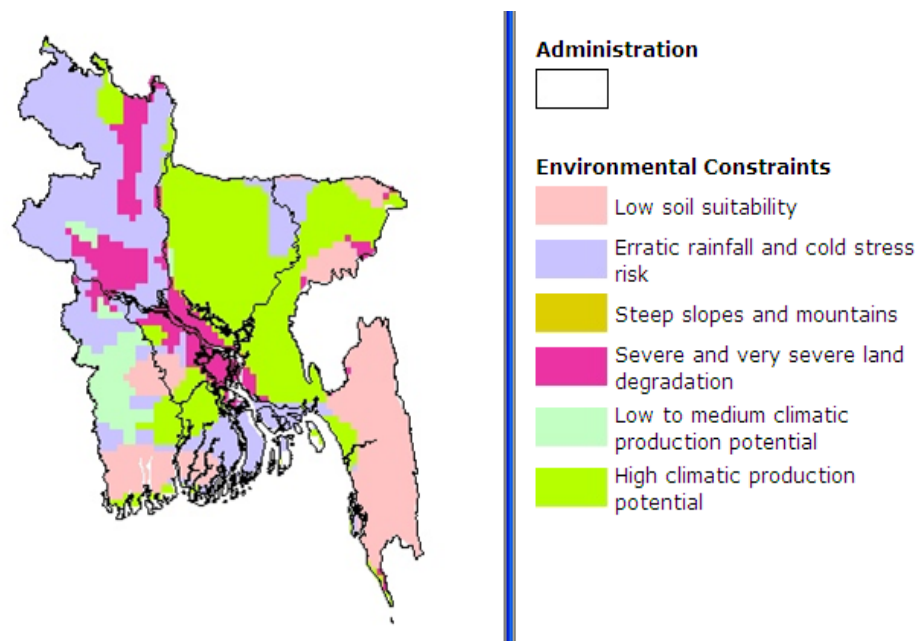


자료: <http://www.fao.org>.

방글라데시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평균 244건의 기상이변으로 8,241명이 사망하고 GDP의 1.81%에 해당하는 21억 8,9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국제협력단, 2010). 자연조건의 극복이 방글라데시로서는 국가개발을 위한 최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따라 재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령 205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하면서 방글라데시 국토의 18%가 물에 잠기고 2,0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며 4,000만 명이 생계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10). 재해관리와 기후변화 대처가 농업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정책과 계획에서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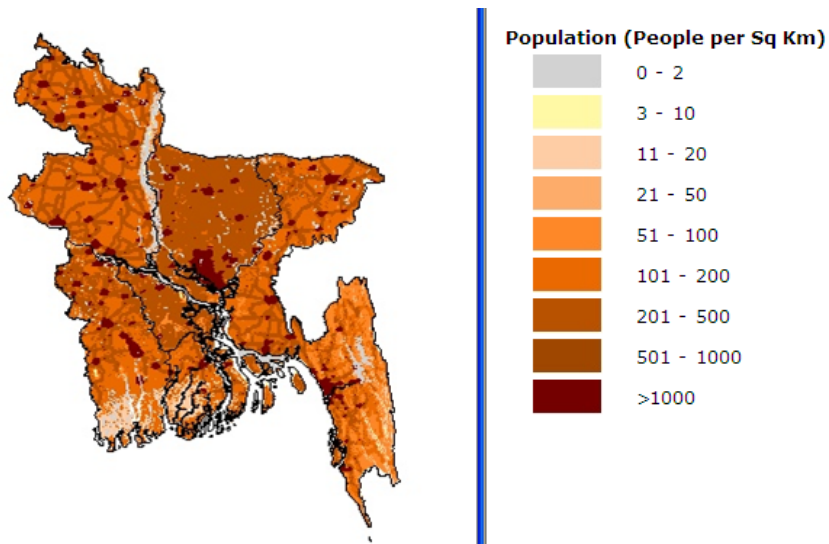
그림 2-2. 자연조건



자료: <http://www.fao.org>.

인구는 벵골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갠지스 강 유역의 델타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그림 2-3. 인구분포



자료: <http://www.fao.org>.

방글라데시는 서아시아의 인구대국으로, 2005년 1억 5,30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1억 8,500만 명, 2050년 2억 2,2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출산율이 2.4명에 달하는 등 압박 요인이 커서 날마다 220ha, 해마다 경작지의 1%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표 2-2. 인구 및 주요 사회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총인구	1991년 111백만 명, 2008년 142백만 명	
km ² 당 인구(명)	1991년 752명, 2008년 965명	
성별, 연령별 인구	- 0~14세: 34.3% (남성 27,552천 명 / 여성 26,777천 명) - 15~64세: 61.1% (남성 45,956천 명 / 여성 50,892천 명) - 65세 이상: 4.7% (남성 3,616천 명 / 여성 3,778천 명)	2011년 추정치

표 2-2. 인구 및 주요 사회지표(계속)

구 분	내 용	비 고
출생률	22.98명/1,000명	2011년 추정치
총출산률	2.4명/여성	2007년
사망률	5.75명/1,000명	2007년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43명	2007년
지역별 인구	다카(수도) 1,425만 명; 치타공 481만 6,000명; 쿨나 163만 6,000명; 라지샤히 85만 3,000명	2009
성비(여성 대비)	- 출생시: 1.04 - 15세 미만: 1.01 - 15~64세: 0.89 - 65세 이상: 0.93 - 전체 평균: 0.93	2011년 추정치
기대수명	- 전체 평균: 69.75세 - 남성: 67.93세 - 여성: 71.65세	2011년 추정치
성인 문자해득률	- 전체 평균: 58.3% - 남성: 63.1% - 여성: 53.5%	2007년
초등학교 등록률	97.6%	2008년
인간개발지수(HDI)	0.469	2010년

자료: <http://www.adb.org>; <http://www.cia.gov>; Asian Development Bank(2009); <http://hdr.undp.org>.

2. 경제 현황

2.1.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은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0년 들어서 곡물과 원예 부문의 농업생산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표 2-3. 경제성장률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6.6	6.4	6.2	5.7	5.8
부 문	농업	4.9	4.6	3.2	4.6*	n.a.
	제조업	9.7	8.4	6.8	5.9*	n.a.
	서비스업	6.4	6.9	6.5	6.3*	n.a.

*: 추정치임.

자료: 경제성장률은 Asian Development Bank(2010); 산업부문별 성장률은 Asian Development Bank(2009)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11년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회복하면서 GDP 성장률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성장은 2010 년도의 4.7%에서 줄어들어 4.1%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름에 재배하는 쌀 품종인 아우스(aus)와 몬순기에 재배하는 쌀 품종인 아만(aman)의 재배면적이 축소하고 강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³

구매력(PPP) 기준 GDP는 2,593억 달러, 1인당 GDP는 1,700 달러에 이르지 만 명목 GDP는 996억 달러, 1인당 GDP는 630달러에 불과하여 세계은행의 국 가분류상 최빈국이며,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³ 방글라데시의 쌀 품종에 대해서는 제4장 “농업 현황”을 참조.

IDA)의 무상원조(grants)를 받을 수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2009년의 인플레이션은 6.7%이었으나 2010년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민간 대출의 증가, 타카(taka, 방글라데시 화폐)의 평가절하도 원인이 되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

표 2-4. 거시경제 지표

구 분	내 용
명목 GDP	996억 달러 (2009년 기준)
1인당 GDP	630달러 (2009년 기준)
실업률	2.5%(2009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7.3%(2010년)
환율	1달러 ≍ 70.6타카(BDT, 2010년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http://www.cia.gov>.

농업부문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0% 이하로 감소한 이래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표 2-5. 부문별 GDP 구성 비율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별 GDP(2010년 전망치)	18.4%	28.7%	52.9%

자료: World Bank(2010).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은 100억 달러 가까운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 그리고 총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제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이렇게 세입원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은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World Bank, 2010).

표 2-6. 국내 송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송금액(십억 달러)	2.5	3.1	3.4	3.8	4.8	6.0	7.9	9.7
연간 변동률(%)	32.9	22.4	10.0	14.2	24.8	24.5	32.4	22.4

자료: World Bank(2010).

2009년의 수출액은 156억 달러, 수입은 203억 달러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은 미국, 독일 등 구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은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7. 수출입 총액 및 주요 수출국(2009년)

구 분		내 용
수출	총액	155.8억 달러
	주요 수출국 현황	미국 22.5%, 독일 14.2%, 영국 9.6%, 프랑스 7%, 네덜란드 6.4%
수입	총액	203억 달러
	주요 수입국 현황	중국 16.2%, 인도 12.6%, 싱가포르 7.6%, 일본 4.6%, 말레이시아 4.5%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한국무역보험공사(2010); <http://www.cia.gov>.

수출품목 가운데에는 기성복 의류제품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며, 특히 2004~2005년에서 2008~2009년의 5년 동안 2.1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표 2-8.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타카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기성복 의류제품	398,149	478,226	633,430	734,651	849,673
식물 물품	16,636	18,987	27,040	31,610	36,544
식물성 섬유소/사	17,332	22,870	30,021	34,569	27,811
새우	19,915	27,656	39,026	41,890	24,338
신발	5,358	5,906	8,590	11,295	12,593
가죽	13,649	15,651	18,421	19,843	12,350
황마	5,269	9,004	11,930	12,874	9,907
특수직조 식물	3,823	5,259	6,928	7,451	8,432
비료	5,306	4,609	5,851	3,070	7,392
모자 등	3,758	3,989	4,615	4,989	4,513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2010c).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전기기구 등 기계장비와 의류제조를 위한 식물, 면화, 섬유사 등이다. 그 외에 철강과 식용유 등 생필품이 주요 수입품목이다.⁴

표 2-9.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타카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우유 및 크림	7,491	5,764	6,555	12,135	17,842
설탕	14,798	13,640	17,224	28,247	24,100
쌀	8,584	14,183	10,678	39,489	16,142
밀	14,651	22,025	29,449	42,302	39,002
면화	42,797	52,734	65,175	91,783	79,736
원유	9,269	10,932	18,420	13,223	16,311

⁴ 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이며, 가령 2009.7~2010.6 회계연도는 2009년으로 표기함.

표 2-9. 주요 수입품목(계속)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석유제품	34,141	98,815	125,251	108,030	151,018
비료	18,231	21,936	21,567	44,465	58,342
플라스틱 제품	20,485	33,876	42,238	53,030	52,188
식용유	26,620	56,836	76,279	132,605	124,321
철강	27,892	44,747	46,484	58,427	85,819
전기기구 등 기계장비	150,241	204,951	243,664	241,068	250,240
섬유사(면 및 합성)	12,675	12,387	15,012	46,934	56,408
직물(면 및 합성)	57,974	59,300	30,413	104,579	144,169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2010c).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평가를 보면, OECD 국별 등급은 6/7등급이며 기타기관의 평가 및 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0. 평가기관별 등급

평가기관	국별 등급(순위)	등급(순위) 인접국
S&P	BB-/Stable('10.4.5)	필리핀, 몽골
Moody's	Ba3/Stable('10.4.12)	필리핀, 우루과이
Euromoney	113/186('10.3)	볼리비아(112), 가봉(114)
I. I.	137/178('09.9)	라오스(136), 네팔(138)
ICRG	90/140('10.5)	불가리아(90), 이집트(90)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2010).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연간 10억 달러 미만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스 탐사와 LNG 터미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2010년에 의회가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을 통과시킴에 따라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

2.2. 빈곤, 분배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49.6%에 달하며 이를 2009년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약 8,000만 명이나 된다. 가장 가난한 20%의 인구가 전체 국민소득 혹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2005년)에 불과하다.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아동의 인구비율⁵은 46%(2007년), 저영양 상태의 인구비율⁶은 27%(2003~2005년)로, 2009년 전체 인구로 보면 저영양 인구는 약 4,380만 명이 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슷하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6%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최빈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잦은 한편 농업에의 의존도가 높아 식량부족과 빈곤의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ADB는 저개발국이 달성하여야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첫 번째 목표(극빈과 기아의 퇴치)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2009).

1.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방글라데시는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불평등도 악화되지 않아 빈곤 감소에 좋은 진전을 이루었다. 빈곤율은 1991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해마다 1.3%씩 감소하여 59%에서 40%로 줄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일정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자연재해와 식량가격 앙등에 따라 국민소득에서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빈곤을 더 빨리 줄이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는 것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

⁵ 전 세계 평균치로부터 표준편차의 두 배 만큼 적은 체중을 가진 아동의 그 연령대 총 인구에 대한 비율

⁶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최소 에너지 필요량 이하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인구의 총 인구에 대한 비율

이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극빈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의 동원이 필요하다.

2.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제는 기아가 주요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식량에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집단이 존재한다. 하루 칼로리 섭취량 1,805칼로리 이하의 인구가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28%에서 19.5%로 떨어졌다. 영양부족 상태를 겪는 어린이의 비율도 음식섭취의 개선, 특히 적절한 시기에 보완적 음식공급을 통해 지난 10년간 20% 줄었다. 그러나 46% 가까운 아동들이 발육장애 혹은 저체중 상태에 있을 정도로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저영양 비율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상황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거시 경제적 전망치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World Bank, 2010).

표 2-11. 거시경제 전망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질 GDP 성장률(%)	5.5	5.8	6.3	6.4	6.4
수출액 성장률(미화, %)	1.8	12.4	15.7	17.0	18.3
경상수지 잔고(GDP 중 %)	2.4	2.1	1.7	1.3	0.9
순 외국인 직접투자(GDP 중 %)	0.5	0.9	1.0	1.0	1.0
세입(GDP 중 %)	11.5	11.6	12.1	12.5	13.0
공채(GDP 중 %)	43.8	44.0	43.7	43.3	43.1
대외 채무(GDP 중 %)	22.3	21.7	20.8	19.8	19.0

자료: World Bank(2010).

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아직 거버넌스 체제라든가 부패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지만, 후진국으로서는 정치가 꽤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가 2021년까지 중진국으로 올라서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률이 점차 6%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3. 공적개발원조 수혜 현황

방글라데시의 수원총괄기관은 경제관계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이다. 해외 ODA 지원액의 금액 추세를 보면 2003년과 2008년 등 특정한 연도에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다자, 양자 원조 모두 대체로 감소추세이다.

표 2-12. 연도별 다자, 양자 간 원조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다자 원조	양자 원조	총액
2000	792.32	923.81	1,716.13
2001	722.23	902.59	1,624.82
2002	573.29	766.08	1,339.37
2003	899.12	907.92	1,807.04
2004	899.05	784.89	1,683.94
2005	858.52	676.28	1,534.8
2006	847.97	538.29	1,386.26
2007	869.51	702.73	1,572.24
2008	1,224.06	837.34	2,061.4
2009	514.94	783.41	1,298.35

* 순지출 기준.

자료: <http://data.worldbank.org>.

GNI에서 ODA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1%, 2008년 2.4%, 2009년 1.2%로 변화하였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원조총액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원조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수원액(순지출 평균)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방글라데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표 2-13. 중앙-남아시아 국가별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수원국	2001	2003	2005	2007	2009	평균
전체	아프가니스탄	404.6	1,590.7	2817.9	3,964.6	6,235.3	2,936.1
한국		0.0	21.1	8.9	2.6	24.1	9.9
전체	아르메니아	211.6	253.8	170.3	350.1	527.6	287.2
한국		0.0	0.1	0.1	0.1	0.0	0.1
전체	아제르바이잔	229.5	300.7	216.5	225.3	232.3	241.1
한국		0.0	0.0	0.1	0.8	1.7	0.8
전체	방글라데시	1,043.7	1,392.2	1,317.7	1,514.6	1,226.9	1,344.0
한국		0.9	10.1	31.9	10.0	13.6	13.6
전체	부탄	60.5	77.3	90.1	89.8	125.4	87.0
한국		0.1	0.1	0.3	0.3	0.4	0.3
전체	그루지야	291.4	230.0	292.1	380.1	907.9	441.5
한국		0.0	0.0	0.0	0.2	0.0	0.0
전체	인도	1,731.4	726.6	1,867.5	1,390.9	2,502.2	1,583.0
한국		0.5	1.2	0.9	3.9	0.8	1.3
전체	카자흐스탄	156.7	278.5	228.0	204.2	297.9	235.8
한국		1.0	2.4	3.7	2.2	5.5	3.9
전체	키르기즈스탄	187.9	200.1	267.9	274.6	314.7	262.5
한국		0.1	0.6	0.4	0.2	0.7	0.5
전체	몰디브	24.8	23.2	75.8	37.4	33.3	38.0
한국		0.1	0.0	3.1	0.1	0.0	0.5
전체	미얀마	125.7	125.0	144.8	197.7	357.0	208.0
한국		0.4	6.6	8.1	0.5	2.0	4.5

표 2-13. 중앙-남아시아 국가별 ODA 수원 현황(계속)

공여국	수원국	2001	2003	2005	2007	2009	평균
전체	네팔	389.6	466.6	424.1	605.3	854.6	525.7
한국		1.6	1.5	1.8	5.0	18.1	4.3
전체	파키스탄	1,941.5	1,071.4	1,606.6	2,243.8	2,780.6	1,872.7
한국		4.4	1.0	3.7	3.3	2.0	2.4
전체	스리랑카	340.7	671.4	1155.1	612.7	703.8	649.9
한국		10.9	17.2	33.2	33.3	15.5	18.8
전체	타지키스탄	165.3	148.1	251.5	222.1	408.9	238.3
한국		0.6	0.2	0.3	0.2	0.2	0.2
전체	투르크메니스탄	72.6	28.6	30.4	28.5	39.9	35.6
한국		0.0	0.0	0.0	0.0	0.2	0.0
전체	우즈베키스탄	153.9	194.6	169.7	169.8	190.3	183.3
한국		16.3	1.7	2.6	3.2	5.9	4.8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표 2-14.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공여국 전체평균(2001~2009)
1	아프가니스탄	2,936.09
2	파키스탄	1,872.72
3	인도	1,583.00
4	방글라데시	1,344.02
5	스리랑카	649.94
6	네팔	525.67
7	그루지야	441.47
8	아르메니아	287.17
9	키르기즈스탄	262.51
10	아제르바이잔	241.13
11	타지키스탄	238.25
12	카자흐스탄	235.82
13	미얀마	207.99

표 2-14.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계속)

순위	수원국	공여국 전체평균(2001~2009)
14	우즈베키스탄	183.30
15	부탄	86.97
16	몰디브	37.99
17	투르크메니스탄	35.60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반면, 한국의 공여규모 순위는 국제사회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 지역 총수원액의 약 29%를 차지하는 스리랑카가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는 약 21%로 2위를 차지한다(<http://stats.oecd.org>).

표 2-15. 우리나라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우리나라 평균(2001-2009)
1	스리랑카	18.80
2	방글라데시	13.58
3	아프가니스탄	9.91
4	우즈베키스탄	4.80
5	미얀마	4.52
6	네팔	4.28
7	카자흐스탄	3.88
8	파키스탄	2.42
9	인도	1.29
10	아제르바이잔	0.77
11	몰디브	0.45
12	키르기즈스탄	0.45
13	부탄	0.25
14	타지키스탄	0.23
15	아르메니아	0.08
16	그루지야	0.04
17	투르크메니스탄	0.04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방글라데시에 대한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71년 이래 주로 유럽연합, 세계은행/국제개발협회(IDA)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왔다. 이후 80년대에는 일본이 막대한 지원으로 두각을 나타내었고, 90년대까지 일본과 세계은행/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sDF)의 지원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점차 영국의 지원이 증가하였고, IDA와 유럽연합은 여전히 주요 공여국(기구)으로 꼽힌다.

표 2-16. 연도별 공여국 및 국제기구 순위

단위: 백만 달러

년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국(순위)	
1970년대	미국	IDA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146.8	107.9	67.2	56.4	52.5	0	
1980년대	IDA	일본	미국	AsDF	캐나다	한국	
	245.8	222	159.8	125.8	81.7	0	
1990년대	IDA	AsDF	일본	미국	영국	한국	(27)
	291.2	252.6	193.6	91.9	86.6	2.8	
2000-2005	IDA	영국	일본	AsDF	미국	한국	(17)
	325.8	174.4	100.4	96.4	65.1	12.5	
2006	IDA	AsDF	IMF	영국	유럽연합	한국	(12)
	231.5	195.1	148.5	139.1	100.9	22.2	
2007	IDA	영국	AsDF	유럽연합	네덜란드	한국	(20)
	420.5	245.6	204.4	101.5	99.5	10	
2008	IDA	AsDF	영국	유럽연합	미국	한국	(21)
	623.5	305.1	252.5	194.5	93.2	8.1	
2009	영국	AsDF	유럽연합	IDA	네덜란드	한국	(20)
	250.1	154.6	131.9	94.3	70.4	13.6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누적금액으로 보면 세계은행/국제개발협회(IDA), 영국과 일본이 가장 큰 원조 공여국·기관으로 꼽힌다. 한국은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나 20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가운데 농림수산업 부문에 지원되는 ODA 총액(‘생산분야’로 분류된 금액)을 농촌인구로 나눈 1인당 농업 ODA 규모를 보면 0.9달러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의 농업부문 종사인구가 3,556만 명이고 농촌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가 넘어 1억 1,7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엔 농업·농촌부문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표 2-17. ODA 분야별 약정액

분 야	약정액(백만 달러)	비율(%)
부채탕감과 관련된 활동	68.9	2.44
행정비용	1.4	0.04
경제인프라와 서비스	673.6	23.90
교육	292.5	10.37
보건 및 인구	337.0	11.95
인도적 지원	155.5	5.51
다분야	369.3	13.10
기타 사회분야	553.0	19.62
생산분야	184.2	6.53
프로그램지원	179.2	6.37
미분야	3.7	0.13

* 2005~2009년간 평균.

자료: <http://www.oecd.org>.

농업분야에서 2000~2009년 기간에 우리나라가 지원한 무상원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농업분야 무상원조 현황

사업유형	지원액(달러)
프로젝트	994,887
연수생 초청	309,397
해외봉사단	302,277

* 2000~2009년 기간에 농어촌개발로 분류되어 지원된 금액임.

자료: <http://stat.koi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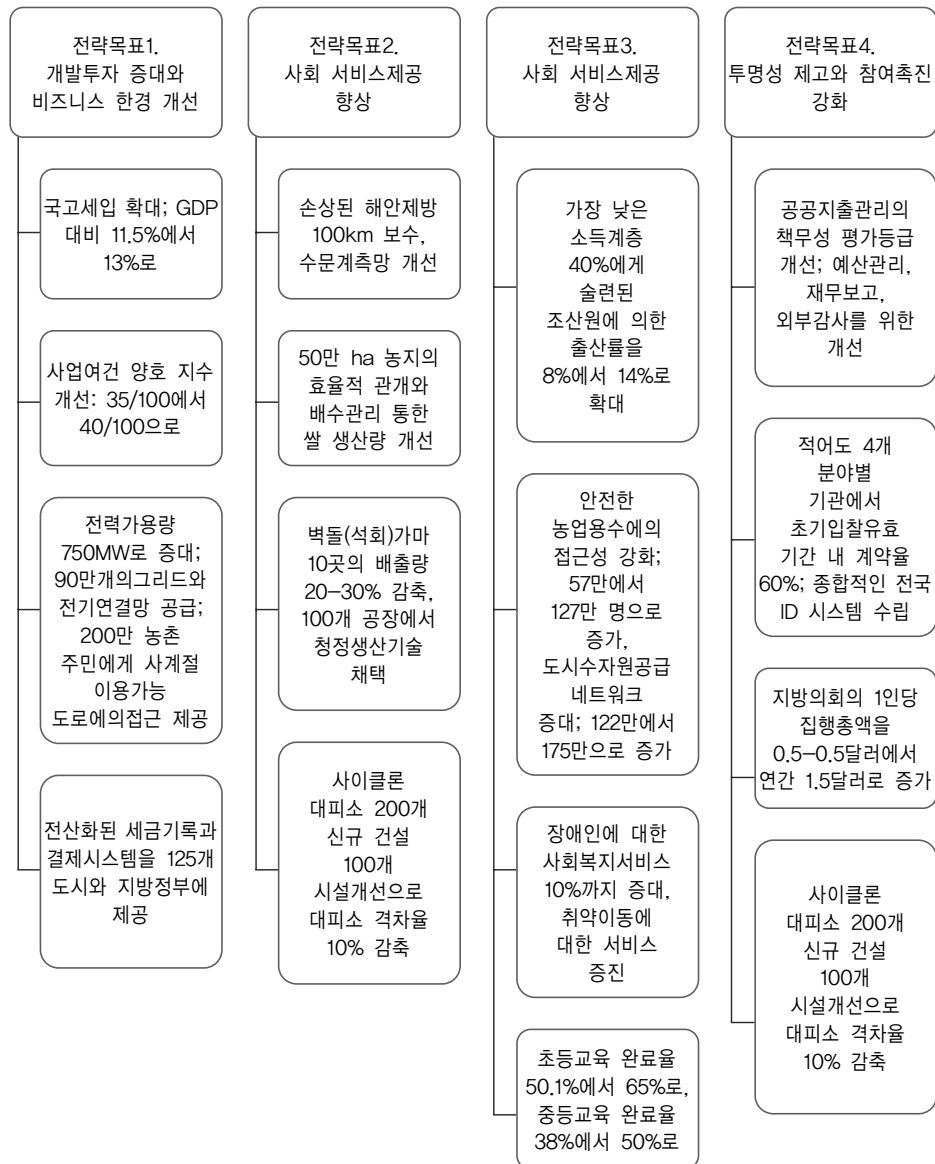
2.4. 경제개발 전략

방글라데시의 빈곤감소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을 위한 계획서는 2005년에 ‘잠재력의 문을 열다: 가속적 빈곤감소를 위한 국가전략(Unlocking the Potential: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 NSAPR)’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3년 뒤인 2008년 10월 과도정부는 제2차 빈곤감소 전략으로 ‘전진: 가속적 빈곤감축을 위한 국가전략(Moving Ahead: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을 발표하였고 12월 29일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 전략은 2009년 1월 새로 출범한 시크 하시나 정권이 소속정당인 아와미 동맹(Awami League)이 선거기간에 강령으로 발표한 ‘비전 2021’을 구체화한 것으로,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2차 빈곤감소전략은 2009~2011 3년간 총 3조 4,570억 타카(약 500억 달러)가 소요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또한 제6차 5개년 계획(2011~2015)의 출발 시기까지의 과도적 전략으로 추진된다.

제2차 빈곤감소전략은 다섯 개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① 빈곤계층을 위한 성장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유지, ②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활력 제공, ③ 필수 인프라의 건설, ④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⑤ 인적 개발의 집약화 등이다. 이들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World Bank, 2010).

그림 2-4. 세계은행의 방글라데시 지원전략



자료: World Bank(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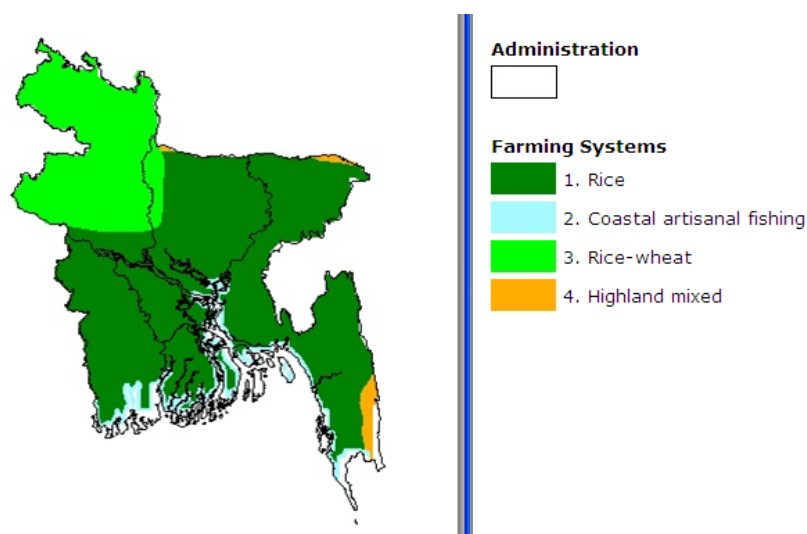
- (i) 모든 부문, 집단, 계층의 참여와 사회적 포용, 역량강화를 보장
- (ii) 투명성과 책임성, 법치를 통한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촉진
- (iii) 특별히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효과적 전달
- (iv)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 (v) 과학과 기술을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세계은행이 최근 수립한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와 그 달성여부를 측정할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3. 농업 현황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주 농산물인 벼를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과 고원지역에서의 다양한 원예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해안에서는 영세한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림 2-5. 지역별 영농체계



자료: <http://www.fao.org>.

3.1. 농지

방글라데시의 국토면적에서 농지는 9만 3,000km²로, 전체의 71.4%를 차지한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는 790만 ha인데 이는 국민 1인당 0.05ha에 불과한 작은 면적이다.

표 2-19. 국토의 구성

구 분	2000	2008
국토면(km ²)	130,170	130,170
농지(km ²)	90,840	93,000
총국토면적 중 비율(%)	69.8	71.4
농경지(ha)	8,064,000	7,900,000
1인당 농경지(ha)	0.057	0.05
총국토면적 중 농경지 비율(%)	62	60.7
곡물 생산면적(ha)	11,672,247	12,032,530*
총국토면적 중 영년작물 면적 비율(%)	3.2	6.1
산림(km ²)	14,680	14,420**
총국토면적 중 산림 비율(%)	11.3	11.1**

*2009년, **2010년.

자료: <http://data.worldbank.org>.

3.2. 인구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8년에 3,556만 명이다. 이는 전체 산업 종사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되며, 절대 인구 수로는 2000년의 3,446만 명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업 종사인구 성장률이 전체 인구 성장률보다 낮아서 전체 산업 종사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62.1%에서 2004년 48.1%로 감소하였다.

3.3. 생산

방글라데시는 인구증가율이 1.6%에 달하는 등 농지에 대한 압박 요인이 심하다. 경작률도 175%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곡물생산의 집약화, 고부가가치 작물과 비식량작물로의 다변화, 농가공과 저장, 가공, 판매 등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의 증대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이에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관개율은 2004년 55%에서 2008년 65%로 증가하였다(World Bank, ADB, DFID, Japan, 2005).

표 2-20. 농업생산지수

	2000	2009
작물 생산지수(1999-2001 = 100)	103	130
식품 생산지수(1999-2001 = 100)	102	132
축산물 생산지수(1999-2001 = 100)	100	137
곡물 생산량(ha당 kg)	3,384.3	3,890.4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2000년 이후 작물, 식품, 축산물의 생산지수는 모두 늘어나고 있으며 ha당 곡물 생산량도 2009년에 4톤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겨울철에 재배하는 쌀 품종인 보로(boro)의 평균 생산성도 2005년 3톤에서 2008년에는 3.6톤으로 늘어나 식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09).

농업 생산자당 부가가치는 2000년의 336달러에서 2009년 435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오히려 2000년의 25.2%에서 2009년 18.7%로 위축되었다.

표 2-21. 농업 부가가치

	2000	2007	2008	2009
생산자당 농업 부가가치 (2000년 불변, 달러)	336.4	404.9	417.6	435.2
농업 부가가치(GDP 중 %)	25.2	19.2	19.0	18.7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 황마, 차, 밀, 사탕수수, 감자, 담배, 콩, 종자유, 향신료, 과일, 쇠고기, 우유, 가금류 등이다. 쌀은 계절에 따라 다른 종자를 식재한다.

표 2-22. 쌀 품종

품 종	설 명
아만 (Aman)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흔한 쌀 품종으로, 몬순 계절 직전 혹은 몬순 기간에 직파 혹은 이앙 방식으로 식재하며, 직파는 보통 3월에, 이앙은 6~8월에 하여 11~1월에 수확한다.
아우스 (Aus)	몬순 이전인 3~5월에 직파와 이앙으로 식재하며 6~8월에 수확한다. 대부분 아만보다 전에 식재하기 때문에 홍수에 의해 깊이 잠겼던 지역에서 아만 대신 심는다.
보로 (Boro)	겨울의 건기(12~1월)에 심고 4~5월에 수확한다. 아우스 혹은 아만과 달리 보로는 홍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심으며 관개배수가 필요하다.

쌀 품종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아우스와 보로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아만의 재배면적과 수확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표 2-23. 쌀 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 분	2006/07		2007/08		2008/09	
	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아우스	905	1,512	919	1,507	1,066	1,895
아만	5,416	10,841	5,048	9,662	n.a.	n.a.
보로	4,258	14,965	4,608	17,762	n.a.	n.a.
계	10,579	27,318	10,575	28,931	n.a.	n.a.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2010a).

2009/10 회계연도 기간의 쌀의 재배면적과 2010~2012년의 생산량 및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⁷

표 2-24. 품종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품 종	2009/10		2010/11(전망)		2011/12(전망)	
	면적 (천 ha)	생산 (천 M/T)	면적 (천 ha)	생산 (천 M/T)	면적 (천 ha)	생산 (천 M/T)
아우스	1,020	1,500	1,100	1,700	1,000	1,700
아만	5,780	12,500	5,800	12,600	5,900	13,000
보로	4,800	17,000	4,900	18,000	5,100	18,300
계	11,600	31,000	11,800	32,300	12,000	33,000

자료: <http://gain.fas.usda.gov>.

2009/2010 회계연도 기간에 쌀의 생산, 수입, 소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⁷ 미국 FAS가 추정한 아만의 재배면적은 ADB의 감소전망과는 달리 약간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표 2-25. 쌀 생산, 수입, 소비량

구 분	생산, 수입, 소비
수확면적(천 ha)	11,600
재고량(천 톤)	1,148
정곡 생산량(천 톤)	31,000
수입량(천 톤)	90
총 공급량(천 톤)	32,238
수출량(천 톤)	0
소비량(천 톤)	31,600
차기 이월 재고량(천 톤)	638

자료: <http://gain.fas.usda.gov>.

아래 표는 2009년(1월~12월) 기간의 국가별 쌀 수입량으로,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 등 인접한 쌀 대량 생산국이 방글라데시의 주 수입대상국이다.

표 2-26. 쌀 수입국별 수입량

국 가	수입량(M/T)
파키스탄	15,000
베트남	15,000
미얀마	75,000
중국	5,000
소 계	110,000
기타 국가	40,000
총 계	150,000

주: 2009년 게이프로 2009/10 회계연도 총계와 다름.
 자료: <http://gain.fas.usda.gov>.

밀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이 2002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가 지난 몇 년간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27. 연도별 밀 생산량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량(천 톤)	1,606	1,507	1,253	976	735	737	844	950

자료: <http://www.oecd-ilibrary.org>.

밀은 40만 ha 가량의 면적에서 85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소비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333만 톤에 이른다. 2009/2010 회계연도 기간에 밀의 생산, 수입, 소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8. 밀 생산, 수입, 소비량

구 분	생산, 수입, 소비
수확면적(천 ha)	400
재고량(천 톤)	758
생산량(천 톤)	850
수입량(천 톤)	3,331
총공급량(천 톤)	4,939
수출량(천 톤)	0
소비량(천 톤)	3,700
차기이월 재고량(천 톤)	1,239

자료: <http://gain.fas.usda.gov>.

2009년의 밀 수입국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 수입하며, 이 밖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전통적인 밀 수출국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표 2-29. 밀 수입국별 수입량

국 가	수입량(M/T)
캐나다	400,000
오스트레일리아	300,000
러시아	300,000
우크라이나	2,200,000
소계	3,200,000
기타 국가	131,000
총계	3,331,000

자료: <http://gain.fas.usda.gov>.

방글라데시의 일부 지방에서는 목화재배가 성행하지만 지난 몇 년간 재배면적은 감소하여 왔다.

표 2-30. 목화 생산면적 및 생산량

	수확면적(ha)	생산량(톤)
2004/05	44,000	13,310
2005/06	49,770	14,000
2006/07	42,100	12,824
2007/08	28,707	7,705
2008/09	32,600	9,200
2009/10	31,500	10,964

자료: <http://gain.fas.usda.gov>.

그 밖의 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1. 기타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 분	2006/07		2007/08		2008/09	
	면적 (에이커)	생산량 (천 톤)	면적 (에이커)	생산량 (천 톤)	면적 (에이커)	생산량 (천 톤)
옥수수(겨울)	336,190	841,370	516,425	1,285,691	n.a.	n.a.
옥수수(여름)	36,530	60,780	36,530	60,780	32,745	57,753
콩류	769,040	257,505	557,508	203,535	n.a.	n.a.
식용유	789,140	321,690	n.a.	n.a.	n.a.	n.a.
사탕수수	370,810	5,769,945	319,940	4,983,656	n.a.	n.a.
바나나	145,280	1,004,520	131,636	877,123	n.a.	n.a.

자료: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2010b).

3.4. 자재

농기계 보급은 매우 열악하여 3,000대 가량의 트랙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농경지 100km²당 약 4대에 해당한다. 그나마 2000년의 100km²당 1.2대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농경지 ha당 비료 소비량은 2008년 164.5kg로, 2002년에 보고된 195.4kg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http://data.worldbank.org>).

3.5. 농촌

일반적인 빈곤국가와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농촌도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있어서 2009년 기준 전체 인구의 72.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율은 2000년 76.4%로부터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절대 인구 수로는 아직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32. 농촌 인구 변화 추세

구 분	2000	2005	2008	2009
농촌 인구(천 명)	107,546	113,770	116,576	117,415
연간 인구성장률(%)	1.32	1.01	0.76	0.72
농촌인구 비율(%)	76.4	74.3	72.9	72.4

자료: <http://data.worldbank.org>.

2008년에 실시된 농업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총가구 수는 2,867만 호이며 그 가운데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2,536만 호로 전체의 88.4%에 달한다(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8).

한편으로는 전체 빈곤층의 85%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감소가 시급한 과제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빈곤의 원인은 인구증가와 자연재해, 비효율적인 토지제도 등으로 농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지의 상습적 피해는 농지부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토의 42%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 홍수, 한발, 조수에 의한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국토의 20~30%는 해마다 홍수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rld Bank, ADB, DFID, Japan, 2005).

농지부족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농촌 주민의 45%에 가까운 인구가 농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농업 센서스에서는 농촌 가구 중 11.35%가 농지가 전혀 없는 가구로 조사되었다(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8).

농촌의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저개발 상태도 큰 문제이다. 그 한 예로, 1인당 전력 사용량이 160kwh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이웃 인도에 비해서도 4분의 1에 불과하다. 아울러 주요 도로의 40% 정도만 유지 상태가 양호하고 특히 농촌 주민이 4계절 내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비율은 37%로서 인도의 69%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진다(World

Bank, 2010).

농촌인구의 과다와 빈곤인구의 농촌집중, 농지의 협소와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소득의 한계, 인프라 미비 등 상황에서 농촌 내 농외 부문의 개발을 통한 빈곤 탈출이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농촌에서 비농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금융 제도 개선, 규제개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World Bank, ADB, DFID, Japan, 2005).

3.6. 농업개발 전략

3.6.1 국가식량정책(2006)

‘국가식량정책(National Food Policy, NFP)’은 2000년 제출된 ‘식량안보 종합보고서(Comprehensive Food Security Report)’의 제안에 따라 2006년 발표된 정책계획서로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1차 빈곤감축 전략인 NSAPR 중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NFP는 ‘전 국민에게 상시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보장(To ensure dependable sustained food security for all people of the country at all times)’하는 것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 ② 식품에 대한 국민의 구매력과 접근성을 향상
- ③ 모든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충분한 영양 제공

3.6.2.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2008~2015)

현재 방글라데시의 농업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개발계획서는 2008년 8월 식량계획점검위원회(Food Planning and Monitoring Committee, FPMC)가 승인한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 2008~2015(National Food Policy Plan of Action, 2008~2015)’(이하 PoA)이다. 이 실행계획서는 2006년의 ‘국가식량정책(National Food Policy, NFP)’이 제시한 세 가지 목표에 입각하여 26개의 핵심 개입분야를 기술하였다. 특히 담당기관과 정책목표, 수행정도의 측정 지표 등을 밝히고 있다.

PoA의 목표별 핵심 개입분야와 대상(target)은 다음과 같다.

표 2-33.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의 목표, 핵심 분야 및 대상

전체 목표: 전 국민에게 상시적으로 신뢰할만하고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보장	
세부목표 1: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핵심 개입분야	대 상
1.1 농업연구와 지도	- 수요에 입각한 곡물, 비곡물 신기술 개발과 보급 - 수요에 입각하고 빈민을 위한 지도 서비스 확대
1.2 수자원 이용 및 관리	- 관개지역 확대 - 안전한 관개용수 보급과 효율적 이용 - 지표수에의 의존도 감축 - 관개비용 절감
1.3 농업투입재의 충분한 공급과 지속적 사용	- 질 좋은 곡물종자의 공급 증대 - 어류양식 및 가금사육을 위한 질 좋은 사료공급의 증대 - 비료의 적기 공급과 균형 있는 사용을 보장 - 적정가격의 농기계와 농사 장비 확보 - 통합해충관리(IPM) 및 통합작물관리(ICM) 강화 -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증대 - 비농업 용도로의 농지 활용에 대한 효과적 규제
1.4 농업 다변화	- 고가 작물(옥수수, 감자, 콩, 종자유, 채소, 과일, 양념류) 생산 증대 - 어류 및 축산물 생산 증대
1.5 농업신용 및 보험	- 소농, 한계농에 대한 신용제공 증대 - 곡물, 축산물, 어류 생산 실패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 증대
1.6 시장 인프라 시설 개발	- 사설창고, 시장, 운송설비 개선 - 지방, 중앙, 국제교역 각 수준에서의 시장 연결능력 개선

표 2-33.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의 목표, 핵심 분야 및 대상(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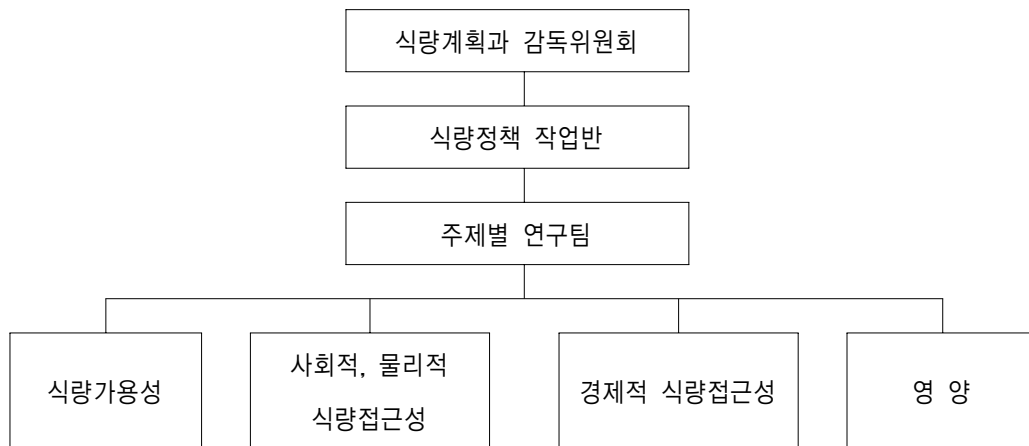
1.7 판매와 교역	- 농산물 판매비용의 절감 - 시장 통합의 강화
1.8 정책/규제 환경	- 식품시장 규제를 위한 최신 법률 제정 및 시행
1.9 조기경보체계 개발	-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의 효과적 운용 - 국내 조기경보체계와 국제 조기경보체계의 효과적 통합과 조정
1.10 생산자 가격지지	- 공공조달체계의 효율성 개선 - 수확 후 기간 생산자 가격에 대한 효과적 지지
1.11 공공 재고관리/ 가격 안정화	- 공공 재고관리 개선 - 공공 저장시설과 수용능력의 보충 - 공개시장판매(Open Market Sale)의 효과성 제고
세부목표 2: 식품에 대한 국민의 구매력과 접근성을 향상	
핵심 개입분야	대 상
2.1 농업재해 관리	- 재해 대비 및 재해후 복원능력 제고
2.2 공공 재고로부터 비상식량의 분배	- 비상 분배프로그램의 범위와 효과성 개선
2.3 민간 식량교역 및 비축 여건 개선	- 위 1.6, 1.7, 1.8과 동일
2.4 대상 식량안보 프로그램과 안전망의 효과성	- 취약 및 빈곤층과 지역(특히 주기적으로 빈곤과 기아를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개선 - 대상자 설정 방식의 개선 - 비용 효과성의 개선 - 누락(leakage)의 감축 - 취약층 영양개선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도의 제고
2.5 농촌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창출	- 여성 및 장애인의 농촌에서의 농업, 비농업 활동에의 참여도 제고
2.6 농업기반 농산물 가공 및 소규모 농촌공업의 촉진	- 농업기반 농산물 가공 및 중소기업의 성장 증대
2.7 시장에 입각한 기술개발	- 국내 및 국제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술 개발

표 2-33.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의 목표, 핵심 분야 및 대상(계속)

세부목표 3: 모든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충분한 영양 제공	
핵심 개입분야	대 상
3.1 균형 있는 식량을 위한 장기 계획수립	- 물질적 성장을 위한 장기 목표치 설정 - 각 인구집단별로 식품섭취 표준을 설정 - 식품섭취 표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3.2 취약집단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균형 있는 영양 식품의 공급	- 균형 있는 영양을 위하여 저비용 물품의 지역별 생산을 통해 식품 가용성을 증대 - 빈곤, 곤경, 취약상태의 여성과 아동(주기적 빈곤, 기아 지역 포함)에 대한 효과적인 식품영양 프로그램의 적용
3.3 식단 다양화를 위한 영양개선 교육	-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해 영양과 1차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을 증대 - 빈곤가구의 집마당 채소재배와 가금류 사육 증대
3.4 식품 보충과 보강	- 비타민 A, 철분-엽산의 보충, 적절히 요오드를 첨가한 식염의 공급 증대 - 비타민 A, 철분, 아연과 같은 미량원소로 보강한 식품의 공급 증대
3.5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의 개선	- 201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이 가용하고 접근 가능
3.6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의 공급	-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에의 접근성을 향상
3.7 여성과 아동의 건강	- 아동과 모친의 건강 개선 - 청소년과 여성의 일반적인 건강 개선 - 1천 명당 영유아, 아동, 모성 사망률의 감축 - 총출산력의 감축 - 1차 보건의료 보장대상 범위의 확대 - 산전 보호 대상 범위의 확대 - 면역확대 프로그램(EPI) 대상 범위의 확대 - 출생 시 숙련된 의료의 제공 확대 - 건강 서비스에의 접근성 개선
3.8 모유 수유 및 보완 수유 촉진과 보호	- 모유 수유 방식의 강화 - 모유 수유 방식의 확대 - 안전하고 영양 있는 보완 수유의 보장 - 유아 친화적 병의원 운영 강화 - 출산휴가, 특히 산후 휴가의 확대 - 모유 대용유 판매업체의 관련 법령 준수

PoA의 추진과 감독을 위하여 구성된 ‘식량계획점검위원회(Food Planning and Monitoring Committee, FPMC)’는 정부부처인 식량재해관리부(Ministry of Food and Disaster Management, MoFDM) 산하에 조직된 중앙기구이지만 관련 부처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부처는 재정부, 계획부, 농업부, 수산축산부, 지방정부·농촌개발·협동조합부, 여성아동부, 보건가족복지부 등이다.

그림 2-6. 국가식품정책 실행계획 추진체계



동 위원회의 실무적 활동을 위하여 ‘식량정책 작업반(Food Policy Working Group)’과 행정기구로 ‘식량계획점검단(Food Planning and Monitoring Unit, FPMU)’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식량가용성, 접근성, 영양 등 핵심 주제별 연구팀(Thematic Research Team)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다.

3.6.3. 국가투자계획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0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다카에서 관련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안보 투자포럼(Food Security Investment Forum)’을 열고 ‘방글라데시 국가투자계획: 농업, 식량안보, 영양 분야 투자를 위한 로드맵(Bangladesh Country Investment Plan: A Road Map Towards Investment i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이하 CIP)을 발표하였다.

CIP는 2009년에 시행된 PoA의 26개 핵심 개입분야에 관하여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와 방글라데시 개발연구원(Bangladesh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BIDS)이 공동으로 작성한 점검보고서에 입각하여 FAO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2단계 빈곤감소전략 및 제6차 5개년 계획(2011~2015)과 정합적으로 연계되어 농업분야 우선투자 분야를 규정한 투자계획서이다.

CIP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립되었다.

- ① 계획수립 및 자원배분에서의 조정
- ② 자체 예산과 해외 지원 자금을 농업, 식량안보, 영양 부문에 집중하여 지원
- ③ 자체 예산과 해외 협력기관으로부터 추가적 자원 확보
- ④ 농업, 식량안보, 영양에 대한 투자를 점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이 투자계획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의 세 가지 차원(가용성, 접근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별 사업비용을 추산하고, 향후 5년의 투자계획 기간(2011~2015)에 조달이 가능한 금액(자체 예산과 외부원조의 합)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업과 식량안보, 영양분야 국가투자를 위하여 5년간 총 100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30억 달러는 확보가 가능하나 나머지 70억 달러 가량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농업부문 투자계획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프로그램	조달가능 금액 (A)	총소요 비용 (B)	추가필요 금액 (B-A)
1	식량 가용성	기후변화에의 지속적 대응방안 개발과 전파를 위한 종합적 연 구와 지도	175	1,559	1,384
2		관개를 위한 수자원 관리 및 인 프라 개선	813	1,186	373
3		농업자재 공급과 지속적 사용	171	890	453
4		어업 개발	98	1,091	993
5		축산업 개발	109	624	515
6		시장접근, 농업 부가가치 개선, 농외소득 증대	560	1,082	522
7	식량 접근성	식품정책 및 투자계획 수립, 수 행, 점검을 위한 능력강화	24	107	83
8		공공부문 식품관리체계 개선	359	625	266
9		다년 종합 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	435	1,665	1,230
10	식량 효용성	생계적 접근(livelihood approach) 을 통한 마을단위 영양개선 활동	230	1,254	1,024
11		데이터에 입각한 식량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	0	50	50
12		식품 안전 및 품질개선	11	187	176
계			2,984	10,054	7,070

제 3 장

우즈베키스탄

1. 일반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의 회원국으로 천연 및 유전 자원이 풍부하며 광활한 토지를 보유한 나라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국토면적은 약 45만 km²로 한반도의 약 2배, 남한의 4배이다. 인구는 약 2,800만 명(2010년)이며, 수도 타시켄트(Tashkent)에는 24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 1991년에 분리 독립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점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구소련체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적 정책이다. 이 결과 최근에는 평균 7%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6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637개의 국영기업을 민간 투자자에 매각하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저평가된 자산, 투자 인센티브 제공, 준비된 국가기반시설, 저비용 에너지, 2,600만 인구의 내수시장 및 11개 CIS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 지구 내 2억 8,000만 명의 잠재적 시장 규모 등을 홍보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강도 높은 경제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IMF는 1995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1997년에는 이자율과 환율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시장경제개혁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으나 무산되었다. 특히 환율정책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10월 공식적으로 환율에 태환성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환율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표 3-1.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

국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위치	중앙아시아
면적	447.4천 km ² (한반도의 2배)
기후	대륙성 사막
수도	타슈켄트(Tashkent)
인구	27.9백만 명(2010년)
민족	우즈베키스탄인(80.0%),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언어	우즈베키스탄어(공용어), 러시아어
종교	회교(수니파), 동방정교회
인간개발 지수(HDI)	0.617(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Islam Karimov 대통령(Shavkat Mirziyoyev 총리) 독립일: 1991. 9. 1
의회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50석)
국기	 ○ 백색 5각 별 12개 : 고유의 전통과 문화 상징, 혹은 12궁도(宮圖) ○ 백색 초승달 : 국가 부활 상징(초승달이 이슬람교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활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우세) ○ 백색: 평화 ○ 적색: 생명력 ○ 청색: 영원한 밤, 생명의 근원인 물

⁸ 정부에서 책정한 고정비율로 타국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방식

지도



자료: <http://www.cia.gov>; <http://100.naver.com>; <http://hdr.undp.org>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사유화가 부진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부문의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국제사회에서는 지배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표면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 중남미 국가에서 유행했던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경제구조이다.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취약한 국내 산업의 육성에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의 긍정적인 성과는 자급자족형 에너지산업의 육성이다. 에너지산업은 농업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산업으로, 정부는 석유 및 가스의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두는 에너지 자급자족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일정량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0년 기준 에너지 및 석유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State Statistic Committee of Uzbekistan, 2011).

하지만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차 상품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자국의 공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1차 산업 중에서 특히 농업은 2007년 GDP의 21.7%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28%를 고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산업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작물은 밀과 면화이며, 면화는 경공업인 가공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면화는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밀은 식량자급을 위하여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부문 개혁의 부재와 잇따른 가뭄으로 인하여 면화의 재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식품의 자급자족을 위해 면화 재배지를 식용작물, 특히 밀 재배지로 전환하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화는 우즈베키스탄 총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1차 산업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면화 및 금 등의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대체 전략을 통해 자국 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 경제 현황

구소련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급격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침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주요 CIS 국가들이 사유화 및 자유화를 기치로 대외 지향적 시장경제를 추진했던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을 기조로 자국 산업의 육성에 집중하였다.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행 초기에 가시적인 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농업부문의 수출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서 잉여 에너지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개혁 초기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성장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역사적 사례와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듯이,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에는 적합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1990년대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던 주요 CIS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들어서 CIS 국가들 중 가장 낮은 4%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 8%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CIS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표 3-2. 주요 경제지표

명목 GDP	377억 달러
실질 경제 성장률	8.3%
1인당 GDP	1,319 달러
실업률	1.0%
소비자물가상승률	3.3%
환율	1USD ≒ 1,589UZS 1UZS ≒ 0.67KRW(2011년 기준)
교역규모	○ 수출: 107.35억 달러 ○ 수입: 90.23억 달러
주요 교역품	○ 수출: 금, 면화, 에너지, 광물비료, 금속, 식물 등(2008년 기준) - 동력 자원 및 석유 제품 24.8%, 목화 섬유 11.3%, 식품 9.7% 등 - 에너지 자원 20.2%, 면화 12.5%, 기계장비 10.4%, 금속 11.5%, 화학제품 6.8%, 농산물 8.5%, 서비스 10.7%, 기타 19.4%(우즈베키스탄 통계청, 2007) ○ 수입: 기계장비 및 부품류, 식음료, 화학제품, 금속 등(2008년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http://www.stat.uz>; 조영관, 이시영(2010);

2.1. 거시경제 현황

2.1.1. 인플레이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가격안정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정부지급보증 차관을 지속적으로 도입한 결과 국내에 통화량이 급증하였으며, 생필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지출이 정부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0%대를 기록하였다. 이에 2009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인플레이션을 3.3%로 낮추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력가격의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의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0%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전망이다.

2.1.2. 통화정책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통화정책의 기초는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을 통해 주요 산업부문과 국영기업에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은 이자율, 재할인율 등을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하였다. 이는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산업부문의 발전에 대한 성과는 미약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긴축통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는 환율에 태환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정부 공식발

표 3.3%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긴축통화정책의 기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정부의 환율 개입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통화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3. 무역 및 수지

1996년까지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던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 규모는 1998년 이후 감소하여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추세이다. 수출은 1997년을 고비로 러시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CIS 역내교역 위축과 수출주력상품인 면화의 흉작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에 수출은 약 107억 달러, 수입은 약 90억 달러를 기록하여 17억 달러 규모의 흑자 경제를 이룩하였다. 이는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결과로는 총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면화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8.6%에서 2003년 19.8%, 2008년 12.5%로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나름대로 국내 산업의 육성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이다. 또한 에너지 수출은 정제된 2003년 9.8%에서 2008년 20.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수지는 1998년 이래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8년 무역수지는 약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최근 몇 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흑자에 성공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2. 주요 경제정책과 과제

2.2.1.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대체 산업화로 대변되는 고립된 경제구조이다. 1차 상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국의 제조업 육성에 투자하는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는 큰 한계가 있다. 이는 과거 종속이론에 입각하여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선례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연스럽게 경제의 국가통제와 연결되어 경제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무리한 수입대체 산업화전략보다는 우선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경제적 자원들을 자급자족하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1차 산업과 노동집약적 생산품 수출중심의 개방통상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2.2. 민간부문 강화

급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했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초기의 경제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국영기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유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는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정부재정을 확충하여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표 3-3. 외국인투자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

내 용
우즈베키스탄 정부 투자 정책에 포함된 부문에 투자 시 7년간 세금 면제
농촌지역 투자 시 1년간 세금 면제, 2년차 75% 면제, 3년차 50% 면제
- 기업 등록 후 1년간 75% 이윤세(profit tax) 면제, 2년차 50% 면제 - 토지세 2년간 면제 - 재산세 2년간 면제

자료: 조영관, 이시영(2010).

2.2.3. 정부통제 완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정부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토지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곡물강제수매제도를 실시하여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도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국가통제로 인하여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만연하는 한편, 국가의 환율개입으로 인하여 현재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어 수출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모든 경제부문을 시장에 맡겼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외지향적이고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정부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광업과 제조업

2.3.1. 광업

우즈베키스탄은 금, 우라늄, 동 등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수출품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금 생산량은 현재 세계 4위이며, 최근 5년간 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총수출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의 국제시세가 비교적 상승추세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연간 약 70톤의 금을 생산하였으나, 2003년에는 86톤을 생산하는 등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 금광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른 부문에 비해 활발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금광회사 4곳 중 2곳은 외국과의 합작회사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NMMK(Navoi Integrated Mining & Metals Combine)로, 미국의 뉴몬트(Newmont)와 합작하여 자라프산-뉴몬트(Zarafshan-Newmont)를 설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금 생산은 최근 큰 변동 없이 일정량을 유지해 연간 80~86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라프산-뉴몬트 사가 전체 금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5~2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3.2. 제조업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2001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 정도만 흡수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에는 모스크바의 통제하에 각 공화국 별로 제조업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주로 농기구 등 경공업 제품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가 되면서 시장이 구소련 전체에서 자국으로 줄어들어 수요가 급감한데다가, 낙후된 공장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외자를 도입하거나 사유화를 하는 대신, 주 수출품인 면화 및 금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자국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정책인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특히 귀금속산업, 항공 산업 및 통신 산업 등 국책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에 대해서는 사유화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 주요 제조업의 육성이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 정부의 강한 통제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자본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성이 노출되었고 성과도 지지부진하였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었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의 수입대체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이 기업의 부채 문제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의 회생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1차 상품의 수출이익을 제조업으로 이전시켰을 뿐 아니라, 각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 정부지급보증 차관을 도입하였다. 1998년 IMF의 집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순수출 소득은 1억 8,300만 달러였는데 반해 기업 부채의 이자만해도 2억 90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85%에 이르는 급격한 솜(Som)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의 부채 규모는 더욱 증가하였다.

2.4. 공적개발원조 수혜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ODA 수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개의 공여국에서 178만 달러(2008~2009 평균)를 공여 받아 행정부문 31%, 경제 인프라 서비스 부문 14%, 교육 부문 18%, 보건 부문 13%, 생산 분야 15% 등으로 지출되었다. 상위 공여국 중 일본이 5,300만 달러, 독일 3,600만 달러, 미국 1,600만 달러를 공여하였고, 한국은 약 700만 달러를 공여하여 열 번째로 많은 공여를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표 3-4. 상위 10개 ODA 공여국(기구) 및 공여액

순위	상위 10위 공여국 (2008-09 평균)	백만 달러
1	일본	53
2	독일	36
3	IDA	20
4	미국	16
5	AsDF	12
6	Global Fund	9
7	아랍 국가들	9
8	EU	8
9	터키	8
10	한국	7

자료: <http://stats.oecd.org>.

하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ODA 총예산 중 공여국별 농업부문에 지출한 금액을 살펴보면 일본은 1,530만 달러로 총액 대비 약 2.7%, 미국은 950만 달러(2.0%), 독일은 590만 달러(3.4%)를 사용하였다. OECD/DAC 회원국의 공여액 13억 2,500만 달러 중 농업부문에 사용된 예산은 2.4%로 미미한 수준이다.

농업부문에 지출되는 ODA 자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중장기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계획에 농업·농촌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ODA 지원 절차상 농업관련 분야는 관련부처(우즈베키스탄 외교부, 경제개발관련 부처)의 승인을 취득한 후 공여국 외교부로 제안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있는 국가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과 비교하면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표 3-5. OECD/DAC 회원국의 우즈베키스탄 농업 부문에 대한 ODA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농업	총액	농업 비중
DAC 회원국 총계	32.1	1,325	2.4
일본	15.3	568.6	2.7
미국	9.5	466.6	2.0
독일	5.9	175.6	3.4
오스트리아	0.3	5.36	6.1
프랑스	0.1	25.6	0.4
스위스	0	35.5	0

* 2000-2008 누적금액임.
 자료: <http://stats.oecd.org>.

한국이 과거 무상원조를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농업·농촌분야에 지원한 공여 현황을 보면 2006년 4건 6만 달러 수준이며, 2008년과 2009년에 각 1건으로 9,100달러를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원조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이며, 실질적으로 2006년 양잠개발을 지원했을 뿐이다.

표 3-6.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농업·농촌분야 공여 현황(2006~2009)

단위: 천 달러

분 류	연도	원조기관	유/무상	원조내용	원조총액
농업용수자원	2006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5.5
식량생산	2008	KOICA	무상원조	전문가 파견: 곡물 종자개발	8.0
경제/수출작물	2006	MISC	무상원조	FAO양잠개발지원	21.5
농업 교육/훈련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27.3
농업 교육/훈련	2009	MISC	무상원조	아시안전문가를 위한 식물검역시스템 연구	3.1
임업개발	2006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6.0

자료: <http://stats.oecd.org>.

2.5. 경제개발 전략

2.5.1.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복지개선전략보고서

잠정후생개선전략보고서(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Paper, I-WISP) 중 중점적인 4가지 실행 정책은 거시경제 성장,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안전망 구축, 도농 간 격차 해소, 환경보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은 아래와 같다.

- ① 거시경제 안정유지와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고도성장 달성
 -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GDP성장이 가속화됨.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을 4~5% 수준으로 하고, 정부예산을 GDP 대비 26~27%로 유지
 -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개혁, 자본시장개선 그리고 무역자유화 정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 ②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등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폭 증가시킴.
 - 교육서비스는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의 물적 및 인적 기반 확충
 - 기초보건에 대한 투자는 특히, 모자보건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함.
 -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
 - 연금제도개혁
- ③ 도농 간 격차 해소
 - 낙후지역에 대한 물적 및 사회 인프라 투자에 중점지원
 -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화정책을 점차적으로 추진
- ④ 환경보호 및 개선
 - 환경보호정책, 자연과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중점을 두

고,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 개선; NGO나 시민사회를 통해 보다 환경에 대한 문제와 지역협력강화 고양

다음의 표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국가발전 전략과 개발이슈를 요약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발전전략의 5가지 주요 과제를 빈곤감축, 고용증가, 민간투자증가, 지역경제협력, 인적자원개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발이슈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7. 2006~2010년 국가발전전략과 프로그램 결과 프레임워크 요약

중기국가발전 전략	개발이슈
빈곤감축: 2010년까지 빈곤율 20%로 감축 - GDP 성장: 2007-2010년간 평균 8.0-8.5% - 산업성장: 분야별성장률 11-13%	- 빈곤은 주로 농촌지역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빈곤층을 위한 성장전략은 농촌빈곤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 노동력에 대한 보상과 생산력 있는 고용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감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증가: 고용인구 증가 13.2백만 명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증가 미미. 공공부문 경제 활동의 고비용으로 인한 지하경제활동이 증가.
민간투자증가: GDP에서 민간분야 85%; GDP 중소규모기업: 45-50%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거버넌스 문제들은 민간투자성장에 방해요소로 작용함.
지역경제협력: 자유무역과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무역 잠재시장 확충. 수출성장률: 10-1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한 수출잠재력 활성화를 위해 - 무역의 비관세장벽 제거 - 관세행정의 현대화 - 국제 통관비용의 절감 - 지역인프라를 위한 환경조성 및 개발
인적자원개발: 인적개발과 사회보호를 개선하고, 교육, 보건, 아동복지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 확립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 기초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 사회서비스공급의 지속성과 자금 확충 - 취약한 농촌지역에 서비스공급자 효율적 배치 - 서비스공급에 대한 감독과 평가

3. 농업 현황

3.1. 토지제도 및 이용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시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적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영구임대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러나 농민의 임대권도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작의욕이 저하되어 농업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8년 4월 30일 「토지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4차례의 개정(2007년 12월 28일)을 거쳐 운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 교환, 증여, 저당이 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관련 법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토지소유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국한되어 가능하다.

토지법에 따른 토지보유 형태는 개인 및 법인은 장기사용권, 단기(임시) 사용권, 임대권, 소유권, 장기점유권 및 개인에게 상속가능한 점유권 등이 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발달한 토지제도 중 하나는 장기 점유권 및 장·단기 사용권 제도이다. 장기 점유권은 영농행위를 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권리가 주어지며, 토지 장·단기사용권은 개인(외국인 포함) 및 법인이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사용권은 3년 미만의 기간이며, 장기 사용권은 3년 초과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권리가 주어진다. 토지에 비해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취득 시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점유권 및 장·단기사용권도 함께 개인에게 이전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 또한 각 기관 고유의 권한 이상의 행정절차로 취득한 각종 권리는 추후에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토지 사용은 유상으로 개인 및 법인은 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에 관한 조세는 매년

납부하는 토지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토지세액은 토지의 질, 위치, 물 공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이 아직도 국가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이 귀해서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물 공급의 용이성이 토지 가치에 부가되기 때문이다.

3.1.1. 개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의 사유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한편, 주택, 상가 건물 등의 사유권은 인정되는 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이중 소유구조가 일반적이다.

그 밖에 토지소유권 이외에도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토지항구상속점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형태가 존재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는 매매, 증여,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1.2. 권한기관 및 권한의 내용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관계를 규율하는 권한기관은 내각 및 타시켄트 주 정부, 타시켄트 시 정부, 구 정부 등이다. 토지관계와 관련하여 내각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단일한 국가정책의 실행
- 토지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토지관계를 규율하는 법류의 제정
- 국가소유 토지의 처분
- 토지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부처간 역할 조율

토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토지의 점유, 사용권과 임차권 및 소유권의 취소 등 토지관계와 관련하여 타시켄트 주 및 타시켄트 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인에게 농업 및 기타 국가 및 사회적 필요를 목적으로 토지의 점유, 사용권 및 임차권의 부여
- 외국공관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매각

토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토지의 점유, 사용권과 임차권 및 소유권의 취소 등 토지관계와 관련하여 구청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및 법인에게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임차권의 제공
- 개인 및 법인에게 상가건물 등에 부속된 토지 소유권의 매각
-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토지항구상속권 매각
- 토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토지의 점유, 사용권과 임차권 및 소유권의 취소 등

3.1.3. 국가 토지대장(cadastre)

국가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 위치, 공시지가, 법률관계 등과 같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토지대장은 국립 토지관리대장국(State Unitary Enterprise on Land Management and Cadastre)에서 작성 및 보관한다.

3.1.4. 토지에 대한 권리의 형태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은 토지에 대한 영구점유권, 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 임차권 및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개인은 토지를 항구상속점유권, 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 임차권 및 소유권의 형태로 가질 수 있다.

3.1.5. 법인 및 자연인의 토지소유권 발생 근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토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 법인 및 자연인의 경우 상가 및 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건물의 사유화 시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교공관 등의 건물에 부속한 토지의 경우
- 외국법인 및 자연인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승인된 외교공관 직원, 언론특파원, 회사 및 국제기구 연락사무소 직원, 외국인 투자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직원,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주택 매입 시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1.6. 토지영구사용권

토지는 영구사용권의 형태로 법인 및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영구사용권은 우즈베키스탄 시민, 법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회사 및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도 부여되며, 영구사용권은 결정문의 형태로 부여된다. 건물, 설비 기타 부동산에 부속된 토지의 영구사용권은 건물, 설비 기타 소유권의 이전 시에 함께 이전된다.

3.1.7. 토지임차권

토지는 임대차계약에 의거 유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법인에 대한 토지임차권의 제공에 대해서는 구청 및 시청이 담당하고, 외국 투자기업, 외국법인 및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차권의 제공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담당한다.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대 토지는 매매, 담보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 또는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경우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자신의 토지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토지의 임대 조건 및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농지는 최소 30년에서 최대 50년간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한편, 토지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3.1.8. 토지 사용료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의 사용은 유료이다. 토지의 점유, 사용권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및 자연인은 매년 토지세의 형태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한다. 토지세는 토지의 질, 위치 및 용수공급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한편, 토지 임차의 경우 임차료의 형태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한다.

1.9. 토지 이용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토지규모는 2008년 기준 약 4,440만 ha이며 이 중 농지가 약 50%인 2,226만 ha, 경작 가능면적이 9%인 405만 ha, 영구 초지면적이 약 30%인 1,276만 ha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 규모를 1998년과 비교하면 539만 ha가 감소하여 산업화 촉진 정책에 따라 농지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구초지 면적이 1998년 대비 56% 수준으로 급감하여 산업화에 따른 초지면적 감소추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표 3-8. 토지 이용 현황

단위: 천 ha (%)

품 목	1998년	2008년
국가 전체	44,740(100)	44,410(100)
- 농지	27,650(61.8)	22,259(50.1)
- 경작가능면적	4,475(10.0)	4,051(9.1)
- 영년작물	375(0.8)	328(0.8)
- 영구초지	22,800(51.0)	12,775(28.8)

자료: <http://faostat.fao.org>.

3.2. 인구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부문 경제활동 인구는 2004년 약 270만 명에서 2008년 약 275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04년 약 1,634만 명에서 2008년 1,751만 명으로 평균 1.4%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총인구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약 63%를 나타내고 있다.

표 3-9. 농업 및 농촌지역 인구 분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부문 경제활동 인구 (천 명)	2,680	2,696	2,710	2,738	2,745	n.a.
농촌 인구 (천 명)	16,341	16,564	16,755	16,986	17,257	17,511
농촌 인구 성장률(연간 %)	1.3	1.4	1.1	1.4	1.6	1.5
농촌 인구 (총인구 중 %)	63.2	63.3	63.3	63.2	63.2	63.1

자료: <http://data.worldbank.org>.

3.3. 생산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밀과 면화이다. 그 밖에 사료작물, 채소, 감자, 기타 곡물 순으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

주식인 밀은 대부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되며, 면화는 원면과 가공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원료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곡물수매제도(Goszakaz)는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주요한 농업정책으로, 정부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적인 형태로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출시기가 수매시기보다 늦음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는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식량작물 중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작물은 밀로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 중 약 90%인 138만 ha이다. 다른 주요작물별 재배면적은 면화가 145만 ha로 가장 많고, 사료작물 29만 ha, 채소 16만 ha(멜론 3만 9,000ha), 감자 5만 9,000ha 등이다.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작물로 생산량은 미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다음의 세계 5위이며 수출량은 세계 2위이다. 인구의 약 60%가 면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총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2000년대 들어서 면화의 생산량은 정체를 보이다가 2004년 350만 톤을 생산하여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10년에는 약 330만 톤을 생산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밀 생산 진흥 정책에 따

라 면화의 재배지가 밀 생산으로 전환되어 면화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표 3-10. 주요작물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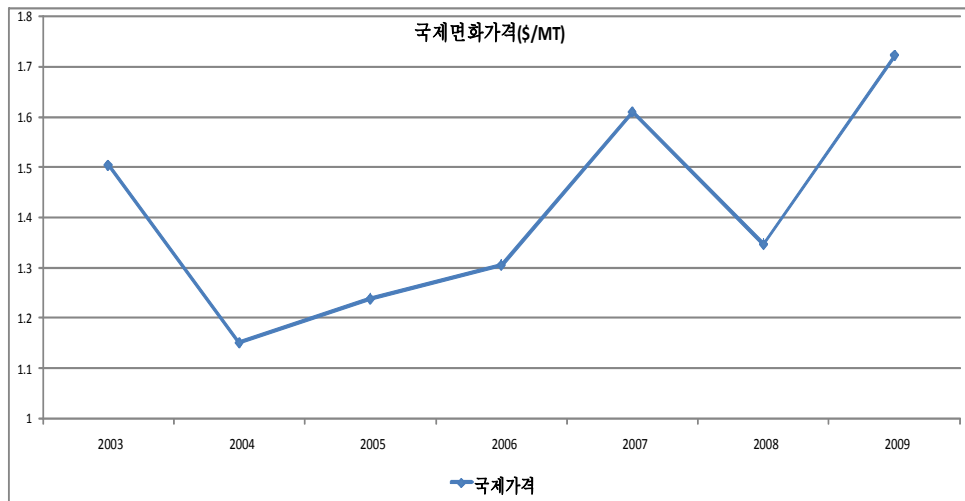
단위: 천 ha

작 물	2004	2005	2006	2007
전 체	3,695.7	3,647.5	3,637.4	3,521
1. 식량작물	1,667.1	1,616.1	1,618.0	1,538.5
- 밀	1,470.4	1,439.7	1,448.5	1,382.2
- 옥수수	34.8	33.6	32.8	34.1
- 쌀	66.1	52.5	60.6	48.0
- 대두	11.7	12.9	15.2	20.9
2. 특용작물	1,518.5	1,518.4	1,478.2	1,477.1
- 면화	1,456.3	1,472.3	1,448.2	1,451.3
3. 감자	52.1	49.8	52.6	55.6
4. 과채	137.6	137.7	154.4	159.8
- 멜론	34.7	33.9	37.4	39.0
5. 사료작물	284.2	290.3	296.4	290.0

자료: <http://faostat.fao.org>.

총수출에서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9%에서 2002~2004년에 2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면화의 국제가격시세는 2002년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011년에도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여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가 전망된다.

그림 3-1. 면화 국제가격 시세 동향



자료: USDA/FAS, 국제 A Index 면화가격 자료, 2010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약 373만 톤의 면화를 생산하였으나, 면화 재배지역의 밀 생산지로의 전환으로 2008년 면화의 생산량은 34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원면 생산량은 약 117만 톤 수준이다.

표 3-11. 원면 생산량

단위: 1,000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면화(raw cotton)	3,728	3,600	3,715	3,400
원면(cotton fiber)	1,155	1,171	1,125	1,174
면사(cotton yarn)	143	144	150	136

주: 면화에서 씨를 제거(조면)하면 원면이 되며, 실을 만들면 면사가 됨.

자료: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Uzbekistan(2011), 수출입은행(2009)에서 재인용.

면화산업의 경우, 국영기업(Uzauktionavdo)이 면화의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 산출량의 일부에 한해서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에 서명된 ‘2004~2006년 농업부문 발전계획에 관한 대통령령’은 오히려 농업부문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5월 22일자 정부령 27호로, 현물거래소 가격수준으로 곡물의 수매가격이 책정되었으며, 농업 경영체는 생산 곡물의 50%를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002년 8월 정부령 477호로, 정부의 면화 수매가격이 운송비, 판촉활동비 및 환율을 감안한 국제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면화 경작업체는 생산 물량의 50%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002년 수확 물량부터 민간 기업은 경매를 통해 자유롭게 면화를 수출할 수 있고,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의 숨화 인출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개용수 부족 및 국제 식료품가격 인상문제에 대비하고, 국내 식료품 수요충족을 위해 2008년 10월 ‘과중 농지 최적화 및 곡물 생산 확대 방안’과 관련한 정부령을 도입함에 따라 면화 생산 농지 7만 5,000ha가 곡물과 채소 생산으로 전용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21만 8,000여 개 전체 농장 중 약 85% 이상 20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하여 기계장비 및 금융 활용 등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규모 농장을 대규모로 전환을 통하여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곡물 및 면화 생산을 위해서 최소 80~100ha 이상, 과일 및 채소 생산과 관련해서 20ha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소규모 농장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의 생산성(단위당 생산량)이 2004년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2007년 곡물평균 생산성은 전년 대비 평균 3% 이상 증가했다. 밀의 생산은 2010년에 전년보다 30만 톤 증가한 650만 톤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수입대체전략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줄이기 위해 식용 곡물, 특히 밀의 자급자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요 또한 증가하여 2006년부터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밀의 평균 단수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1ha당 4.41톤을 기록하여 최고수량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주요 밀 생산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감자는 2004년 ha당 15.8톤 정도를 생산하였지만 2007년에는 약 17%가 증가한 ha당 18.4톤을 생산하여 상대적으로 멜론과 더불어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쌀은 2004년 6만 6,000ha에서 약 18만 2,000톤이 생산되었고, 2007년 4만 8,000ha에서 16만 1,000톤이 생산되어 ha당 수확량은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인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옥수수는 2004년 약 3만 5,000ha에서 14만 6,000톤을 생산하였고 2007년에는 3만 4,000ha에서 16만 톤 정도를 생산하여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작물별 단위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MT/ha

작 물	2004	2005	2006	2007
곡물평균	3.54	3.98	4.13	4.25
밀	3.70	4.15	4.27	4.41
보리	1.39	1.57	1.56	1.98
옥수수	4.21	4.45	4.66	4.72
쌀	2.77	3.18	3.30	3.36
대두	1.18	1.15	1.20	0.84
감자	15.75	17.03	17.52	18.41
채소	20.31	21.58	22.30	22.84
멜론	15.70	16.91	17.82	18.46
사료작물	17.26	18.51	19.82	21.05

자료: <http://faostat.fao.org>.

표 3-13. 작물별 생산량

단위: 천 ha

작 물	2004	2005	2006	2007
밀	5,441	5,975	6,185	6,096
옥수수	147	150	153	161
쌀	183	167	200	161
대두	13.8	14.8	18.2	17.6
감자	821	848	922	1,024
멜론	545	573	667	720
사료작물	4,905	5,374	5,875	6,105

자료: <http://faostat.fao.org>.

우즈베키스탄의 식량자급 정책으로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름의 고온, 농업용수 부족, 가뭄, 병충해 등으로 인해 밀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농가경영, 과도한 토지 사용, 비료사용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해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또한 밀의 종자 생산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한 수송비용이 발생하고, 품종개량의 비효율성, 불량종자 사용에 따른 재파종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멜론은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간 약 720만 톤을 생산하여 절반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과일 산업은 정부에 의한 수매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출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과일 생산은 최근에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토지에서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과일 생산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농자재들을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단가가 높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농산물 생산은 잦은 기상이변 발생과 수자원 이용조건의 차이 때문에 면화, 밀, 쌀 등 주요 작물의 지역 간 단위당 수확량의 차이가 크다. 면화는 지역별로 같은 해에도 ha당 0.3~3.2톤, 밀은 0.5~6.3

톤, 쌀은 0.2~3.4톤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사막지역이 많아 수자원 이용이 농업생산의 제한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박평식 외, 2009).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 열악한 면화 품종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2) 대통령령에 의해 발효된 면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 생산된 면화 50%에 대한 판매권을 인정하며, 3) 국내 조면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4) 현대화 및 기술의 재정비 프로그램 구축으로 의류 완제품 및 기타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5) 실크산업 발전전략수립으로 누에 고치 재배 및 가공관련 기업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4. 농업개발 전략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잠정 후생개선전략보고서(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I-WIS) 중 농업·농촌부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성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면화 및 밀 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촌부문에서는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으로 농촌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깨끗한 식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위생시설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3-14. 농업·농촌부문 발전 전략

농업	
중기국가발전전략	분야별 이슈
지속적인 가능한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성과 농가수익성을 개선 - 지표: 농업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 농업종사자: 3백만 명	- 유인책(incentives): 정부의 개입; 투입과 산출, 자금, 면화와 밀의 거래(마케팅),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증대 - 제도: 토지개혁; 시장성이 없는 전세권과 자연(continent nature)은 절차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 경지구획을 등록하고 경계를 정하기 위한 토지대장시스템(지적시스템)기능의 격차 - 인프라: 토지와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O&M)와 토지황폐화와 비효율적 용수사용에 기여할 만한 자연자원에 대한 가격정책에 적은 투자
농촌	
농촌지역 인프라의 효율성과 접근성 증가	농촌에너지공급: 농촌지역 중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농업관련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염이 없는 디젤발전기에 의존이 증가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인구비율 반으로 절감 - 2004년 기준치: 농촌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인구비율: 65%	- 농촌지역 수자원공급과 위생시설보급: 마을 공동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적절한 위생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낮은 보급률 - 농촌지역 수자원공급과 위생시설에 대한 제도: 취약한 규제체계와 지역수자원공급기관의 제한된 제도적 수용능력은 효율적 운영과 계획 그리고 운영의 자금관리문제 - 농촌지역 수자원공급과 위생시설에 대한 자금: 낮은 원가회수와 함께, 유지보수(O&M)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수자원 공급인프라에 대한 질적 저하

제4 장

아제르바이잔

1. 일반 현황

카스피 해 연안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동서 및 남북 두 방향 모두의 교역로를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구소련 국가그룹인 CIS에 속하면서도 EU의 ‘동방협력대상(Eastern Partnership)’ 국가에도 속한다.

표 4-1. 아제르바이잔 국가개황

국명	아제르바이잔 공화국(Republic of Azerbaijan)
위치	카스피 해 연안 카프카즈
면적	86.6천 km ² (한반도의 2/5)
기후	건조 온대초원
수도	바쿠(Baku)
인구	8.3백만 명(2010년)
민족	아제르인(90.6%), 다게스탄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언어	아제르바이잔어(공용어), 레즈긴어, 러시아어

표 4-1. 아제르바이잔 국가개황(계속)

종교	회교, 러시아정교, 아르메니아정교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 Ilham Aliyev 대통령, Artur Rasizade 총리 - 독립일: 1991. 8. 30(구소연방)
의회	단원제(125석)
인간개발지수(HDI)	0.713 (2010년)
국기	 - 별: 터키인(人)이 분류한 8개의 터키 민족을 나타냄 - 파랑: 터키 민족의 고유 색깔 - 초록: 이슬람교 - 빨강: 현대화와 진보를 나타냄
지도	

자료: <http://100.naver.com>; <http://hdr.undp.org>.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0.6%, 천연가스는 0.8%를 차지하여 중동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카스피 해 지역의 중요한 산유국으로 등장하였다. 이 나라를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가스는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수송되므로 유럽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2. 경제 현황

2.1. 주요 경제지표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1995년에는 1인당 GDP가 470달러에 불과하여 1990년의 36% 수준으로 떨어졌다 (World Bank, 2008; Dudwick, Nora, Karin Fock, and David Sedik,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자원을 국가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1995년을 전후로 다양한 부문별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표 4-2. 거시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억 달러	210	330	489	565	674
1인당 GDP	달러	2,177.5	3,251.4	4,541.2	3,867.9	n.a.
1인당 GNI(Atlas)	달러	1,890	2,710	3,830	4,820	n.a.
경제성장률	%	34.5	25.0	10.8	9.3	8.9
재정수지 / GDP	%	-4.6	-4.5	-5.1	-7.0	-5.0
소비자물가상승률	%	8.3	16.7	53.4	1.4	5.9
환율(달러당, 연중)	AZN	0.89	0.86	0.82	0.80	0.80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수지	백만 달러	3,708	9,019	16,453	10,173	15,820
상품수지	"	7,745	15,224	23,012	14,538	21,194
수출	"	13,015	21,269	30,586	21,097	28,164
수입	"	5,269	6,045	7,575	6,514	6,970
외환보유액	"	2,485	4,273	6,467	5,364	6,445
총외채잔액	"	1,924	7,048	8,837	8,577	10,919
단기외채	"	302	1,143	1,241	926	926
총외채잔액/GDP	%	9.2	21.3	19.1	19.9	21.4
외채상환액/총수출	%	1.9	2.0	1.4	1.7	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0).

1994년 9월 이른바 ‘세기의 계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석유전략이 수행되었다. 1999년 석유와 가스의 초과 수입을 축적, 관리하는 석유 펀드(State Oil Fund of Azerbaijan, SOFAZ)가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 운영할 기구가 만들어졌다.

1996년 GDP 성장률이 1.3%이던 것이 이듬해에는 5.8%, 1998~2004년에는 연평균 10%에 달할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1993~2003년에 해외 직접 및 합작투자기업체는 3배로 늘어났다.

2005년 5월 수도인 바쿠에서 그루지야의 수도인 트빌리시, 터키의 지중해 연안항인 제이한을 연결하는 이른바 BTC 송유관(Baku-Tbilisi-Ceyhan pipeline)이 완성되면서 석유, 가스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2005년 26.4%, 2006년 34.5%, 2007년 25%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석유 수출의 확대 결과 국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2006년 8.3%, 2007년 16.7%에 이어 2008년에는 53.4%나 치솟았다. 환율도 지속적으로 절상되면서 비석유 부문의 경쟁력이 뒤흔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인플레이는 2009년 2%대로 낮아졌다(World Bank, 2010).

표 4-3. 산업 부문별 GDP 성장률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석유부문		66.3	63.2	36.8	6.8	14.3
비석유부문	계	8.3	11.9	11.4	15.7	3.2
	농업	7.5	0.9	4.0	6.1	3.5
	제조업	14.8	4.1	7.9	6.4	△13.8
	서비스	9.6	18.2	12.5	13.7	9.1

자료: World Bank(2010).

2009년 유가가 회복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은 9.3%, 석유부문은 전년도의 6.8%에서 14.3%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은 특히 건설업과 화학과 철강에서의 위축 때문에 비석유 부문 전체에서는 3.2% 성장에 그쳤다. 한편 농업부문은 2009년 정부지원에 힘입어 3.5% 성장하였다.

2010년도 성장률은 5.0%를 기록하여 예년에 비하여 크게 저조하였다. 이는 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1.8%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석유 부문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 7.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특히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공공지출이 늘면서 20.3% 성장한 건설 부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반대로 농업부문은 2010년에는 오히려 2.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홍수로 인해 곡물생산이 33%나 줄었기 때문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 World Bank, 2010).

아제르바이잔의 1인당 GNI는 4,820달러(아틀라스 산출방식 기준)로 OECD의 분류상 중저소득 국가(low middle-income country)이지만 이 그룹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여, 국제개발협회(IDA)의 무상원조(grant) 대상국에서의 졸업과 중고소득 국가(upper middle-income country)에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가스에 극심하게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 에너지 부문 이외의 산업은 잠재력의 40% 정도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7).

석유 부문은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GDP의 40~50%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석유 부문에서의 수입을 인프라 투자와 사회적 비용 지출 등에 사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와 활동을 촉진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 따라서 경제 다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과 건설 등 인프라 부문의 개발과 지역 간 빈곤격차의 해소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2005년 5억 마나트(AZN)였으나 2009년에는 46억 마나트로 9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GDP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23%에서 35%로 확대되었다(World Bank, 2010).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가스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밖에 기계류, 면화, 식료품 등이 있다. 수입품으로는 기계 및 장치류, 석유 제품, 식료품, 화학제품이 많다(<http://www.cia.gov>). 주요 수출입 대상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4. 수출입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수출	총액	281억 달러	2010년 추정
	주요 수출국	이탈리아 20.69%, 인도 10.67%, 미국 9.24%, 프랑스 8.15%, 독일 7.62%, 인도네시아 6.63%, 캐나다 5.13%	2009년 기준
수입	총액	70억 달러	2010년 추정
	주요 수입국	터키 18.69%, 러시아 16.98%, 독일 7.87%, 우크라이나 7.3%, 중국 6.18%, 영국 5.73%	2009년 기준

자료: <http://www.cia.gov>.

절반 정도의 화물은 도로를 활용하며 송유관과 철도가 나머지를 분점하고 있다. 여객수송은 도로가 전체의 86% 정도를 담당한다(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7).

구소련시절 채택한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이 나라의 인적 자원의 수준은 높

다. 성인인구 문자해득률은 97%에 달하며 남녀 간 차이도 거의 없다((World Bank, 2008).

2008년에 세계은행이 실시한 생활수준측정연구(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LSMS)의 결과에 따르면 빠른 경제성장과 공공투자의 증대에 따라 2001년 49.6%에 이르렀던 아제르바이잔의 빈곤율은 2008년에는 15.8%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2000~2008년에 최소임금이 67배 오르고, 평균 임금도 같은 기간에 6.5배가 올랐기 때문이다(World Bank, 2010).

2.2. 공적개발원조 수혜 현황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로부터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ODA 수원규모는 2009년 2억 3,200만 달러 정도로 적은 편이다.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6%에 불과하다. 양자 원조의 비율은 전체의 65% 정도로 다자 원조의 두 배 정도 된다. 아래 표에서 같은 시기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ODA 수원규모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2009년의 총수원액을 살펴보면 아제르바이잔의 수원규모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남아시아 총수원 규모 중 1~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표 4-5. 순 ODA 지원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7	2008	2009
ODA 총액	225	235	232
양자 간 원조 비율	59%	64%	65%
ODA/GNI 비율	0.8%	0.6%	0.6%

* 순지출기준

자료: <http://www.oecd.org>.

표 4-6. 중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수원국	2001	2003	2005	2007	2009	평균
전체	아프가니스탄	404.6	1,590.7	2,817.9	3,964.6	6,235.3	2,936.1
한국		0.0	21.1	8.9	2.6	24.1	9.9
전체	아르메니아	211.6	253.8	170.3	350.1	527.6	287.2
한국		0.0	0.1	0.1	0.1	0.0	0.1
전체	아제르바이잔	229.5	300.7	216.5	225.3	232.3	241.1
한국		0.0	0.0	0.1	0.8	1.7	0.8
전체	방글라데시	1,043.7	1,392.2	1,317.7	1,514.6	1,226.9	1,344.0
한국		0.9	10.1	31.9	10.0	13.6	13.6
전체	부탄	60.5	77.3	90.1	89.8	125.4	87.0
한국		0.1	0.1	0.3	0.3	0.4	0.3
전체	그루지야	291.4	230.0	292.1	380.1	907.9	441.5
한국		0.0	0.0	0.0	0.2	0.0	0.0
전체	인도	1,731.4	726.6	1,867.5	1,390.9	2,502.2	1,583.0
한국		0.5	1.2	0.9	3.9	0.8	1.3
전체	카자흐스탄	156.7	278.5	228.0	204.2	297.9	235.8
한국		1.0	2.4	3.7	2.2	5.5	3.9
전체	키르기즈스탄	187.9	200.1	267.9	274.6	314.7	262.5
한국		0.1	0.6	0.4	0.2	0.7	0.5
전체	몰디브	24.8	23.2	75.8	37.4	33.3	38.0
한국		0.1	0.0	3.1	0.1	0.0	0.5
전체	미얀마	125.7	125.0	144.8	197.7	357.0	208.0
한국		0.4	6.6	8.1	0.5	2.0	4.5
전체	네팔	389.6	466.6	424.1	605.3	854.6	525.7
한국		1.6	1.5	1.8	5.0	18.1	4.3
전체	파키스탄	1,941.5	1,071.4	1,606.6	2,243.8	2,780.6	1,872.7
한국		4.4	1.0	3.7	3.3	2.0	2.4
전체	스리랑카	340.7	671.4	1,155.1	612.7	703.8	649.9
한국		10.9	17.2	33.2	33.3	15.5	18.8
전체	타지키스탄	165.3	148.1	251.5	222.1	408.9	238.3
한국		0.6	0.2	0.3	0.2	0.2	0.2
전체	투르크메니스탄	72.6	28.6	30.4	28.5	39.9	35.6
한국		0.0	0.0	0.0	0.0	0.2	0.0
전체	우즈베키스탄	153.9	194.6	169.7	169.8	190.3	183.3
한국		16.3	1.7	2.6	3.2	5.9	4.8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표 4-7.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공여국 전체평균(2001-2009)
1	아프가니스탄	2936.09
2	파키스탄	1872.72
3	인도	1583.00
4	방글라데시	1344.02
5	스리랑카	649.94
6	네팔	525.67
7	그루지야	441.47
8	아르메니아	287.17
9	키르기즈스탄	262.51
10	아제르바이잔	241.13
11	타지키스탄	238.25
12	카자흐스탄	235.82
13	미얀마	207.99
14	우즈베키스탄	183.30
15	부탄	86.97
16	몰디브	37.99
17	투르크메니스탄	35.60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아제르바이잔은 순지출액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 총액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 열 번째를 차지한다.

표 4-8. 우리나라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우리나라 평균(2001-2009)
1	스리랑카	18.80
2	방글라데시	13.58
3	아프가니스탄	9.91
4	우즈베키스탄	4.80
5	미얀마	4.52
6	네팔	4.28
7	카자흐스탄	3.88
8	파키스탄	2.42
9	인도	1.29
10	아제르바이잔	0.77
11	몰디브	0.45
12	키르기즈스탄	0.45
13	부탄	0.25
14	타지키스탄	0.23
15	아르메니아	0.08
16	그루지야	0.04
17	투르크메니스탄	0.04

자료: <http://stats.oecd.org>.

다음 표는 양자 간 원조의 주요 공여국을 나타낸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터키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터키로부터 1993년까지 전체 수원액의 거의 9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1994년을 기점으로 터키로부터의 원조액은 급격히 줄어들고, 유럽연합, 세계은행(IDA), 미국으로부터 꾸준히 원조를 받아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이 새로운 주요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최근 2년간의 지원규모로 볼 때에는 세계은행(IDA)과 미국, 독일이 최대 ODA 공여국

(기구)이며,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 아랍국가로부터의 공여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표 4-9. 연도별 공여국 및 국제기구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한국(순위)
2001	일본	미국	IDA	유럽연합	IMF	한국 (32)
	101	30.9	27.6	12.8	10.3	0.02
2002	일본	미국	IDA	유럽연합	독일	한국 (30)
	141.8	61.5	56.9	22.4	9.8	0.08
2003	일본	IDA	미국	유럽연합	IMF	한국 (33)
	79.8	74.7	49.3	24.6	20.5	0.03
2004	IDA	미국	터키	독일	유럽연합	한국 (30)
	49.2	47.6	22.9	17	10.6	0.07
2005	IDA	미국	터키	유럽연합	독일	한국 (30)
	45.6	42.8	28.6	26	19.1	0.13
2006	미국	IDA	터키	유럽연합	독일	한국 (24)
	56.5	56.3	36.9	18.7	12	0.3
2007	IDA	미국	터키	프랑스	독일	한국 (22)
	51.9	48.9	36.2	24.2	13	0.78
2008	IDA	미국	터키	독일	AsDF	한국 (13)
	42.2	42	33.9	28.2	26.4	3.87
2009	독일	미국	IDA	프랑스	터키	한국 (15)
	42.7	40.4	36.1	27.9	27.2	1.67

*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ODA 분야별 총액(약정기준)을 보면 기타 사회분야,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분야를 포함하는 ‘생산분야’ 지원은 전체의 7% 정도이다.

표 4-10. ODA 분야별 약정액

분 야	ODA 총액(백만 달러)	비율(%)
행정비용	0.38	0.09
경제인프라와 서비스	133.94	35.23
교육	13.13	3.45
보건 및 인구	23.2	6.10
인도적 지원	7.53	1.98
다분야	23.59	6.20
기타 사회분야	138.73	36.49
생산분야	27.53	7.24
프로그램지원	11.73	3.08
미분야	0.39	0.10

* 2005-2009년 5년 평균임.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우리나라가 아제르바이잔 농업, 농촌분야에 제공한 ODA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06년 이래 지난 4년간 358만 7,400달러가 제공되었다.

표 4-11.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분야 지원 현황

단위: 천 달러

원조코드 분류	2006	2007	2008	2009
31140: 농업용수지원	-	-	3,400	-
31181: 농업관련교육/훈련	-	100	54.0	2.0
31182: 농업연구	31.4	-	-	-

자료: <http://stats.oecd.org>.

2.3. 경제개발 전략

지난 20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등락할 때마다 농업 등 비석유 부문, 나아가 경제 전체가 부침을 겪었다.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투자사업 수행을 중단하고 사회개발 부문, 농업,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사업 부문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World Bank, 2010).

정부의 중장기 빈곤감소 프로그램은 ‘빈곤감소와 경제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2003~2005(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PPRED)’와 연이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2006~2015(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PPRSD)’로 대표된다. 이들 계획이 표방하는 개발목표는 거시경제적 안정의 유지,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 인프라 개선,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강화 등이다. 이는 2009~2012년에 시행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Regional Development Program)’ 등 다양한 분야별 실행계획에서 구현 혹은 보완되고 있다(World Bank, 2010).

세계은행은 아제르바이잔이 당면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비농업 부문의 경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외부 지향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석유가스 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와 역량제고가 필요한 이유는 특히 현재의 석유와 가스 보유량이 향후 10~15년 동안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World Bank, 2010).

3. 농업 현황

3.1. 농지 및 토지제도

3.1.1. 농지

아제르바이잔의 농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농지는 전체 국토의 57.6%인 476만 ha이지만 절반 이상이 초지로 방치되어 있다. 전체 농지 중 30%는 관개시설이 보급되어 있다.

표 4-12. 국토의 구성

구 분	2000	2008
국토면적(km ²)	82,605	82,620
농지(km ²)	47,404	47,567
농지(국토면적 중 %)	57.4	57.6
농경지(ha)	1,825,600	1,860,200
농경지(1인당 ha)	0.227	0.214
농경지(국토면적 중 %)	22.1	22.5
곡물 생산면적(ha)	640,726	1,113,808*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국토면적 중 %)	2.9	2.8
관개농지(총농지 중 %)	n.a	30
산림(km ²)	9,360	9,360**
산림(국토면적 중 %)	11.3	11.3**

*2009년, **2010년.

자료: <http://data.worldbank.org>.

3.1.2. 토지제도

1995년 2월 18일 「농업개혁에 관한 법률」, 「국영 및 집단농장의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6년 7월 16일에는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어 토지개혁이 시작되었다. 「농지개혁법」을 통하여 CIS 국가 중 최초로 토지의 사유와 매매가 완전히 가능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농지개혁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아제르바이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둘째, 국영, 집단농장의 농지 중 척박한 땅이 아니라 생산에 적합한 농지를 분배하고, 분배 받은 농민은 농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셋째,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국민도 토지를 임차,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제르바이잔의 농업개혁, 특히 농지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이다. 농지개혁의 과정에서 연령, 성, 소득 혹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추첨(public lottery)방식으로 토지분배가 이루어져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World Bank, 2008).

농지개혁을 통해 소포즈, 쿨호즈와 같은 국영농장과 집단농장 2,032곳이 해체되어 농지가 농민에게 배분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자작농이 대거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2006년 1월까지 86만 9,268호의 농가에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분배된 토지는 전체 농경지의 76.5%, 가경지의 31.9%, 전 국토의 19.4%에 이른다. 국영·집단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축도 98% 이상 사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산물 생산량의 99%는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뒤인 2003년에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가구의 98%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농지를 분배받았고, 분배 과정이 공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에 이르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농지개혁을 시행한 인근 CIS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만족도가 높다(Dudwick, Nora, Karin Fock, and David Sedik, 2007).

3.2. 인구

농업부문 종사인구는 2007년 103만 5,000명, 2008년 104만 4,000명으로, 2007년 기준 전체 고용인구의 38.7%를 차지한다(<http://data.worldbank.org>). 석유, 가스업을 비롯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건설업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이 증가하면서 농업부문의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다(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7).

그러나 아직도 농업부문은 석유산업,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GDP를 생산하고 두 번째로 큰 수출산업이자 최대의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반면에 석유산업 부문에의 종사인력은 단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전히 농업부문 및 농촌의 개발은 빈곤감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3. 생산

아제르바이잔에서 농업은 산업 다양화 정책과 함께 주목 받는 부문이다. 이 나라는 석유와 가스에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제조·건설·IT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아울러 목화·포도·철갑상어 등 농수산물 가공과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1991년 농산물 수출시장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농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농업개혁 등으로 생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석유와 가스에 국가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농업의 비중은 높지 않다. 1990년 GDP 비중이 29.3%이었다가 2009년에는 7.1%로 감소되었다.

표 4-13. 산업구조

	1990	1995	2000	2005	2009
농업	29.3	26.9	17.0	9.8	7.1
제조업	33.7	32.9	45.1	63.2	61.0
서비스업	37.0	40.2	37.9	27.0	31.9

자료: <http://www.adb.org>.

농업 생산자당 부가가치는 최근 상당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 1,200달러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1,342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4-14. 농업 부가가치

구 분	2000	2007	2008	2009
생산자당 농업 부가가치 (2000년 불변, 달러)	870.8	1,211.6	1,274.4	1,341.9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아제르바이잔은 9개의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 생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2000년 이후 작물, 식품, 축산물의 생산지수는 모두 늘어나고 있으며 ha당 곡물 생산량은 점차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2.6~2.7톤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표 4-15. 농업생산 지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1999-2001 = 100)	144	140	145	152
식품 생산지수(1999-2001 = 100)	139	142	147	151
축산물 생산지수(1999-2001 = 100)	135	141	150	152
곡물 생산량(ha당 kg)	2,599.3	2,667.4	2,741.4	2,606.7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생산액이 많은 20대 농산물은 우유,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밀, 감자 등이며, 토마토나 사과, 포도, 수박과 같은 과채류도 중요한 농업소득원이 되고 있다. 축산업은 구소련 치하에서는 인위적으로 억제되었기 때문에 축산물은 연방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였다. 그 결과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제르바이잔 국민이 소비하는 육류는 소련 연방 평균인 65kg보다 훨씬 적은 37kg 정도에 불과하다(<http://www.azer.com>).

표 4-16. 농산물 생산 현황(2008년)

순위	품 목	생산액(천 달러)	생산량(톤)
1	우유	342,719	1,354,870
2	밀	168,327	1,645,790
3	쇠고기	158,955	76,853
4	감자	124,450	1,077,110
5	토마토	103,874	438,419
6	양고기	91,994	46,502
7	닭고기	59,676	51,162
8	사과	58,886	205,021
9	포도	53,729	115,822
10	달걀	49,511	60,756
11	수박	42,262	407,716
12	감	39,439	132,179
13	양파	34,032	184,669
14	오이, 오이피클	31,302	185,565
15	면화 린트	27,165	18,300
16	헤이즐넛	27,094	27,745
17	기타 신선과일	25,647	160,790
18	양모	24,878	14,770
19	기타 신선채소	21,912	116,774
20	마늘	16,628	21,545

자료: <http://faostat.fao.org>.

이 밖에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수확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1999~2009년의 곡물, 채소, 축산 및 기타작물에 대한 생산 현황이다.

표 4-17. 기타 농산물 생산 현황

구 분	단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곡물류 수확면적	천 ha	635.2	788.1	728.7	882.7	1,113.8
곡물류 생산량	천 톤	1,507	2,045	1,944	2,420	2,903
콩류 수확면적	천 ha	37.0	39.1	39.3	39.5	39.5
콩류 생산량	천 톤	50.0	42.0	42.1	42.5	42.5
채소류 수확면적	천 ha	81.1	102.2	114.7	103.7	100.4
채소류 생산량	천 톤	1,042	1,442	1,646	1,546	1,501
유지작물 수확면적	천 ha	140.1	149.4	149.8	150.3	150.3
유지작물 생산량	천 톤	27.7	31.5	31.3	31.3	31.3
전분(뿌리 및 줄기작물) 수확면적	천 ha	48.5	65.3	67.1	68.9	65.6
전분(뿌리 및 줄기작물) 생산량	천 톤	489.7	927.5	1,037.3	1,077.1	983.0
설탕작물 수확면적	천 ha	2.03	2.03	6.38	6.42	7.64
설탕작물 생산량	천 톤	43.4	74.1	141.9	190.7	188.7
과일 생산량	천 톤	556.2	609.5	781.1	828.6	880.4
돼지고기 생산량	천 톤	1.21	1.55	0.99	0.80	0.47
담배 생산량	톤	12,874	6,113	2,914	2,485	2,609
차 생산량	톤	1,745.3	909.7	484.0	323.0	447.0

자료: <http://faostat.fao.org>.

이란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쪽의 란카란 지역에서는 배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이 많이 생산되며 북부지방에 위치한 구바, 하흐카즈, 마살리 등에서는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3.4. 자재

트랙터 보급은 2002년 2만 7,000대 남짓에서 2005년 1만 5,000대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2008년 2만 1,600대 가량으로 늘어나, 농경지 100km²당 약 116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농경지 1ha당 비료 소비량은 2002~2008년에 두 배로 늘었으나 아직도 20.9kg 정도로 매우 적다 (<http://data.worldbank.org>).

표 4-18. 농기계 및 비료 공급 현황

구 분	2002	2005	2008
농기계 - 트랙터(대)	27,091	15,462	21,592
농기계 - 트랙터 (농경지 100km ² 당 대)	147.5	83.9	116.1
비료 소비량 (농경지 1ha당 kg)	10.4	13.4	20.9

자료: <http://data.worldbank.org>.

3.5. 농촌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는 비율이 2000년 48.8%에서 2009년 47.9%로 감소되었지만 절대인구로는 같은 기간에 393만 명에서 421만 명으로 늘었다.

표 4-19. 농촌 인구 변화 추세

구 분	2000	2001	2006	2007	2009
농촌 인구(천 명)	3,927,685	3,953,371	4,103,128	4,137,903	4,209,659
농촌인구 비율(%)	48.8	48.7	48.4	48.2	47.9
연간 인구성장률(%)	1.23	0.65	0.81	0.84	0.87

자료: <http://data.worldbank.org>.

개선된 식수원에 접근할 수 있는 농촌 인구는 2000년의 59%에서 2008년 71%로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http://data.worldbank.org>).

농촌의 빈곤도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다. 세계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빈곤율은 2001년 49.6%에서 2008년 15.8%로 크게 줄었다. 도시보다는 농촌의 빈곤율이 아직 높지만 이 기간에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World Bank, 2010).

표 4-20. 지역별 빈곤율의 변화

단위: %

구 분	2001	2008
전체	49.6	15.8
도시	55.7	14.8
농촌	42.5	18.5

자료: World Bank(2010).

3.6. 농업개발 전략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돌입하여 ‘아제르바이잔 농업부문 개발 국가계획 2002~2006(State Program of Development of Agrarian Sector in Azerbaijan)’을 수립하였다. 2004년 2월 11일에 ‘제1차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2004~2008)(State Program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이 수립되었고, 농업은 개발 우선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농지세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에는 모든 세금이 면제 되도록 하는 등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부문 국가계획(2008-15)(State Program for Agriculture)’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역의 증대를 위해서도 농업을 중요한 분야

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관개망의 재건, 식품가공 업체의 육성, 육류와 유가공예의 민간부문의 진입 확대, 금융자원의 확대, 연구센터의 설치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World Bank, 2010).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가 많다. 법적, 제도적 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행정적 장애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농업부와 같은 정부 정책기구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 때문에 농업부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산업과 같은 분야의 성장이 지체되어 2002년에 1990년 수준의 16%만 이 분야에서 생산하는 것에 그쳤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개혁 이후 곡물 및 가축 생산량과 노동생산성이 증가·개선되긴 하였지만 농가의 생활 만족도는 비슷한 시기에 농지개혁을 단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연료나 깨끗한 물, 하수시설 등과 같은 농촌 서비스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며, 결국 정부의 정책, 농업 투자유치 능력과 같은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Dudwick, Nora, Karin Fock, and David Sedik,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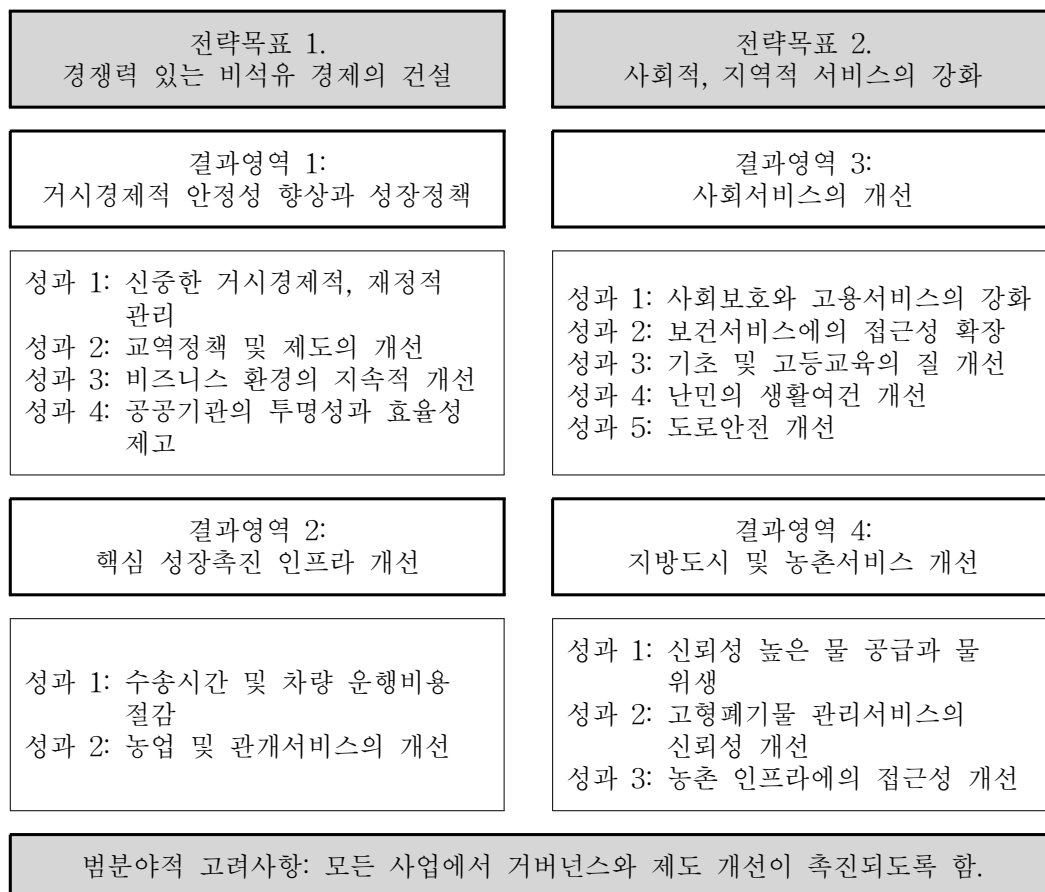
세계은행은 2011~2015년을 포괄하는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보고서를 통해 농업부문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World Bank, 2010).

- 법적, 제도적 체계의 취약
- 토지구입, 매각, 합병에서의 어려움이 지속
- 농지 및 초지 관리의 낙후
- 관개와 배수, 농촌 도로 등 인프라의 상태와 유지가 낙후
- 농업연구와 훈련체계의 취약
- 농업서비스 수준의 저위
- 저장, 등급화, 콜드체인, 유통 등 공급체인의 미발달

- 농민, 중소기업체의 현대화와 개선을 위한 신용제공의 제약
- 종자, 농기계, 관련 정보 등 투입재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결여
- 기후의 변동성, 홍수와 한발에 의한 위함의 증대

이에 따라 세계은행이 제시한 전략적 목표와 지표들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 세계은행의 아제르바이잔 협력전략



한편 ADB는 농업부문 개발을 위하여 관개 등 인프라 개선, 농지 재배기술 등의 개선, 농자재와 금융 등 농업 서비스의 제공, 민간 투자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ADB, 2010).

제 5 장

볼리비아

1. 일반 현황

볼리비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와 은, 주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배터리에 사용하는 알칼리 금속원소인 리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전 세계 매장량의 49.1%인 540만 톤을 보유). 남미의 내륙국인 볼리비아는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국제기업과 정권과의 국유화, 민영화 혹은 자본화(Capitalization), 재국유화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표 5-1. 볼리비아 국가개황

국명	볼리비아(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위치	남미대륙 중서부
면적	110만 km ² (한반도의 5배)
기후	열대(저지대), 고산(고지대)
수도	라파스(La Paz)
인구	9.9백만 명(2009년)

표 5-1. 볼리비아 국가개황(계속)

민족	케추아족(30%), 메스티조(30%), 아이마라족(25%), 백인(15%)
언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종교	가톨릭(95%), 기독교(5%)
인간개발지수(HDI)	0.643(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Juan Evo Morales 대통령 독립일: 1825. 8. 6(과거 스페인 식민지)
의회	양원제(상원 27석, 하원 130석)
국기	 빨강: 볼리비아의 동물과 용맹한 군인 노랑: 볼리비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 초록: 풍요로운 대지 노랑 바탕에 있는 방패 모양의 문장 : 콘도르·알파카·빵나무, 포토시의 구름, 9개 지방을 나타내는 9개의 별과 태양, 국가 상징 동물인 라마 등이 표현
지도	

자료: <http://100.naver.com>; 한국수출입은행(2010); <http://keri.koreaexim.go.kr>; <http://hdr.undp.org>

2006년 5월 1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시행한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 조치는 물론 수송을 통한 완전 국유화와 같은 예전의 방식과 다르다. 즉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에너지 기업들(브라질의 Petrobras, 스페인 Repsol-YPF, 영국 BP, 프랑스 Total, 미국 Vintage 등)과 맺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갱신하면서 로열티나 세금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영 석유회사인 YPFB(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 Bolivianos)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확대, 강화하였다. 이로써 국유화의 효과를 노리면서도 민영방식의 효율성과 기술이전 효과도 챙기는 실용적 형태의 자원 민족주의 방식을 도입하였다.⁹

아직도 볼리비아는 소득 불평등에 허덕이는 나라이다. 2005년 기준 9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중 60% 정도가 도시에 거주한다. 전체 인구의 67%는 빈곤선 이하이고, 38%는 극빈층에 속하며, 농촌에는 빈곤선 이하 인구가 84%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자료는 34%의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Oxford Policy Management, 2008). 2007년 UNDP는 볼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를 177개국 중 117위에 올려놓았다(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9).

특이한 것은 이 나라의 국가명(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에 포함되어 있는 ‘다민족(Plurinational)’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절반의 인구는 인디오 계통에 속한다. 이들 인디오의 58% 정도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며, 비인디오계 주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⁹ “볼리비아의 자본화는 소유, 경영권의 민간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에게 50%까지의 지분과 경영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가치가 상승한 지분을 국민연금기금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에너지, 전화, 항공, 전력, 철도, 광업 등의 분야가 국영기업의 자본화 대상이 되었다”(이상현, 2007).

2. 경제 현황

2.1. 주요 경제지표

볼리비아의 2009년 1인당 GDP는 1,758달러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리스트상으로 중저소득 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 세계은행의 지원대상국가 분류상으로는 이른바 ‘혼합국가(Blend Country)’로 분류된다.¹⁰

천연가스와 광물의 수출 호조와 해외송금 수취에 의한 소비증가로 경제성장률은 2007년 4.6%에 이어 2008년엔 6.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도 2007년에는 GDP 대비 4.5%라고 하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 국제적 경제위기,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안데안무역특혜법(ATPDEA) 면세혜택의 중단 등의 여파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재정수지도 여전히 흑자이긴 하지만 0.1~0.2%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표 5-2. 거시경제 지표

명목 GDP	193억 달러(2010년)	
실질 경제 성장률	2007년	4.6%
	2008년	6.1%
	2009년	3.4%
	2010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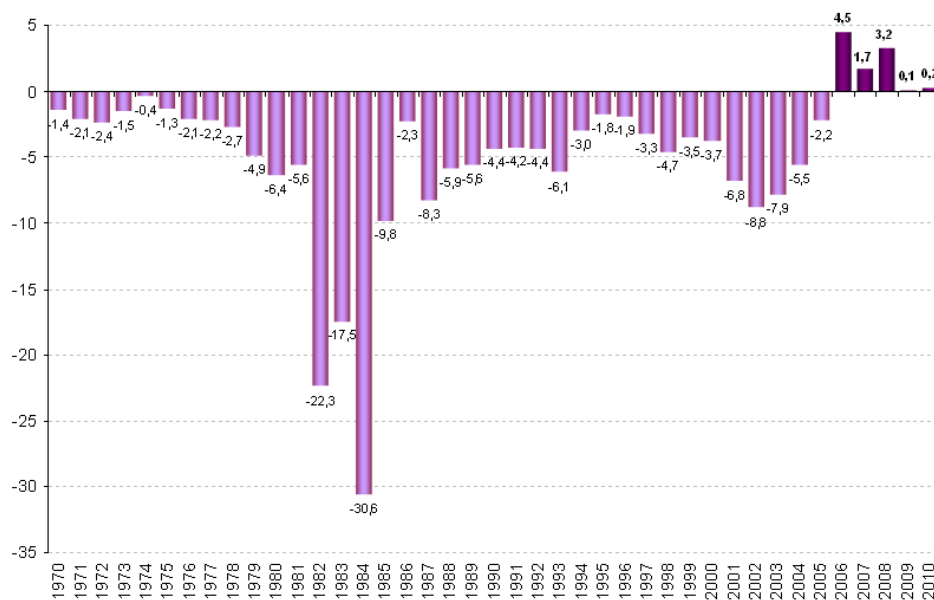
¹⁰ 세계은행이 지정한 ‘혼합국가(Blend Countries)’는 작은 섬나라, 혹은 국제개발협회(IDA)의 무상원조(grant) 혹은 무이자 융자(credit)를 받을 자격이 있을 정도로 빈곤한 수준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1인당 소득이 높지만 현재 상당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유상원조 혹은 차관(loan)을 받을 정도로 신용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임. 세계은행의 지원대상국가 분류결과는 부록 참조.

표 5-2. 거시경제 지표(계속)

1인당 GDP	2007년	1,381달러
	2008년	1,713달러
	2009년	1,842달러
	2010년	1,931달러
실업률	8.3%(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8%(2008년), 0.3%(2009년), 3.5%(2010년)	
환율	1USD ≒ 7.11BOB	
	1BOB ≒ 160.61KRW(2011년 기준)	

주: 2010년 추정치.
 자료: <http://www.cia.gov>; 한국수출입은행(2010); <http://keri.koreaexim.go.kr>.

그림 5-1. 재정수지 현황



주: GDP에 대한 비율이며, 2010년은 3월까지임.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2010).

2009년 부문별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가스, 석유 등 탄화수소 부문이 크게 후퇴한 반면 건설과 광업 등이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다. 농축산업도 3.7%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5-3. 부문별 실질 GDP 성장률(2009)

부 문	성 장 륜 (%)
건설	10.8
광업	9.9
공공행정 서비스	6.5
전기, 가스, 수도	6.1
운송, 저장, 통신	5.6
상업	4.9
제조업	4.8
재정서비스	4.1
농축산업	3.7
지역, 사회, 인력, 국내 서비스	3.6
요식, 숙박	2.3
탄화수소	△13.5
계	3.4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2010).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을 보면 농업이 11%, 제조업이 37%, 서비스업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은 장기적으로 감소, 제조업은 증가추세에 있다.

표 5-4. 산업별 GDP 구성비율

구 분	단 위: %		
	2000	2007	2008
농업	15	12.9	11
제조업	29.8	36.4	37
서비스업	55.2	50.7	52

자료: 2000년, 2007년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2009), 2008년은 한국수출입은행(2010).

볼리비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에너지 상품이 핵심 수출품이며 아연과 주석 등 광물자원도 주요 품목이다. 이웃한 브라질이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며 그 뒤를 미국과 일본, 콜롬비아, 한국, 페루가 잇고 있다. 수입 품목은 다양하며 미국 이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 이웃 국가들이 주 대상국이다.

표 5-5. 수출입 금액, 대상국 및 주요 품목

구 분		내 용(2009년)
수출	총액	60억 5,800만 달러(2010년 추정치)
	주요 수출국	브라질 41.38%, 미국 13.87%, 일본 5.62%, 콜롬비아 5.32%, 한국 4.7%, 페루 4.16%
	주요 수출품목	천연가스, 콩 및 콩제품, 원유, 아연광, 주석
수입	총액	50억 600만 달러(2010년 추정치)
	주요 수입국	브라질 27.12%, 아르헨티나 15.69%, 미국 12.77%, 칠레 9.11%, 페루 6.85%
	주요 수입품목	석유 제품, 플라스틱, 종이, 비행기 및 비행기 부품, 조리 식품, 자동차, 살충제, 콩

자료: <http://www.cia.gov>.

볼리비아 에너지 산업은 GDP의 9% 정도를 차지하며(2005년), 이는 1998년 1.9%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현재까지도 볼리비아 경제 전체를 선도하고 있다.

2.2. 공적개발원조 수혜 현황

2002년~2007년 1/4분기에 전체 GDP 중 ODA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9% 정도였다. 원주민의 정치참여와 분배정책을 앞세우고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한 모랄레스 정권은 외국의 원조이전 외국인 직접투자이전

그 저의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다. 새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2006년 수립한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PND)의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화하였다(Oxford Policy Management, 2008).

볼리비아에 대한 ODA 지원액은 2007년의 4억 7,70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7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GNI 대비 ODA의 비율도 3.8%에서 4.4%로 늘었다. 볼리비아가 2000년대에 가장 많은 ODA 원조를 받은 것은 2003년으로, 9억 3,841만 달러를 수원하였다. 수원총액 중 양자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를 넘고 있다.

표 5-6. ODA 수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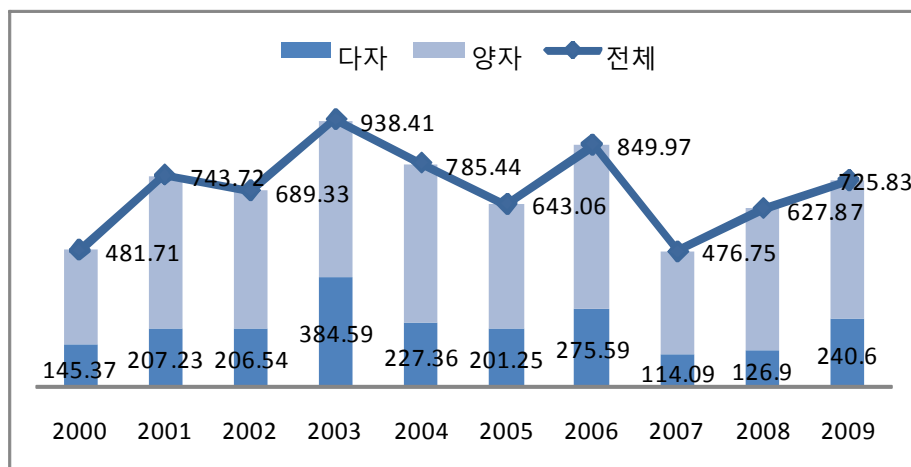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ODA 총액	477	628	726
ODA/GNI 비율	3.8%	3.9%	4.4%

* 순지출 기준.

자료: <http://data.worldbank.org>.

그림 5-2. 연도별 양자/다자간 원조 수원 현황(백만 달러)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남미 국가별 ODA 수원규모와 비교해보면, 볼리비아는 남미에 대한 ODA 총액 중 약 25%를 받고 있다.

표 5-7. 남미지역 국가별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수원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전체	남아메리카	2546.2	2371.0	3166.6	2938.2	2854.8	3321.9	2942.7	3754.2	3781.5	3075.3
한국	총액	2.1	2.61	3.61	5.91	11.04	12.43	29.94	25	18.4	12.3
전체	아르헨티나	145.4	81.44	106.56	91.31	96.04	115.08	101.34	130.5	127.74	110.6
한국		0.01	0.04	0.09	0.09	0.18	0.19	0.04	0.18	0.1	0.1
전체	볼리비아	743.72	689.33	938.41	785.44	643.06	849.97	476.75	627.87	725.83	720.0
한국		0.5	0.2	0.54	0.59	4.36	4.5	8.66	5.23	1.84	2.9
전체	브라질	219.53	207.73	198.28	154.38	243.07	113.43	321.2	460.36	338.46	250.7
한국		0.04	0.04	0.05	0.19	0.19	0.22	0.16	0.52	0.36	0.2
전체	칠레	75.27	-7.34	85.69	54.37	167.34	101.39	104.9	107.85	79.66	85.5
한국		0.08	0.03	0.06	0.57	0.5	0.31	0.24	0.34	0.1	0.2
전체	콜롬비아	384.36	438.4	800.37	514.75	620.52	1005.2	722.82	972.01	1060.2	724.3
한국		0.13	0.37	0.27	0.52	0.47	0.25	0.18	1.42	1.38	0.6
전체	에콰도르	183.57	219.97	174.93	153.29	225.81	187.77	217.29	230.61	208.62	200.2
한국		0.09	-0.06	-0.34	-0.49	-0.56	0.21	3.35	3.62	2.75	1.0
전체	가이아나	112.14	71.83	96.06	145.14	149.93	174.32	127.85	166.28	173.48	135.2
한국		0.03	0.09	0.06	0.01	0.06	0.07	0.67	0	0	0.1
전체	파라과이	61.38	56.77	51.24	22.44	50.65	55.97	107.95	133.54	148.27	76.5
한국		0.41	0.56	0.68	1.06	2.35	1.92	5.95	4.78	4.85	2.5
전체	페루	450.64	488.48	516.89	463.45	450.48	463.44	308.53	463.02	441.92	449.7
한국		0.75	0.98	2.09	3.06	2.84	4.49	10.22	8.73	6.99	4.5
전체	수리남	23.19	11.59	10.86	23.89	44.17	64.22	150.87	101.5	157.09	65.3
한국		0	0	0.01	0.03	0.06	0.08	0.26	0	0	0.0
전체	우루과이	15.19	13.72	23.58	29.05	14.44	21.07	37.01	33.29	50.61	26.4
한국		0.02	0.22	0.09	0.26	0.19	0.03	0.03	0	0	0.1
전체	베네수엘라	44.68	56.53	81.11	44.91	50.3	62.93	77.76	59.22	66.81	60.5
한국		0.04	0.14	0.01	0.02	0.4	0.16	0.18	0	0.03	0.1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한편, 한국의 남미지역 공여 현황을 살펴보면 파라과이가 우리나라의 대 남미 총원조규모의 35%를 차지하여 수원규모 1위이고 그 뒤를 이어 볼리비아가 24%로 2위이다.

표 5-8. 우리나라의 남미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우리나라 평균 (2001-2009)
1	페루	4.5
2	볼리비아	2.9
3	파라과이	2.5
4	에콰도르	1.0
5	콜롬비아	0.6
6	칠레	0.2
7	브라질	0.2
8	가이아나	0.1
9	베네수엘라	0.1
10	아르헨티나	0.1
11	우루과이	0.1
12	수리남	0.0

주: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표 5-9. 공여국 및 국제기구 연도별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5		2006-2009	
	국가/총액 (평균)		국가/총액 (평균)		국가/총액 (평균)		국가/총액 (평균)		국가/총액 (평균)		국가/총액 (평균)	
전체 (평균)	34.3		72.5		258.3		628.4		727.7		664.7	
1위	미국	28.0	미국	25.5	미국	57.2	미국	103.9	미국	146.0	미국	136.1
2위	IDB Sp. Fund	1.7	IDB Sp. Fund	12.9	일본	37.3	IDA	78.3	IDA	98.9	스페인	76.7
3위	독일	1.5	독일	9.5	IDB Sp. Fund	34.1	독일	72.2	IDB Sp. Fund	96.9	IDB Sp. Fund	63.6
한국 (순위)	한국 (23)	0	한국 (29)	0	한국 (33)	0.001	한국 (30)	0.17	한국 (29)	0.39	한국 (18)	4.92

주: 순지출 기준. IDB Sp. Fund: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s Fund for Special Operations(미주개발은행 특별 운용기금 대출)

자료: <http://stats.oecd.org>.

볼리비아는 1960년부터 미국의 원조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미국은 오늘날까지 볼리비아에 대한 최대 공여국이며, 미주개발은행 특별 운용기금(IDB Sp. Fund) 대출도 볼리비아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일본과 독일, 그리고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가 주요 공여국·기관으로 등장한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스페인의 지원액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미국, 스페인, 일본, 독일이 많은 금액을 제공하여 주요 공여국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공여수준은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데, 1989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60만 달러에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공여 총액(평균)은 공여국 중 18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볼리비아에 대한 무상원조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2010).

분야별 약정액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가 전체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0. ODA 분야별 약정액

분야	ODA 총액(약정기준)	비율(%)
부채탕감과 관련된 활동	60.5	7.90
행정비용	4.34	0.56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	72.85	9.51
교육	64.87	8.47
보건 및 인구	32.47	4.24
인도적 지원	10.06	1.31
다분야	69.11	9.02
기타 사회분야	286.64	37.43
생산분야	120.81	15.77
프로그램지원	39.66	5.17
미분야	4.45	0.58

* 2005-2009년 5년 평균임.

자료: <http://data.worldbank.org>.

한편 우리나라가 최근 볼리비아의 농업, 농촌분야를 위하여 지원한 것은 2007년 농촌개발과 관련한 장비공급이 유일하다.

표 5-11.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분야 지원 현황

단위: 천 달러

원조코드	2006	2007	2008	2009
43040: 농촌개발	-	81.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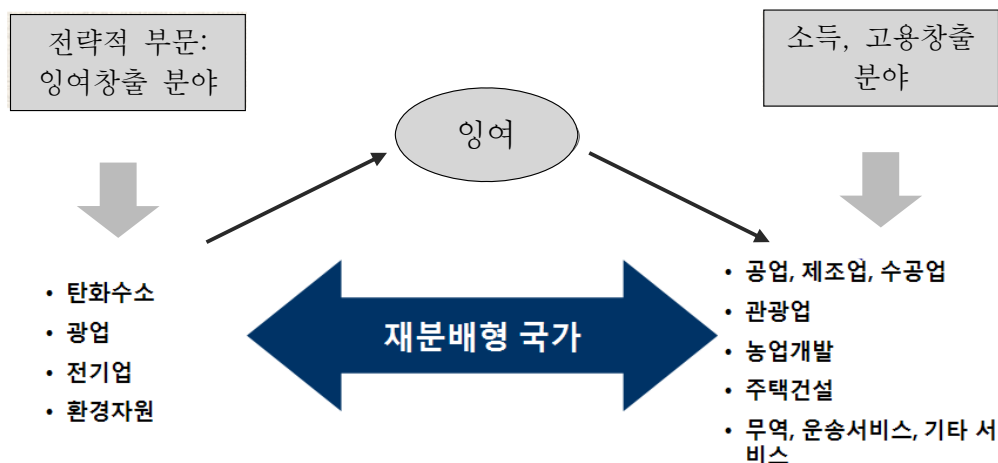
* 2006-2009, 약정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2.3. 경제개발 전략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볼리비아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거부하고 이른바 ‘경제사회 공동체적, 생산적 모델(Economic, Social, Communitarian and Productive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탄화수소, 광업, 전기업, 기타 환경자원 분야를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부문으로 설정하고, 여기서의 잉여를 공업, 제조업, 관광, 농업 등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분야로 재분배한다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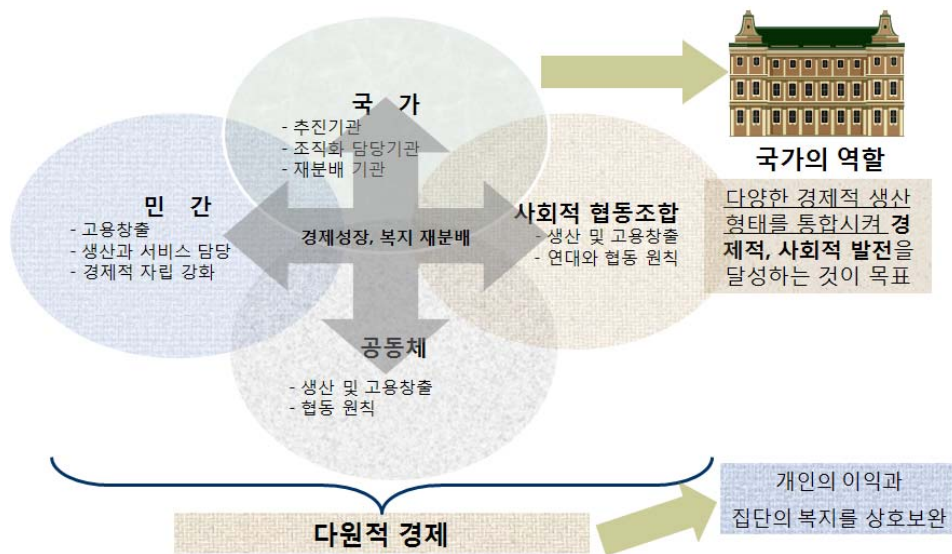
그림 5-3.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 ‘경제사회 공동체적, 생산적 모델’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2010).

여기에서 국가는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자, 기업가, 투자자, 조정자, 후원자, 개발사업자, 은행가 등의 다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민간부문과 사회적 협동조직체, 지역 공동체가 경제성장과 복지의 분배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계되며, 이를 ‘다원적 경제(Plural Economy)’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 5-4. 다원적 경제의 개념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2010).

2006년에는 빈곤경감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다음 네 가지를 핵심 추진방향(pillars)으로 설정하고 있다(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9).

- ① 생산적인(productive) 볼리비아: 천연자원과 공익부문과 같은 전략부문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늘리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노동집약적 부문(제조업, 관광, 농업 등)과 필수 복합단지를 활성화함.
- ② 위엄 있는(dignified) 볼리비아: 빈곤과 배척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분배적 이전소득과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정책을 확대함.
- ③ 자주적인(sovereign) 볼리비아: 발전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소유권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와 균형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며, 식량과 에너지 생산에서의 자급을 추구함.
- ④ 민주적이고 참여하는(democratic and participative) 볼리비아: 민간과

원주민의 운동세력에 정치적 권력을 나누어 줌으로써 권력관계를 재편함.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15년까지 빈곤선 이하 인구를 22%까지로 떨어트려 MDGs의 하나인 빈곤인구 감소를 달성하려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이다(Oxford Policy Management, 2008).

3. 농업 현황

3.1. 농지 및 인구

볼리비아의 국토면적 108만 3,300km² 가운데 농지의 비율은 34% 정도인 36만 8,280km²이며 산림은 국토면적의 54% 정도를 차지한다.

표 5-12. 국토의 구성

구 분	2000	2007
국토면적(km ²)	1,083,300	1,083,300
농지(km ²)	369,990	368,280
농지(국토면적 중 %)	34.2	34.0
농경지(ha)	3,000,000	3,609,000
농경지(1인당 ha)	0.361	0.379
농경지(국토면적 중 %)	2.77	3.33
곡물 생산면적(ha)	757,989	945,620*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국토면적 중 %)	0.16	0.20
산림(km ²)	600,910	581,996
산림(국토면적 중 %)	55.5	53.7

*2008년.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농경지 면적이 361만 ha에 이르며 국민 1인당 농경지 면적은 약 0.4ha이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190만 6,000명으로 조사되었다(<http://data.worldbank.org>).

3.2. 생산

작물과 식품, 축산물 등의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으나 ha당 곡물 생산량은 현재 2톤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성 개선의 여지가 많다.

표 5-13. 농업생산 지수

구 분	2000	2007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1	121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2	113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0	113
곡물 생산량 (1ha당 kg)	1,641.6	1,849.1*

*2008년.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생산액 기준으로 볼리비아의 20대 농산물에는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와 우유 등 축산물이 포함된다. 아울러 콩과 사탕수수, 플랜테인(바나나와 비슷한 열매), 감자, 호두, 벼, 해바라기 씨, 옥수수 등이 주요한 생산품목이다.

표 5-14. 농산물 생산 현황(2008년)

순위	품 목	생산액(천 달러)	생산량(톤)
1	쇠고기	514,012	248,521
2	콩	245,792	1,259,676
3	닭고기	158,785	136,130
4	사탕수수	145,580	7,009,195
5	돼지고기	115,925	114,477
6	플랜테인	91,981	445,898
7	감자	74,551	747,968
8	우유	69,346	260,759
9	호두	68,850	55,000
10	벼	68,388	337,800
11	해바라기씨	64,524	273,191
12	옥수수	60,244	1,001,803
13	계란	50,169	65,380
14	양고기	39,515	19,974
15	면화 린트	38,002	25,600
16	밀	29,213	199,990
17	토마토	29,068	122,687
18	바나나	24,186	182,490
19	커피	20,784	25,422
20	오렌지	16,103	91,634

자료: <http://faostat.fao.org>.

이 밖에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수확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15. 주요 농산물의 수확면적, 생산량

구분	단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채소류 수확면적	천 ha	106.9	103.9	95.4	95.8	96.9
채소류 생산량	천 톤	502.6	478.8	396.3	396.1	397.3
과일 생산량	천 톤	994.0	919.4	915.0	915.0	915.0
유지작물 수확면적	천 ha	827	992	1,173	1,054	1,212
유지작물 생산량	천 톤	257	338	378	351	366
콩류 수확면적	천 ha	32.4	45.7	47.9	44.3	60.5
콩류 생산량	천 톤	32.7	52.8	58.9	56.0	73.4
전분(뿌리 및 줄기작물) 수확면적	천 ha	182.6	185.6	190.7	192.4	195.5
전분(뿌리 및 줄기작물) 생산량	천 톤	1,129	1,174	1,155	1,169	1,185
설탕작물 수확면적	천 ha	85.7	85.7	127.6	160.0	163.7
설탕작물 생산량	천 톤	3,719	5,175	6,403	7,009	7,438
차 생산량	톤	830.0	854.3	889.0	889.0	n.a.
코코아 생산량	톤	4,273	4,276	4,699	4,699	n.a.
담배 생산량	톤	973	1,091	1,244	1,269	1,284
고무 생산량	톤	11,334	11,723	12,000	12,000	n.a.

자료: <http://faostat.fao.org>.

볼리비아의 농기계는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현재 6,000대 가량으로 농경지 100km²당 16.6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는 ha당 4.6kg으로 극히 적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표 5-16. 농업자재

구 분	2000	2001	2002	2007
농기계 - 트랙터(대)	6,000	6,000	6,000	6,000
농기계 - 트랙터 수 (농경지 100km ² 당 대)	20	n.a.	n.a.	16.6
비료 소비량(톤)	7,503	11,529	13,342	n.a.
비료 소비량 (농경지 1ha당 kg)	n.a.	n.a.	4.3	4.6

자료: <http://data.worldbank.org>.

3.3. 농촌

볼리비아의 농촌인구는 2009년 334만 9,000명 가량이며 전체 인구의 34% 정도이다. 농촌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로, 2009년 현재 인구 성장률은 0.38%를 기록하였다.

표 5-17. 농촌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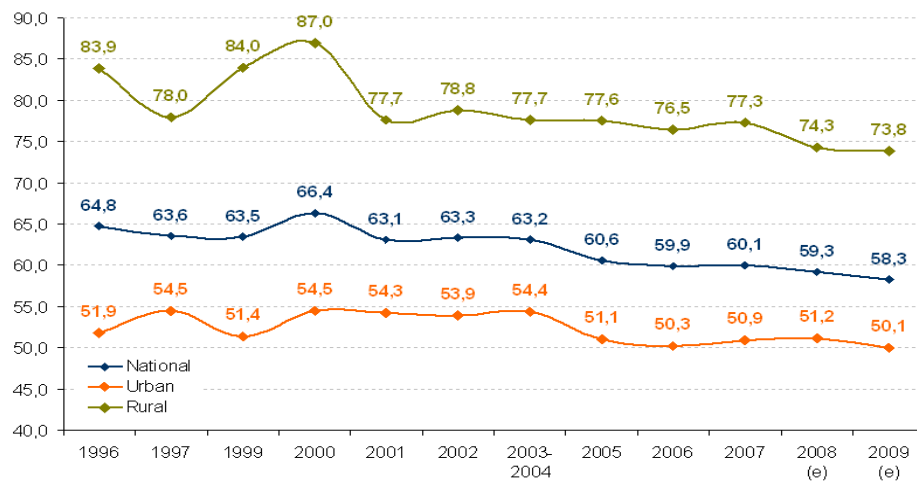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2	2006	2008	2009
농촌인구(명)	3,177,236	3,225,594	3,305,642	3,336,714	3,349,427
농촌인구 (총인구 중 %)	38.2	37.24	35.34	34.42	33.96
농촌인구 성장률 (연간 %)	0.81	0.74	0.56	0.44	0.38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볼리비아의 빈곤인구는 감소추세이나 2009년까지도 총인구의 58.3%에 이르고 농촌지역은 이보다 심하여 73.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의 극빈인구층 역시 지난 10여 년의 추세로 보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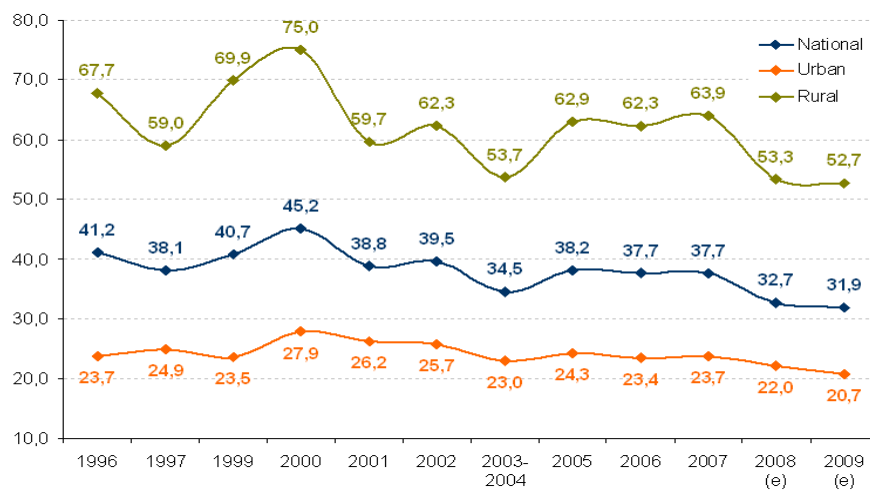
농촌인구의 52.7%에 이를 만큼 빈곤이 심각한 상태이다. 2007년의 지니계수는 전국 평균이 0.56, 농촌이 0.64로 조사되었다(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9).

그림 5-5. 빈곤인구 비율 추이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2010).

그림 5-6. 극빈인구 비율 추이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2010).

제 6 장

솔로몬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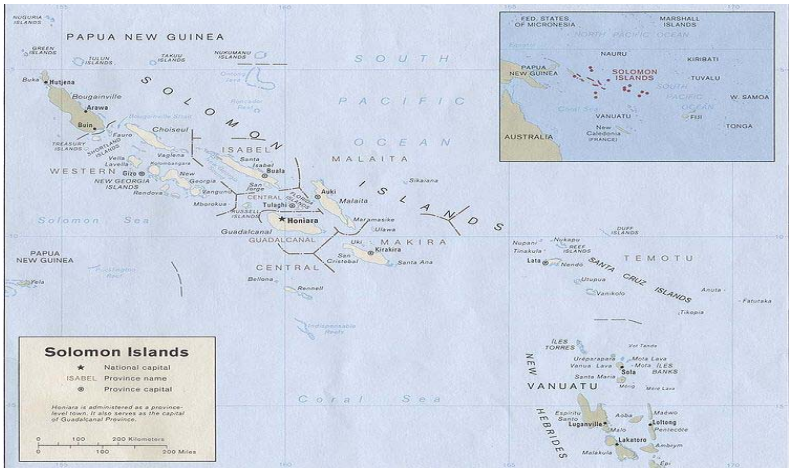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위치한 약 1,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국토면적은 남한의 약 29%인 2만 8,450km²이다. 주요 섬으로는 초이설(Chioseul), 뉴조지아(New Georgia), 이사벨(Isabel), 과달카날(Guadalcanal), 말라이타(Malaita), 마키라(Makira)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섬은 과달카날로 5,336km²의 크기이며, 수도는 오니아라(Honiara)이다.

표 6-1. 솔로몬군도 국가개황(2006년)

국명	솔로몬군도(Solomon Islands)
위치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동쪽
면적	31천 km ² (한반도의 14%)
기후	열대성
수도	호니아라(Honiara)
인구	52만 명(2009년 추정치)
민족	멜라네시아 계(95%), 폴리네시아 계(3%)

표 6-1. 솔로몬군도 국가개황(2006년)(계속)

국명	솔로몬군도(Solomon Islands)	
언어	영어, Pidgin어	
종교	기독교(95%)	
인간개발지수(HDI)	0.494(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대통령: Elizabeth II 영국 여왕(Danny Philip 총리, 2011년 현재) 독립일: 1978. 7. 7(영국)	
의회	단원제(50석)	
국기		파랑: 물(바다·내·비) 초록: 국토(나무·농작물) 노랑: 태양 5개의 별: 본 국가를 구성하는 섬들의 주요한 5개 구역
지도		

자료: <http://100.naver.com>; <http://en.wikipedia.org>; <http://hdr.undp.org>.

인구는 2010년 추정치 기준 61만 명으로 멜라네시아계 95%와 폴리네시아계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가 공식언어이지만 피드긴(Pidgin)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개의 남태평양 섬으로 구성된 군도국의 특성상 열대성 기후대에 속해있으며,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에 속한다. 솔로몬군도는 기독교(95%)가 주요 종교이고 입헌군주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1999년 초 아사타부 자유운동연합(Isatabu Freedom Movement)이 2만 여명의 말라이타 종족을 추방하면서 말라이타 종족은 거주지인 말라이타 섬에서 최대 섬인 과달카날 섬으로 이주하게 되고 종족 간 분쟁이 악화되어 내전 발발의 일촉즉발 위기까지 도달하였지만 2000년 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어 급기야 호주의 중재 아래 2003년 평화유지군(RAMSI)¹¹이 파견되면서 국가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8월 총선 이후 대니 필립(Danny Philip) 총리의 취임과 새로운 정부 형성과정에서 정치 불안은 상존하고 있다.

2. 경제 현황

2.1. 주요 경제지표

솔로몬군도의 경제는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4년 37%로, 2003년의 38.2%와 비교하여 1.2% 포인트 감소하였고, 산업부문도 2003년 10.3%에서 9.2%로 감소하여 1.1%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은 2003년 49.2%에서 2004년 51.6%로 2.4% 증

¹¹ Regional Assistant Mission to Solomon Islands의 약자로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함.

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농림수산물부와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http://faostat.fao.org>).

솔로몬군도의 경제는 2009년 2.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1인당 소득은 1,233달러이다.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로 추정되었다. 솔로몬군도와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가로 총수출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약 16%로 중국 다음의 최대수출국이다. 이 외 태국(15.7%), 일본(9.7%), 필리핀(5.1%), 베트남(3.1%)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표 6-2. 주요 경제지표(2009년 기준)

명목 GDP	5.64억 달러
실질 경제 성장률	△2.2%
1인당 GDP	1,223달러(2009년 추정치)
소비자물가상승률	6.3%(2007년 추정치)
환율	1USD ≒ 10SBD(2006년 기준) 1SBD ≒ 145.96KRW(2011년 외환은행 비교시환율 기준)
교역규모	수출: 1.72억 달러 - 중국 28.2%, 남한 15.7%, 태국 15.7%, 일본 9.7%, 필리핀 5.1%, 베트남 3.1% 수입: 2.52억 달러 - 호주 25.3%, 싱가포르 23.8%, 뉴질랜드 5.3%, 인도 4.8%, 일본 3.9%
주요 교역품	수출: 목재, 수산물, 코코아, 팜유, 코프라 등 수입: 식료품, 연료, 설비·기계류, 공산품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6); <http://news.bbc.co.uk>; <http://www.state.gov>; <https://www.cia.gov>

수입부분에서는 호주(25.3%)와 싱가포르(23.8%)이 최대 수입국이며, 이 외 뉴질랜드(5.3%), 인도(4.8%), 일본(3.9%) 등이 주요 수입 국가이다. 주요 교역품 중

수출품은 목재, 수산물, 코코아, 팜유, 코프라 등으로 농림수산물이 대부분이며, 수입품으로는 식료품, 연료, 설비 및 기계류와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솔로몬군도는 미개발된 아연, 니켈, 금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하지만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인한 주요 산업의 몰락과 국가재정의 악화 등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솔로몬군도는 주요 자원 중의 하나인 목재의 과대 벌목으로 인해 산림 재건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자원 중 금은 1998년부터 호주의 I금광개발 회사가 금광을 개발하면서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으며, 다른 광물도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솔로몬군도의 수산업은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정학적 특성상 다국적 자본이 솔로몬군도의 수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자본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관광산업 또한 솔로몬군도의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교통,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2. 국가개발전략

솔로몬군도는 2003~2006년 국민경제재건과 개발개혁 계획을 수립하여 종족 간 분쟁으로 상실된 경제, 행정체계,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이어 2008~2010년 국가중기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인프라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였다.¹²

¹² 국가 중기개발계획의 주요과제는 거버넌스 개선,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MDGs 달성을 위한 농촌개발에 초점을 두고 사회 서비스 개선(물, 위생, 도로, 보건, 교육, 전력)에 주력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토지, 산림부문 개혁과 고용창출)하고 공여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림산업의 쇠퇴와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관광, 농업, 어업 등 기타 산업부문을 개발하는 것이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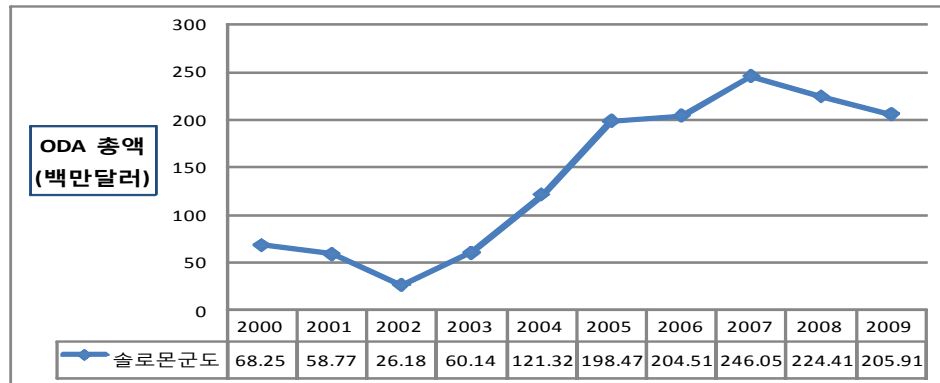
2011~2015년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은 정치·사회, 경제·정신적인 발전과정에 공평한 참여를 통한 솔로몬군도 국민의 역량 강화 및 새롭고 단합된 역동적인 솔로몬군도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솔로몬군도의 국가개발계획은 최상위 계획인 국가개발전략(NDS)하에, 국가정책 및 전략(National Policies & Strategies)과 각 부처의 분야별 계획(Sectoral/Corporate Plan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개발계획은 ‘새롭고 단합된 역동적인 솔로몬군도 건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 사회·경제활동의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 2) 인구 증가율 조정 및 가족계획 구체화, 3)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 빈곤타파,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 2) 기초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말라리아, HIV, 기타 질병 타파, 3)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3대 정책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 경제성장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삶의 수준 향상, 2) 경제기반 확충, 3) 경제성장을 제고, 4)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관리체계 구축, 5) 식수, 공중위생 등 기본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5대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있다.

2.3. 공적개발원조 수혜 현황

솔로몬군도는 2004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ODA 총수원액은 약 6,80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2억 6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 ODA 수원액이 6,000만 달러에서 2004년 1억 2,10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한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03년 평화협정 후 국제사회의 원조가 국가재건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많은 공여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1. ODA 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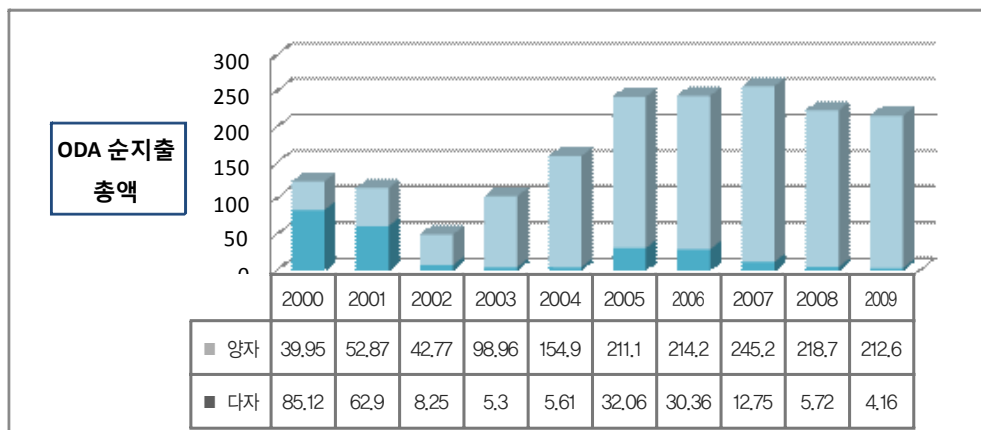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data.worldbank.org>.

국제사회의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2001년까지는 다자 원조가 대부분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양자 원조 형태가 지배적으로 많다. 최근 다자 원조 지원 현황은 미미하다. 또한 2003년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호주가 최근까지 양자 원조에서 가장 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6-2. 양자/다자 원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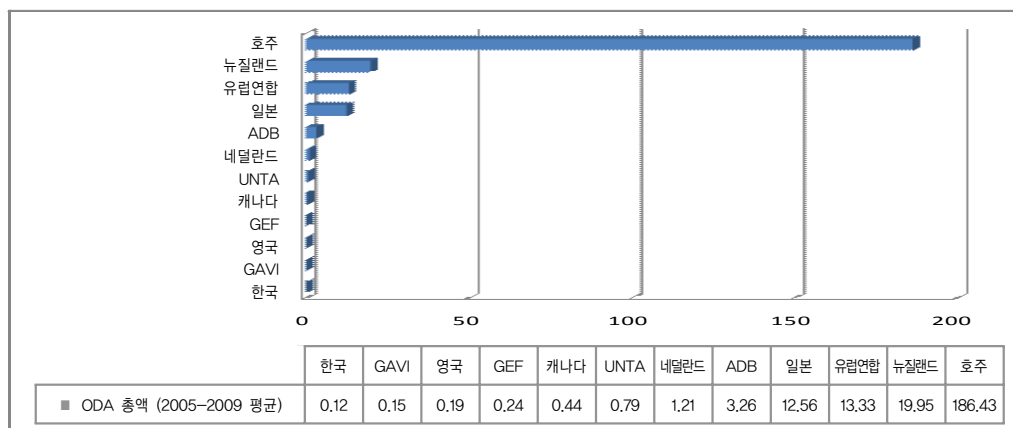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data.worldbank.org>

호주는 2005~2009년 평균 약 1억 8,6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다음으로 뉴질랜드(약 2,000만 달러), EU(1,330만 달러), 일본(1,260만 달러) 순이다. 기타 공여국으로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한국이 있으며, 국제 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 UNTA, GEF, GAVI 등이 있다.

그림 6-3. 솔로몬군도 수원 현황-공여국 순위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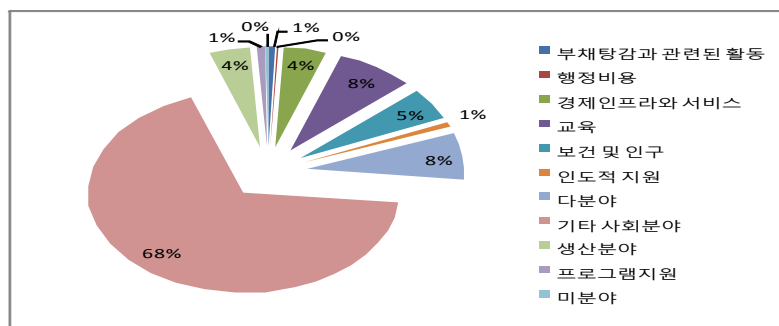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지원 분야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68%가 집중되었으며, 생산분야에는 4%가 지원되었다.

그림 6-4. 솔로몬군도 ODA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2005~2009년 약정액 기준.

자료: <http://data.worldbank.org>.

한국이 솔로몬군도의 농업, 농촌분야에 지원한 현황은 2007년 KOICA를 통해 무상원조 형태로 산림개발 분야에 지원한 것이 유일하며, 초청연수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표 6-3. 한국의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원조목적 코드	연도	원조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활동 방식/ 프로젝트 주제	원조총액	프로젝트 주제	분야
산림개발	2007	KOICA	무상원조	연수생 초청	0.140564	Training Program	임업

주: 2006-2009년 약정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3. 농업 현황

3.1. 농지분포

산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솔로몬군도의 농지면적은 약 840km²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작이 가능한 농지는 약 1만 6,000ha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협소한 농지규모로 인해 곡물을 대량 생산하거나 토지가 대량으로 필요한 축산업 및 사료작물 생산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 6-4. 농지분포

구 분	2000	2007
국토면적(km ²)	27,990	27,990
농지(km ²)	760	840
농지(국토면적의 %)	2.7	3.0
농경지(ha)	14,000	16,000
곡물생산 면적(ha)	1200	1450
영년생 작물 생산면적(국토면적 중 %)	1.96	2.14
산림(km ²)	23,710	20,924
산림(국토면적 중 %)	84.7	74.8

자료: <http://data.worldbank.org>.

2007년 1,450ha에서 곡물이 생산되었으며, 코코넛, 코프라, 팜(Palm) 등의 생산에 사용되었다. 솔로몬군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은 약 2만 1,000ha로 75%의 비중을 차지한다.

3.2. 농업생산

솔로몬군도에서는 코프라(Corpra)와 팜오일(Palm Oil) 등이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품목이다. 코프라는 2만 5,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출하고 있다. 국내 소비도 2000년 초 약 1만 톤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팜유는 최근까지 약 8,000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 없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표 6-5. 코프라 생산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초이월량 (천 MT)	5	2	0	0	0	0	0	0	0	0	0
생산량 (천 MT)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총공급량 (천 MT)	30	27	25	25	25	25	25	25	25	25	25
수출량 (천 MT)	19	18	3	11	12	14	22	21	20	19	21
소비량 (천 MT)	9	9	22	14	13	11	3	4	5	6	4
연말이월량 (천 MT)	2	0	0	0	0	0	0	0	0	0	0

자료: <http://faostat.fao.org>

표 6-6. 팜유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천 MT)	8	8	8	8	8	8	8	8	8	8	8
수출량 (천 MT)	8	8	8	8	8	8	8	8	8	8	8

자료: <http://faostat.fao.org>

코코넛은 솔로몬군도의 농가소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수확면적은 3만 7,000ha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수는 2001~2003년 ha당 52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2005년 75톤으로 급증하여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2005년부터는 27만 6,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7. 코코넛 생산 현황

구분(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확면적 (천 ha)	37*	37*	37*	37*	37*	37*	37*	37*	37(F)	n.a.
단수 (kg/ha)	66,486	56,216	54,054	51,891	64,864	74,594	74,594	74,594	74,594	74,594
생산량 (천 톤)	246*	208*	200*	192*	240*	276*	276*	276*	276(F)	n.a.

*: 비공식자료 F: FAO 추정치.

자료: <http://faostat.fao.org>,

코코넛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은 팜유로 약 3만 9,000톤이 생산되었다. 이 외 생산액이 많은 순으로 고구마, 얀(Yam), 타로, 신선과일, 코코아 빈 등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량은 다른 개도국과 비교하여 적은 규모이다.

표 6-8. 생산액이 많은 10대 농산물의 생산액, 생산량(2008년)

순위	농산물	생산액 (\$1,000)	생산량 (MT)
1	코코넛	24,961	276,000
2	팜유	11,807	39,000
3	고구마	8,642	86,000
4	얀	6,457	32,000
5	타로	4,532	44,000
6	신선 과일 네스	3,349	21,000
7	코코아 빈	3,280	4,259
8	돼지고기	2,349	2,320
9	쇠고기	1,530	740
10	팜 줄기	1,306	10,000

자료: <http://faostat.fao.org>.

솔로몬군도의 비육우는 2003년까지 약 1만 3,000두가 사육되다가 2004년 약 500두가 증가하여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돼지의 사육두수 또한 미미하게 증가하여 최근 5만 4,000두 수준으로 사육되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은 2001년 592톤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 750톤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돼지고기는 FAO 추정치를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는 약 200톤이 증가한 2,300톤이 생산되었다. 생산된 축산물은 국내에서 전량 소비된다. 신선우유는 2000년 약 1,300톤이 생산되었고 약간 증가하여 2007년 1,400톤이 생산되었다.

축산물 수입은 쇠고기 17톤을 포함하여 2000년 139톤이 수입되었으며, 2006년에는 602톤이 수입되었다. 이는 2005년 321톤과 비교하여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2006년 수입량은 닭고기 수입이 548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6-9. 축산물 생산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육우(천 두)	13	13	13	13	13.5	13.5	13.5	13.5
양돈(천 두)	50	51	51	51	52	53	53	54
쇠고기 (MT)	610	592	647	647	740	740	750	750
돼지고기 (MT)	2,100	2,200	2,240	2,240	2,280	2,320	2,300	2,300*
우유 (천 MT)	1.3	1.3	1.3	1.37	1.37	1.37	1.40	1.40
쇠고기 수입(MT)	-	-	17	19	16	16	16	n/a
우유 대체품 수입(MT)	2,207	1,149	1,494	940	970	925	974	n/a
총정육 수입(MT)	139	109	305	265	336	321	602*	n/a

* 닭고기 548MT 포함.

자료: <http://faostat.fao.org>

FAO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코코아 빈은 2000년 6,000ha에서 수확하였으나 2009년 1만 600ha에서 수확하여 4,600ha가 증가하였다. 또한 단위당 수확량에서도 2000년 0.39톤/ha에서 2009년 0.44톤/ha를 기록하여 0.05톤/ha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코아 빈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특히 단수의 증가로 인해 2000년 2,316톤에서 2009년 4,67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6-10. 코코아 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확면적 (ha)	6,000	5,000	7,000	11,000	10,000	11,700	9,000	10,000	9,600	10,600
단수 (kg/ha)	386	408	415	417	418	421	426	434	444	441
생산량 (톤)	2,316	2,038	2,907	4,587	4,181	4,928	3,835	4,342	4,259	4,671

자료: <http://faostat.fao.org>.

팜오일 열매의 수확면적은 2005년까지 9,000ha를 유지하다가 2006년부터 1만 ha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1만 1,000ha가 되었다. 하지만 단수는 1만 ha로 증가한 2006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평년 수준(16.7톤/ha)보다 약간 상회하는 17.1톤/ha로 회복하였다. 단수와 수확면적의 변화로 인해 팜오일 열매의 생산량은 과거 15만 톤 수준에서 2008년 약 18.8만 톤으로 3.8만 톤 정도 증가하였다.

표 6-11. 오일 팜 열매

구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확면적 (ha)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10,000	10,000	11,000	n.a.
단수 (kg/ha)	16,666	16,666	16,666	16,666	16,666	16,666	15,000	16,900	17,091	17,091
생산량 (톤)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69,000	188,000	n.a.

자료: <http://faostat.fao.org>.

바나나는 2002년부터 110ha에서 수확하고 있으며, ha당 3톤을 생산하여 330톤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다. 솔로몬군도의 바나나는 수출품목이 아니어서 생산된 바나나의 전량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표 6-12. 바나나

구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확면적 (ha)	100	10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n.a.
단수 (kg/ha)	2,9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산량 (톤)	290	30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n.a.

자료: <http://faostat.fao.org>.

카사바는 2002년부터 10ha 증가한 150ha에서 수확하고 있으며 단수가 ha당 16.7톤 수준으로 생산량은 약 2,500톤이다.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전량 소비되며, 전분 형태로 가공하여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표 6-13. 카사바

구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확면적 (ha)	140	14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n.a.
단수 (kg/ha)	16,426	16,426	16,666	16,666	16,666	16,666	16,666	16,666	16,666	16,666
생산량 (톤)	2,300	2,3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n.a.

자료: <http://faostat.fao.org>.

3.3. 농촌

솔로몬군도의 인구 중 2009년 기준 약 82%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과 비교하면 약 2.6%가 감소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는 2009년 약 43만 명으로 2000년과 비교하면 8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표 6-14. 농촌 인구

구분	2000	2009
농촌인구	350,303	427,534
농촌인구 성장률(%)	2.48	2.03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84.3	81.7

자료: <http://faostat.fao.org>.

제 7 장

스리랑카

1. 일반 현황

인도 남쪽의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국토 면적이 약 6만 6,000km²로 남한보다 작다. 인구는 약 2,100만 명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최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민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 스리랑카 국가개황

국명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위치	인도 남부, 인도양 해상 도서국
면적	66천 km ² (한반도의 2/7)
기후	열대성
수도	콜롬보(Colombo)
인구	21.5백만 명(2010년)
민족	싱할리인(70%), 타밀인, 무어인

표 7-1. 스리랑카 국가개황(계속)

스리랑카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분리되어 1948년 독립하였다. 독립 후 타밀족과 실론족의 문제로 인하여 20년 이상 분쟁하였으며,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이다. 인종은 싱할리인이 70%로 주를 이루고, 타밀인, 무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민족선도연합(United National Front)이 정권을 쟁취하고 노르웨이의 중재로 타밀 일람 해방타이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와 정치적 휴전을 선언하면서 국가를 정상화시켰다. 하지만 장기간의 정치적 분쟁과 내전으로 국민들은 빈곤에 고통 받고 있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외국인 투자가 불안하며 지방정부의 구조적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2004년 쓰나미 재해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복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과거 30년 동안 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3년부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경제 현황

2.1. 주요 경제지표

스리랑카의 경제는 최근 약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열대성 기후대의 섬나라 특성상 수산물이 풍부하고 쌀, 차(tea), 코코넛 제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농업 중심의 구조이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차 생산단지의 사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던 국제항공사 및 보험회사, 통신회사, 주유회사 등을 경쟁구조로 탈바꿈하면서 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431달러에서 2010년 2,247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7-2. 주요 경제지표

명목 GDP	483억 달러
실질 경제 성장률	6.7%
1인당 GDP	2,247 달러
실업률	5.5%
소비자물가상승률	6.9%
환율	1USD ≒ 113.9LKR 1LKR ≒ 10.15KRW(2011년 기준)
교역규모	○ 수출: 73.96억 달러 ○ 수입: 110.23억 달러
주요 교역품	○ 수출: 섬유 및 섬유제품, 차(tea), 양념류, 고무, 보석가공 용 원석, 코코넛 제품, 어류 ○ 수입: 석유, 섬유, 기계 및 수송 장비, 건축자재, 광물, 식료품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스리랑카의 경제는 2000년 이전에는 농업과 의류 산업이 주요 소득원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로 높았지만, 2000년 이후는 통신 및 수송(항만 서비스 및 유통) 산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높은 공적부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투자가 미미한 이유는 국가 재정이 취약하고 정치적 분쟁이 지속되어 외국인 투자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섬유 및 섬유제품, 차, 양념류, 고무, 보석가공용 원석, 코코넛 제품, 수산물 등을 주로 수출하며, 석유, 기계 및 수송 장비, 건축자재, 광물,

식료품을 주로 수입하는 무역구조이다. 이 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 무역적자국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21%), 영국(13%),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며, 이 중 인도(21%), 중국(13.5%), 싱가포르(7.3%), 이란(7%)이며, 한국으로부터도 전체의 약 5.2%를 수입하고 있다.

표 7-3. 수출입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추정치
수출	총액	70.9억 달러	79.1억 달러
	주요 수출국	미국: 20.59%, 영국: 12.87%, 이탈리아: 5.51%, 독일: 5.29%, 인도: 4.54%, 벨기에: 4.43%	
수입	총액	91.9억 달러	116억 달러
	주요 수입국	인도: 20.73%, 중국: 13.45%, 싱가포르: 7.26%, 이란: 6.7%, 한국: 5.23%	

자료: www.cia.gov.

2.2. 인구 현황

스리랑카의 인구 2,030만 명(2009년 기준) 중 약 85%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중 약 31%(2007년 기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에 약 39%, 산업부문에 약 27% 종사하고 있다. 실업률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2%까지 낮아졌으나, 2009년 다시 7.6%로 증가하여 국제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인구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인구(만 명)	1,871	1,879	1,892	1,917	1,946	1,966	1,988	2,001	2,015	2,030
농촌인구 (총인구 중 %)	84.3	84.42	84.54	84.66	84.78	84.9	84.9	84.9	84.9	84.9
고용인구										
서비스분야 (총고용인구 중 %)			37.9	38.7	36.8	38.4	38.4	38.7		
산업분야 (총고용인구 중 %)			20.8	23.4	22.8	25.2	26.6	26.6		
농업분야 (총고용인구 중 %)			34.5	34.3	33.5	30.3	32.2	31.3		
실업률 (총노동 인구 중 %)	7.74	7.90	8.80	8.22	8.38	7.67	6.50	5.97	5.22	7.57

자료: <http://data.worldbank.org>.

2.3. 공적개발원조 수혜 현황

국제사회가 스리랑카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2001~2009년 평균으로 볼 때 연간 6억 5,000만 달러 정도이다. 이는 2001년 3억 4,000만 달러에서 2009년 7억 4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아래 표는 중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ODA수원 현황을 보여준다.

표 7-5. 중앙-남아시아 국가별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수원국	2001	2003	2005	2007	2009	평균
전체	아프가니스탄	404.6	1,590.7	2,817.9	3,964.6	6,235.3	2,936.1
한국		0.0	21.1	8.9	2.6	24.1	9.9
전체	아르메니아	211.6	253.8	170.3	350.1	527.6	287.2
한국		0.0	0.1	0.1	0.1	0.0	0.1

표 7-5. 중앙-남아시아 국가별 ODA 수원 현황(계속)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수원국	2001	2003	2005	2007	2009	평균
전체	아제르바이잔	229.5	300.7	216.5	225.3	232.3	241.1
한국		0.0	0.0	0.1	0.8	1.7	0.8
전체	방글라데시	1,043.7	1,392.2	1,317.7	1,514.6	1,226.9	1,344.0
한국		0.9	10.1	31.9	10.0	13.6	13.6
전체	부탄	60.5	77.3	90.1	89.8	125.4	87.0
한국		0.1	0.1	0.3	0.3	0.4	0.3
전체	그루지야	291.4	230.0	292.1	380.1	907.9	441.5
한국		0.0	0.0	0.0	0.2	0.0	0.0
전체	인도	1,731.4	726.6	1,867.5	1,390.9	2,502.2	1,583.0
한국		0.5	1.2	0.9	3.9	0.8	1.3
전체	카자흐스탄	156.7	278.5	228.0	204.2	297.9	235.8
한국		1.0	2.4	3.7	2.2	5.5	3.9
전체	키르기즈스탄	187.9	200.1	267.9	274.6	314.7	262.5
한국		0.1	0.6	0.4	0.2	0.7	0.5
전체	몰디브	24.8	23.2	75.8	37.4	33.3	38.0
한국		0.1	0.0	3.1	0.1	0.0	0.5
전체	미얀마	125.7	125.0	144.8	197.7	357.0	208.0
한국		0.4	6.6	8.1	0.5	2.0	4.5
전체	네팔	389.6	466.6	424.1	605.3	854.6	525.7
한국		1.6	1.5	1.8	5.0	18.1	4.3
전체	파키스탄	1,941.5	1,071.4	1,606.6	2,243.8	2,780.6	1,872.7
한국		4.4	1.0	3.7	3.3	2.0	2.4
전체	스리랑카	340.7	671.4	1,155.1	612.7	703.8	649.9
한국		10.9	17.2	33.2	33.3	15.5	18.8
전체	타지키스탄	165.3	148.1	251.5	222.1	408.9	238.3
한국		0.6	0.2	0.3	0.2	0.2	0.2
전체	투르크메니스탄	72.6	28.6	30.4	28.5	39.9	35.6
한국		0.0	0.0	0.0	0.0	0.2	0.0
전체	우즈베키스탄	153.9	194.6	169.7	169.8	190.3	183.3
한국		16.3	1.7	2.6	3.2	5.9	4.8

* 순지출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전체 중에서 스리랑카는 5위 정도의 원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꽤 높은 수원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7-6. 국제사회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평균(2001-2009년)
1	아프가니스탄	2,936.09
2	파키스탄	1,872.72
3	인도	1,583.00
4	방글라데시	1,344.02
5	스리랑카	649.94
6	네팔	525.67
7	그루지야	441.47
8	아르메니아	287.17
9	키르기즈스탄	262.51
10	아제르바이잔	241.13
11	타지키스탄	238.25
12	카자흐스탄	235.82
13	미얀마	207.99
14	우즈베키스탄	183.30
15	부탄	86.97
16	몰디브	37.99
17	투르크메니스탄	35.60

* 순지출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우리나라는 2001~2009년에 연간 평균 1,880만 달러를 스리랑카에 원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로 등장하였다.

표 7-7. 우리나라의 중앙-남아시아 원조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원국	우리나라 평균(2001-2009년)
1	스리랑카	18.80
2	방글라데시	13.58
3	아프가니스탄	9.91
4	우즈베키스탄	4.80
5	미얀마	4.52
6	네팔	4.28
7	카자흐스탄	3.88
8	파키스탄	2.42
9	인도	1.29
10	아제르바이잔	0.77
11	몰디브	0.45
12	키르기즈스탄	0.45
13	부탄	0.25
14	타지키스탄	0.23
15	아르메니아	0.08
16	그루지야	0.04
17	투르크메니스탄	0.04

* 순지출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국제사회로부터 스리랑카로 지원되는 ODA자금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총수원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하락하여 이전 수원수준(약 7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다자 원조로 약 46%, 양자 원조로 약 54%를 지원 받고 있다. 2005~2009년 기간의 상위 공여국으로는 일본, IDA, ADB, 유럽연합, 노르웨이, 미국 등이며, 우리나라는 13위로 연간 약 2,4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원조액은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 기타 사회분야, 생산분야, 부채탕감분야 등 기타 보건 및 인구, 행정비용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다.

표 7-8. 양자/다자 원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다자 원조	양자 원조	총액
2000	36.92	307.88	344.80
2001	76.72	397.01	473.73
2002	212.82	280.57	493.39
2003	501.33	351.76	853.09
2004	191.13	397.50	588.63
2005	325.70	1,006.81	1,332.51
2006	300.85	598.23	899.08
2007	291.69	353.69	645.38
2008	315.35	415.04	730.39
2009	330.32	392.82	723.14

* 약정액 기준

자료: <http://data.worldbank.org>.

표 7-9. 스리랑카 수원 현황-공여국 순위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순지출 총액
1	일본	155.65
2	IDA	113.28
3	ADB	111.81
4	유럽연합	58.60
5	노르웨이	51.66
6	미국	42.54
7	독일	39.0
8	캐나다	35.0
9	호주	33.69
10	스웨덴	29.34
11	덴마크	29.0
12	네덜란드	25.10
13	한국	23.73

* 2005-2009년 평균.

자료: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

표 7-10. 스리랑카 ODA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ODA 총액
부채탕감과 관련된 활동	39.11
행정비용	2.12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	334.11
교육	75.2
보건 및 인구	34.03
인도적 지원	284.3
다분야	45.05
기타 사회분야	271.68
생산분야	74.66
프로그램지원	31.47
미분야	2.53

* 2005-2009년 약정액 평균.

자료: <http://www.oecd.org>.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농업분야에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및 행정 관리 컨설팅, 농업 및 농지 개발, 농업용수개발지원, 기자재공여, 식량생산, 축산, 농업훈련, 농촌개발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농업분야에 지원한 ODA 예산은 2006년 420만 달러, 2007년 11만 2,000달러, 2008년 15만 달러, 2009년 4만 달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중 2006년 농업용수자원개발에 지원한 390만 달러를 제외하면 2006~2008년에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하였다.

표 7-11. 한국의 스리랑카 농업·농촌분야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 류	2006	2007	2008	2009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001	-	-	0.012
농업개발	0.010	0.034	0.078	0.017
농지개발	-	0.063	-	-
농업용수자원	3.900	-	-	-
농업관련기자재	-	-	-	-
식량생산	0.046	-	0.017	-
축산	-	-	0.045	-
농업관련교육/훈련	-	0.015	0.005	0.004
농업관련서비스	0.027	-	-	-
축산진료	0.110	-	-	-
농촌개발	0.103	-	-	0.003

* 2006-2009년 약정액 기준.

자료: <http://www.oecd.org>.

구체적인 사업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자원봉사 파견, 전문가 파견,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교육훈련이 지원되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형식의 무상지원은 2006년 KOICA를 통한 발라크체나이 지역에 자연재해를 대비한 빗물배수관건설이 유일하다. 기타 지원으로는 워크숍개최지원,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통한 긴급식량원조 등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2.4.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

스리랑카의 10개년 개발계획(10 Year Development Framework, 10YDF)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공평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0YDF에서는 민간부분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개발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촉진시켜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10YDF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이 중심정책이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은 전력 시설 확충, 고속도로 건설, 주요 항구 및 공항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역기반시설 구축으로 도농 간 접근성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YDF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10YDF에는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구축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중소 규모의 기업 및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스리랑카의 무역부문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경제 체제하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2011년까지 국가 채무부채를 5%로 낮추고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시경제 부문의 목표는 현재 GDP의 약 28%의 투자를 2011년 35%로 증가시키고, 재정부채를 현재 7.7%에서 2011년 4.8%로 감소시키며, 8.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2007-2016년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농업부문 4~5%, 산업부문 7.5~10.5%, 서비스부문을 8.0~11.5%로 설정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10YDF에서 설정한 성장률이 달성된다면 2016년 스리랑카의 일인당 소득은 3,96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DGs 세부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10YDF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55.5%를 투자하고, 은퇴연금 15.5%를 포함한 국민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25.2%, 교육 및 국민 보건 분야에 약 8%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투자의 재원은 50% 이상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30% 정도를 국제사회의 ODA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약 10%의 민간 투자를 포함한 20% 수준을 PPP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표 7-12. 투자분야별 투자액 비율

투자분야	비율(%)
- 사회기반시설	41.4
- 국민 생활환경 개선	25.2
은퇴연금	15.5
- 도시 개발	14.1
- 교육 및 보건	7.9

자료: Mahinda Chintana(2006).

3. 농업 현황

스리랑카의 농업은 국가 경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0% 이상의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17%로 과거 약 50% 이상이 농업에서 발생한 사실과 비교하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리랑카의 농업은 생산성이 낮아 농가 소득이 침체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새로운 고용창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기술보급체계의 부재, 관개시설의 부재 등 생산 측면의 기본체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농업은 농가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이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국가 식량안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최대 목표는 첫째,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부문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둘째,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셋째,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넷째,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며, 다섯째, 농업을 산업화시켜 고용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3.1. 농지제도

스리랑카의 농지제도는 국가토지이용정책(National Land Use Policy)에 따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배분할 수 있다. 또한 불모지 등을 농업용지로 개간하여 농산물과 산림자원생산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농지에 대해서는 비옥한 토양의 품질 관리와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에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지의 사용권은 철저하게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

표 7-13. 국토의 구성

구 분	2000	2007	2008
국토면적(km ²)	64,630	64,30	64,630
농지(km ²)	23,500	23,600	n.a.
농지(국토면적 중 %)	36.4	36.5	n.a.
농경지(ha)	915,000	970,000	n.a.
1인당 농경지(ha)	0.049	0.048	n.a.
농경지(국토면적 중 %)	14.2	15.0	n.a.
곡물 재배면적(ha)	867,548	835,540	1,091,380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국토면적 중 %)	15.4	14.7	n.a.
산림(km ²)	20,820	18,734	n.a.
산림(국토면적 중 %)	32.2	29.0	n.a.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효과적인 농지 사용을 위해 윤작 및 복합영농을 추천하고 있다. 2007년 스리랑카 농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651만 ha에서 토지는 약 646만 ha로 이 중 농업용지는 236만 ha이다. 농지는 2006년 235만 ha와 비교하여 약 1만 ha가 증가하였다. 농지 중 경작가능 면적은 약 97만 ha(2006년 약 92만 ha)로 대부분의 농지에서 곡물 또는 시리얼 작물이 약 84만 ha에서 생산되고 있다.

3.2. 인구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고용인구 가운데 31.3% 정도로, 이는 2001년의 24.2%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표 7-14. 농업분야 고용인구

구 분	2001	2007
농업분야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중(%)	24.2	31.3

자료: <http://data.worldbank.org>.

3.3. 농업생산

스리랑카에서는 쌀이 생산량으로나 생산액으로나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그 뒤를 차와 코코넛, 닭고기 등이 잇고 있다.

표 7-15. 농산물 생산액 및 생산량

순위	품목	생산액(1,000달러)	생산량(MT)
1	쌀(조곡)	802,185	3,875,000
2	차(Tea)	344,995	318,700
3	코코넛	199,944	2,210,800
4	채래종 닭고기	118,867	101,857
5	플랜테인	117,541	529,920
6	후추	105,553	22,870
7	천연고무	69,321	129,240
8	채래종 쇠고기	46,086	22,282
9	계란	45,411	58,960
10	우유(원액)	38,731	145,640
11	계피	23,322	13,430
12	토마토	20,067	84,700
13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19,216	78,920
14	녹두	18,668	42,560
15	칠리, 고추	17,603	51,010
16	호박, 스쿼시, 박	17,109	97,090
17	가지	16,753	104,160
18	사탕수수	16,604	799,450
19	건조양파	16,062	106,660
20	물소 우유	15,037	30,105

* 2008년 기준.

자료: <http://faostat.fao.org>.

곡물과 식품의 생산지수는 2000~2007년에 약간 증가하였다. 곡물 생산성은 ha당 3.7톤 정도로, 생산량 확대를 위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7-16. 농산물 생산지수

구 분	2000	2007	2008
곡물생산지수(1999-2001 = 100)	102	106	n.a.
식품생산지수(1999-2001 = 100)	101	109	n.a.
축산물 생산지수(1999-2001 =100)	99	118	n.a.
곡물 생산성(ha당 kg)	3,338.1	3,821.6	3,659.8

자료: <http://data.worldbank.org>.

스리랑카 쌀 산업이 전체 농업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스리랑카 최대의 농산업이다. 약 80만 농가가 쌀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속한다. 1989년부터 쌀 경작지는 약 73만 ha에 정체하고 있어 재배면적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리랑카의 쌀 재배면적은 마하(maha)¹³ 시즌에는 약 77%(56만 ha), 알라(yala) 시즌에는 약 42%(31만 ha)만 경작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의 단위수확량은 1995년 3.5톤/ha에서 2010년 3.6톤/ha로 미미하게 증가하여 생산성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개수로가 정비된 지역의 단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관개수로 정비가 쌀 생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스리랑카 쌀 단수는 농업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고수확 품종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면 대폭 증가할

¹³ 스리랑카는 길이가 350km, 너비가 180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나라지만 다양한 지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기후를 나타낸다.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로 일년 내내 기온이 일정하다. 평균 기온은 27도로 최고기온이 31도, 최저기온이 26도이다. 해안지방과 낮은 지역은 전형적인 열대지방의 기후를 보이지만 누와라엘리아(해발 1,890m)와 같은 섬 중앙의 고원과 산악지대는 연중 기온이 섭씨 16도로 항상 봄, 가을과 같아 생활하기에 아주 적당하다. 스리랑카 전체는 열대성 몬순기후에 속하며 적도 부근에서 불어오는 남서 계절풍 기간(알라시즌 - 5~9월)에는 남부, 서부, 중부 지역에 비를 뿌리고 벵골만에서 불어오는 북동 계절풍 기간(마하시즌 - 10~1월)에는 북, 동부 지역에 비를 뿌리지만 강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소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밀과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화가 진전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는 추세가 스리랑카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스리랑카에서 밀은 쌀 및 기타 곡물과 비교하여 가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구화되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쌀 이외에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차와 코코넛으로, 2008년 기준 각 32만 톤과 220만 톤이 생산되었다. 차와 코코넛은 주요 수출농산품으로 스리랑카 농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7-17. 스리랑카 쌀 생산 현황(정곡 기준)

구분	2008	2009	2010
재배면적(천 ha)	763	939	900
연초재고량(천 MT)	60	45	45
생산량(정곡, 천 MT)	2,227	2,663	2,594
생산량(조곡, 천 MT)	3,275	3,916	3,815
도정률(%)	68	68	68
수입(천 MT)	30	100	40
총공급량(천 MT)	2,397	2,738	2,679
소비량(천 MT)	2,352	2,700	2,640
연말재고량(천 MT)	45	38	39
단수(조곡기준)	4.	4.	4.2389

자료: <http://gain.fas.usda.gov>.

3.3.1. 쌀

가. 쌀 산업의 주요 과제

스리랑카 정부가 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당면한 과제는 쌀이 주식인 기타 개도국과 비슷하며, 근본적으로 자급률 향상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의 쌀 산업 진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반구축이 미비하고 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생산현장과 시장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스리랑카의 쌀 산업의 당면과제 및 정부의 쌀 산업 진흥 정책 분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률 향상: 소비증대 정책 시행 → 밀 소비 감소 → 소비 증가 → 쌀 생산증대 → 쌀 수입 감소 → 외화절약
- 기술개발 및 적용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 친환경 농업개발
- 기술보급체계 구축
- 안정적 농업용수 보급체계 구축
- 관개수로 정비체계 구축
- 투입재의 저가격, 안정적 공급을 통한 소득 증가
- 수확 후 가공 처리 시설 구축
- 쌀 유통체계 구축
- 영농조직 구축

위의 과제는 모든 농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기술 개발 및 보급, 관개수로 시스템구축 등을 포함해 효율적인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스리랑카 정부는 안정적인 정부 미곡정책을 추진하여 수확 후 건조·가공 분야, 유통체계, 쌀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가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인 쌀 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나. 정부 미곡 정책 방향

스리랑카 정부는 고품질의 쌀 생산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틈새 시장공략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미곡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00% 자급률 성취,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 밀 소비 감소, 수확 후 처리 시설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축,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산업화 체계 구축, 농약 사용량 감소
- 추진 정책 방향: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체계 구축, 신품종 개발 및 생산 체계 구축,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재정지원 체계 구축
-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체계는 품종개선, 토지 생산성 개선, 식량관리 체계 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량 증대,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또한 쌀 생산에 있어 고품질의 품종을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자체적으로 재래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20%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의 신품종 생산량은 약 5%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보급 및 실질적인 생산과정에서의 지도 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3.2. 차

스리랑카의 차는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일본, 이라크, 이란, 독일, 호주, 중국(홍콩) 등으로 고품질의 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차 제품은 세계 2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고, 2008년 기준 약 9만 1,000톤을 수출하여 2억 7,500만 달러 수준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이 중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이 최대 수출국이며, 수출량으로는 이란이 최대 수출국이다.

표 7-18. 차 수출량 및 수출액

국가	수출량(tonnes)	수출액(\$1,000)
호주	3,247	27,252
아제르바이잔	2,725	12,888
벨라루스	872	5,799
벨기에	108	1,038
불가리아	113	538
카메룬	104	307
캐나다	1,189	6,635
칠레	6,972	20,769
중국	2,502	8,995
중국(홍콩)	4,986	16,880
이집트	1,268	4,555
프랑스	1,214	6,212
독일	6,289	27,097
가나	680	3,455
그리스	2,276	7,390
이란	32,111	32,111
이라크	11,508	40,622
이스라엘	2,019	8,491
일본	10,730	44,071

* 2008년 기준.

자료: <http://faostat.fao.org>.

3.3.3. 밀

스리랑카는 밀을 생산하지 않아 밀 소비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최근 소득증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스리랑카에서의 밀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량이 2008년 약 93만 톤이었으나 2010년 약 17만 톤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량이 110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밀과 관련된 제품의 소비증가추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스리랑카 밀 소비는 증가추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4. 농업자재

2007년 스리랑카의 트랙터 보급수는 약 2만 1,500대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3,850대가 증가하여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작지 100km²당 트랙터의 수가 2007년 약 222대로 2000년 193대와 비교하여 약 29대가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100km²당 4대 정도 증가한 것이다.

표 7-19. 농기계 및 비료 현황

구 분	2000	2002	2005	2007
농기계, 트랙터	17,650	18,055	20,800	21,500
농경지 100km ² 당 트랙터	192.9	n.a.	n.a.	221.6
비료 소비량(MT)	246,965	285,071	281,303	n.a.
비료 소비량(농경지 ha당 kg)	n.a.	304.6	281.0	299.3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비료는 2005년 약 28만 톤이 소비되었는데 2000년 25만 톤의 소비량과 비교하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2년 28.5만 톤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비료 소비량을 단위(ha)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002년 305kg에서 2005년 281kg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농촌

스리랑카 인구 중 약 8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국민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기준 약 1,724만 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다.

표 7-20. 농촌 인구

구 분	2000	2009
농촌 인구	15,775,658	17,237,652
농촌인구 연간 증가율(%)	0.71467	0.728
농촌인구(총인구 중 %)	84.3	84.9

자료: <http://data.worldbank.org>.

농업부문의 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362만 명에서 2008년 390만 명으로 약 2만 8,000명이 증가하여 농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부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4.2%에서 2002년 34.5%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31.3%에 그치고 있다.

농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식용수 접근성은 2000년 약 77%에서 2005년 84%, 2008년 88%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8 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10~2011년 국별협력전략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중점협력국 가운데 농업분야 국별협력전략 수립에서 제외되는 6개 국가와의 향후 농업협력 사업의 추진 및 농업분야 지원전략 수립에 대비하여 농업 및 농촌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나라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방글라데시는 가뭄과 홍수 등 재해관리와 대처가 농업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및 경제개발정책과 계획에서 핵심과제이다. 2005년 1억 5,30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1억 8,500만 명, 2050년 2억 2,2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농지에 대한 인구 압박 요인이 크다.

농업부문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0% 이하로 감소한 이래 큰 변화가 없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49.6%에 달하며 이를 2009년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약 8,000만 명이나 된다. GNI에서 ODA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2%이다. 농촌인구 1인당 농업 ODA 규모는 0.9달러에 불과하다.

방글라데시는 2008년 발표한 ‘전진: 가속적 빈곤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통해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① 빈곤계층의 성장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 ②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활력 제공, ③ 필수 인프라의 건설, ④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⑤ 인적 개발의 집약화 등 다섯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주 농산물인 벼를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과 고원지역에서 다양한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해안에서는 영세한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는 790만 ha 인데 이는 국민 1인당 0.05ha에 불과한 작은 면적이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8년에 3,556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ha당 곡물 생산량은 2000~2009년에 15% 늘고 농업 생산자당 부가가치는 2000년 336달러에서 2009년 435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오히려 2000년의 25.2%에서 2009년 18.7%로 위축되었다. 일반적인 빈곤국가와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농촌도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있어서 2009년 기준 전체 인구의 72.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빈곤층의 85%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감소가 시급한 과제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 농촌개발 전략으로는 ‘국가식량정책(National Food Policy, NFP)’(2006), 이것의 실행계획서인 ‘국가식량정책 실행계획, 2008~2015(National Food Policy Plan of Action, 2008~2015)’, ‘방글라데시 국가투자계획: 농업, 식량안보, 영양 분야 투자를 위한 로드맵(Bangladesh Country Investment Plan: A Road Map Towards Investment in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의 회원국으로 천연 및 유전 자원이 풍부하며 광활한 토지를 보유한 나라이다. 구소련으로부터 1991년에 분리 독립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점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강도 높은 경제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 기업의 사유화가 부진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차 상품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자국의 공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1차 산업 중에서 특히 농업은 2007년 GDP의 21.7%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28%를 고용하고 있

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산업이다.

전체 토지규모 중 농지가 약 50%인 2,226만 ha, 경작 가능면적이 9%인 405만 ha이다. 농업부문 경제활동 인구는 2008년 약 275만 명이며, 총인구 중 농촌 인구의 비중은 약 63%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작물은 밀과 면화이다. 면화는 원면과 가공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원료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주식인 밀은 식량자급을 위하여 중요한 작물로, 대부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된다.

정부는 정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통해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적인 형태로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수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밀은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 중 약 90%를 차지하는 138만 ha에서 재배된다.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작물로 생산량은 미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다음의 세계 5위이며 수출량은 세계 2위이다. 인구의 약 60%가 면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총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잠정 후생개선전략보고서(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I-WIS) 중 농업·농촌부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성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면화 및 밀 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촌부문에서는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으로 농촌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깨끗한 식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위생시설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0.6%, 천연가스는 0.8%를 차지하여 중동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카스피 해 지역에서 중요한 산유국으로 등장하였다. 2005년 BTC 송유관(Baku-Tbilisi-Ceyhan pipeline)이 완성되면서 석유, 가스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빈곤감소 프로그램은 ‘빈곤감소와 경제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2003~2005(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PPRED)’와, 연이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2006~15(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PPRSD)’로 대표된다. 이들 계획이 표방하는 개발목표는 거시경제적 안정의 유지,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개선, 인프라 개선,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강화 등이다.

1996년 시작된 농지개혁을 통해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이 해체되어 농지가 농민에게 배분되고 소규모 자작농이 대거 형성되었다. 현재는 농산물 생산량의 99%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 농업부문 종사인구는 2007년 기준 전체 고용인구의 38.7%를 차지한다. 아직도 농업부문은 석유산업,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GDP를 생산하고(2009년 7.1%), 두 번째로 큰 수출산업이자 최대의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은 9개의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 생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ha당 곡물 생산량은 점차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2.6~2.7톤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아제르바이잔 농업부문 개발 국가계획 2002~2006(State Program of Development of Agrarian Sector in Azerbaijan)’, ‘제1차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2004~2008)(State Program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 농업은 개발 우선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농업부문 국가계획(2008-2015)(State Program for Agriculture)’은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역의 증대를 위해서도 농업을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개망의 재건, 식품가공 업체의 육성, 육류와 유가공예의 민간부문의 진입 확대, 금융자원의 확대, 연구센터의 설치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World Bank, 2010). 아제르바이잔의 농업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행정적 장애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농업부와 같은 정부 정책기구가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와 은, 주석, 리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국제기업과 정권과의 국유화, 민영화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인구의 67%는 빈곤선 이하이고, 38%는 극빈층에 속하며, 농촌에는 빈곤선 이하 인구가 84%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자료에 의하면 34%의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 절반의 인구는 인디오 계통에 속하는데 인디오의 58% 정도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며, 비인디오계 주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천연가스와 광물의 수출 호조와 해외송금 수취에 의한 소비증가로 경제성장률은 2008년엔 6.1%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국제적 경제위기,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별 GDP 구성에서는 농업이 11%, 제조업이 37%, 서비스업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은 장기적으로 감소, 제조업은 증가추세에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볼리비아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거부하고 이른바 ‘경제사회 공동체적, 생산적 모델(Economic, Social, Communitarian and Productive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탄화수소, 광업, 전기업, 기타 환경자원 분야를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부문으로 설정하고, 여기서의 잉여를 공업, 제조업, 관광, 농업 등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분야로 재분배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에는 빈곤경감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생산적인(productive) 볼리비아, 위엄 있는(dignified) 볼리비아, 자주적인(sovvereign) 볼리비아, 민주적이고 참여하는(democratic and participative) 볼리비아라고 하는 네 가지를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15년까지 빈곤선 이하 인구를 22%까지로 떨어트려 MDGs의 하나인 빈곤인구 감소를 달성하려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이다.

볼리비아의 농촌인구는 2009년 334만 9,000명 가량이며 전체 인구의 34% 정도이다. 빈곤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2009년까지도 총인구의 58.3%에 이르고 농촌지역은 이보다 심하여 7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위치하여 약 1,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인구는 2010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61만 명이다. 과달카날계 부족과 말라이타계 부족 간의 분쟁이 악화되어 내전 발발의 일촉즉발 위기까지 도달하였지만 2000년 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4년 37%, 서비스부문은 51.6%로, 이 두 부문에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주요 자원 중의 하나인 목재의 과대 벌목으로 인해 산림 재건이 절실한 상황이다. 솔로몬군도의 수산업은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관광산업 또한 솔로몬군도의 전망이 밝은 산업이다.

2011~2015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은 ‘새롭고 단합된 역동적인 솔로몬군도 건설’을 위하여 1) 사회·경제활동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개선, 2) 인구 증가율 조정 및 가족계획 구체화, 3)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선정하였다.

ODA 총수원액은 2000년 약 6,800만 달러에서 2003년 평화협정을 계기로 2009년 2억 6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이 주 공여국이다. 산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솔로몬군도의 농지면적은 약 840km²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작이 가능한 농지는 약 1만 6,000ha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협소한 농지규모로 인해 곡물을 대량 생산하거나 토지가 대량으로 필요한 축산업 및 사료작물 생산은 어렵다.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된 이래 타밀족과 실론족의 문제로 분쟁을 경험하였다. 2001년 적대세력과의 정치적 휴전으로 국가가 정상화되었으나 장기간의 정치적 분쟁과 내전으로 국민들은 빈곤을 겪고 있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외국인 투자가 불안하며 지방정부의 구조적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2004년 쓰나미 재해로 많은 국토가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복구 중이다. 스리랑카의 인구 2,030만

명 중 약 85%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중 약 31%(2007년 기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스리랑카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연간 6억 5,000만 달러 정도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전체 중에서 스리랑카는 5위 정도의 원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꽤 높은 수원규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2009년에 스리랑카에 평균 1,880만 달러를 해마다 원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이다.

스리랑카는 10개년 개발계획(10 Year Development Framework, 10YDF)을 통하여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공평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 지방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10YDF에는 민간부분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개발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촉진시켜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10YDF에서 설정한 성장률이 달성된다면 2016년 1인당 소득은 3,960달러가 되며, MDGs 세부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17%이다. 2007년 농업용지는 236만 ha, 경작가능 면적은 약 97만 ha이다. 쌀이 생산량으로나 생산액으로나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쌀은 전체 농업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스리랑카 최대의 농산업이다. 스리랑카 정부의 쌀 산업 진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반구축이 미비하고 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생산현장과 시장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스리랑카 정부는 고품질의 쌀 생산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틈새시장공략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미곡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록 1

농업분야 국별지원전략 수립 대상국 선정기준

- 대상국 선정을 위해 평가요소는 수원수요, 발전가능성, 양자관계, 원조의 일관성으로 분류하고, 요소별로 일반수요 및 농업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지표를 설정
 - * 지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농경연 연구자료, 2010) 제4장을 참고

부표 1-1. CPSA 수립국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 및 지표

요 소		지 표
수원 수요	일반수요	PPP기준 국민소득, 총수원액
	농업부문	영양실조 비율, 식량수입 비중, 칼로리 결핍량, 농업생산성, 비료사용량
발전가능성	일반 발전 가능성	평균경제성장률, 반부패지수, 정부효율성지수
	농업부문	곡물생산증가율, GDP 중 농업비중, 1인당 경작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평균 강수량
양자관계	잠재력	인구규모, 경제규모
	현재관계	총수입액, 총수출액
원조 일관성		중점협력국 여부

- 설정된 지표들을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 계량화된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2010년~2011년 CPS 수립 국가 중 CPSA 수립 국가를 선정

부표 1-2. 요소 및 세부요소별 가중치

요소	요소별 가중치	세부요소	세부요소별 가중치
수원 수요	25%	일반수요	1/3
		농업부문	2/3
발전가능성	25%	일반부문	1/3
		농업부문	2/3
양자관계	25%	잠재력	1/2
		현재관계	1/2
원조 일관성	25%		

부록 2

방글라데시 각종 통계자료¹⁴

부표 2-1. 농지 등 면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지(km ²)	90,840	90,850	90,290	90,190	90,250	90,430	90,210	90,080	93,000	n.a.	n.a.
농지(국토면적 중 %)	69.8	69.8	69.4	69.3	69.3	69.5	69.3	69.2	71.4	n.a.	n.a.
농경지(ha)	8,064,000	8,025,000	7,969,000	7,949,000	7,925,000	7,663,000	7,651,000	7,578,000	7,900,000	n.a.	n.a.
농경지(1인당 ha)	0.057	0.056	0.055	0.054	0.053	0.05	0.05	0.05	0.05	n.a.	n.a.
농경지(국토면적 중 %)	62	61.7	61.2	61.1	60.9	58.9	58.8	58.2	60.7	n.a.	n.a.
곡물 생산면적(ha)	11,672,247	11,485,595	11,588,093	11,500,907	10,978,274	11,176,338	11,182,620	11,303,067	12,363,398	12,032,530	n.a.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 (국토면적 중 %)	3.2	3.5	3.5	3.6	3.8	6	5.9	6.4	6.1	n.a.	n.a.
산림(km ²)	14,680	n.a.	n.a.	n.a.	n.a.	14,550	n.a.	n.a.	n.a.	n.a.	14,420
산림(국토면적 중 %)	11.3	n.a.	n.a.	n.a.	n.a.	11.2	n.a.	n.a.	n.a.	n.a.	11.1
관개농지(총농지 중 %)	n.a.	n.a.	50.1	54.7	55.8	62	n.a.	n.a.	n.a.	n.a.	n.a.
국토면적(km ²)	130,170	130,170	130,170	130,170	130,170	130,170	130,170	130,170	130,170	130,170	n.a.

¹⁴ 표에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이 자료의 출처임: <http://data.worldbank.org/country/bangladesh>

부표 2-2. 농업인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부문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중 %)	62.1	n.a.	n.a.	51.7	n.a.	48.1	n.a.	n.a.	n.a.	n.a.
농촌인구(명)	107,545,919	108,870,662	110,164,438	111,418,600	112,622,653	113,769,675	114,762,853	115,695,692	116,576,093	117,415,388
농촌인구 성장률 (연간 %)	1.3	1.2	1.2	1.1	1.1	1	0.9	0.8	0.8	0.7
농촌인구 (총인구 중 %)	76.4	76	75.6	75.1	74.7	74.3	73.8	73.3	72.9	72.4

부표 2-3. 농업생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3	100	102	105	102	115	118	124	134	130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2	100	103	106	104	117	119	126	136	132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0	102	107	112	116	124	128	133	139	137
곡물 생산량 (1ha 당 kg)	3,384.3	3,311	3,394.9	3,479.3	3,439.4	3,681.5	3,760.1	3,955.6	3,971.6	3,890.4
농업 노동자 1인당 농업 부가가치 (2000 불변, 달러)	336.6	343.9	341.3	349.7	362.3	368.9	386.2	405.1	417.8	435.2
농업 부가가치(GDP 중 %)	25.5	24.1	22.7	21.8	21	20.1	19.6	19.2	19	18.7

부표 2-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원료 수입 (총수입물품 중 %)	6.1	6.4	5.6	7.5	8.5	7.3	7	7.8
농업원료 수출 (총수출물품 중 %)	1.4	1	1	0.9	1.3	1.7	1.6	3.1

부표 2-5. 농업자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기계 - 트랙터(대)	1,000	900	800	700	450	1,555	3,000	n.a.	n.a.
농기계 - 트랙터 (농경지 100km ² 당 대)	1.2	1.1	1	0.9	0.6	2	3.9	n.a.	n.a.
비료 소비량 (비료 생산량 대비 %)	n.a.	n.a.	121.2	130.4	140.6	164.7	172.1	156.5	141.1
비료 소비량 (농경지 1ha당 kg)	n.a.	n.a.	195.4	165.9	175.4	204.1	199	190.2	164.5

부표 2-6. 농촌생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촌 개선된 수원지 (점근이 가능한 농촌인구 %)	77	n.a.	n.a.	n.a.	n.a.	78	n.a.	n.a.	78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갭(%)	13.7	n.a.	n.a.	n.a.	n.a.	9.8	n.a.	n.a.	n.a.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인구 비 (총농촌인구 중 %)	52.3	n.a.	n.a.	n.a.	n.a.	43.8	n.a.	n.a.	n.a.

부표 2-7. 인구 및 고용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인구(백만 명 기준)	140.77	143.29	145.80	148.28	150.73	153.12	155.46	157.75	160.00	162.22
여성(총인구 중 %)	49.35	49.37	49.38	49.39	49.39	49.40	49.41	49.41	49.42	49.43
- 농촌인구(총인구 중 %)	76.4	75.98	75.56	75.14	74.72	74.3	73.82	73.34	72.86	72.38
- 농촌인구 성장률(연간 %)	1.32	1.22	1.18	1.13	1.07	1.01	0.87	0.81	0.76	0.72
- 도시인구(총인구 중 %)	23.6	24.02	24.44	24.86	25.28	25.7	26.18	26.66	27.14	27.62
- 도시인구 성장률(연간 %)	3.44	3.54	3.47	3.39	3.31	3.22	3.37	3.28	3.20	3.13

부표 2-7. 인구 및 고용 현황(계속)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노동력										
노동인구(백만 명 기준)	62.79	64.63	66.47	68.32	70.07	71.83	73.48	75.13	76.77	78.62
여성 노동인구(총노동인구 중 %)	38.32	38.78	39.09	39.39	39.68	39.97	40.31	40.59	40.93	41.16
고용인구 1인당 GDP(constant 1990 PPP \$)	2,827	2,903	2,958	3,044	3,192	3,308	3,446	3,587	3,722	
15세 이상 고용인구(총인구 중 %)	68.1	68.3	68.4	67.9	67.9	68.1	68.2	67.8	67.9	
15세 이상 여성고용인구(%)	52.7	53.2	53.7	53.4	53.3	53	53.3	53.6	53.9	
15세 이상 노동참여율(총인구 중 %)	70.6	70.7	70.8	70.9	70.9	70.9	70.8	70.7	70.6	70.7
15세 이상 여성의 노동참여율(총인구 중 %)	54.7	55.4	55.9	56.4	56.8	57.2	57.6	57.9	58.3	58.7
고용인구										
서비스분야(총고용인구 중 %)	23.5	-	-	34.6	-	37.4	-	-	-	-
산업분야(총고용인구 중 %)	10.3	-	-	13.7	-	14.5	-	-	-	-
농업분야(총고용인구 중 %)	62.1	-	-	51.7	-	48.1	-	-	-	-
농업분야 여성고용인구(여성고용인구 중 %)	76.9	-	-	58.6	-	68.1	-	-	-	-
농업분야 남성고용인구(남성고용인구 중 %)	53.3	-	-	49.8	-	41.8	-	-	-	-
실업률(총노동인구 중 %)	3.27	-	-	4.32	-	4.25	-	-	-	-
여성 실업률(여성노동인구 중 %)	3.32	-	-	4.85	-	7.03	-	-	-	-
남성 실업률(남성노동인구 중 %)	3.24	-	-	4.17	-	3.35	-	-	-	-

부표 2-8.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방글라데시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기준 연도 1990/91	중간 보고서 2007년	현재 상황	2015년까 지 목표	달성 정도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목표 부분달성				
세부목표1.A: 2015년까지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 반감	1.1 국가 빈곤선 (2122kcal) 이하의 인구비율(%)	56.6	40.0 (2005)	40.0 (2005)	29.0	순조롭게 진행
	1.2 빈곤격차율	17.0	9.0 (2005)	9.0 (2005)	8.0	순조롭게 진행
	1.3 전국 소비량 최 저 20%의 인구 비율(%)	6.5	5.3 (2005)	5.3 (2005)	n.a.	
세부목표1.B: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	1.5 대상인구 대비 고용인구 비율	48.5	-	58.5 (2006)	전체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세부목표1.C: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비율 반감	1.8 5세 이하 저체중아동 비율(%)	66.0	47.5 (2004)	46.3 (2007)	33.0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1.9 최소 필수영 양분 섭취 미만의 인구 비율(%)	28.0	19.5 (2005)	19.5 (2005)	14.0	근처 까지는 달성가능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목표 부분달성				
세 부 목 표 2 . A :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 육 전 과정을 이 수할 수 있도록 함	2.1 초등교육 등록률(%)	60.5	87.2 (2005)	97.1 (2007, MOPME) (67%,2005 HIES)	100.0	순조롭게 진행 (MOPME 자료에 따라)
	2.2 1학년에 시작 하여 5학년까지 이 수한 학생비율(%)	40.7	49.5 (2007)	52.0 (2007)	100.0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2.3 15세 이상 성인문해율(%)	37.2	54.0 (2006)	56.3 (2007)	-	-
	15-24세 성인 문해율(여성)(%)	-	-	69.9 (2006)	-	-

부표 2-8.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계속)

방글라데시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기준 연도 1990/91	중간 보고서 2007년	현재 상황	2015년 까지 목표	달성 정도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목표 거의 달성				
세부목표3.A: 2005년까지 는 초등 및 중등교육에 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함.	3.1a 초등교육 성비(여성/남성)	0.83	1.1 (2005)	1.08 (2007)	1.0	순조롭게 진행, 그러나 지역에 따라 편차 있음
	3.1b 중등교육 성비(여성/남성)	0.52	1.0 (2005)	1.08 (2006)	1.0	순조롭게 진행, 그러나 지역에 따라 편차 있음
	3.1c 고등교육 성비(여성/남성)	0.37	0.56 (2005)	0.61 (2006)	1.0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3.2 비농업분야 여성 고용률(%)	19.1	-	14.6 (2005)	50.0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3.3 여성의 의회 진출률 (여성 국회의석 점유율)(%)	12.7	-	18.6 (2009)	33.0	판단 어려움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목표 달성 가능				
세부목표4.A: 2015년까지 5세 미만 유아사망률 2/3 감소	4.1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146	88 (2004)	65 (2007)	48	순조롭게 진행
	4.2 1,000명당 영아사망률	92	65 (2004)	52 (2007)	31.00	순조롭게 진행
	4.3 예방접종, 홍역예방 (12개월 미만 영아 중 %)	54.0	70.3 (2004)	77.2 (2007)	100.0	순조롭게 진행
목표5: 모성보건 증진		목표달성 불가능				
세부목표5.A: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 3/4 감소	5.1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산모사망률	574	320 (2001)	-	143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5.2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전체 중 %)	9.5	13.4 (2004)	18.0 (2007)	50.0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세부목표5.B: 2015년까지 출산관련 보건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함.	5.3 피임법 보급률	39.9	58.1 (2004)	59.0 (2007)	-	-
	5.4 청소년 출산률, 여성 1,000명당	140	135 (2004)	126 (2007)	-	-
	5.5a 산전관리 서비스 보 급률(최소 1회 방문)(%)	27.5 (1993)	55.9 (2004)	60.3 (2007)	100.0	근접달성
	5.5b 산전 관리 서비스 보 급률(최소 4번 방문)(%)	5.5 (1993)	15.9 (2004)	20.6 (2007)	100	2015년까지 달성 어려움
	5.6 가족계획 수요 미충족 률(임신을 늦추거나 피하 려는 의지)(%)	19.4 (1993)	11.3 (2004)	17.1 (2007)	-	-

부표 2-8.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계속)

방글라데시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기준 연도 1990/91	중간 보고서 2007년	현재 상황	2015년 까지 목표	달성 정도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목표 대체로 달성가능				
세부목표6.A: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저지 및 감소세로 전환시킴	6.1 HIV 발병률 (10만 명당)	0.005	-	0.319 (2007)	중단	순조롭게 진행
	6.2 콘돔 사용률(%)	3.0	4.2 (2004)	4.5 (2007)	지표 없음	사용률 저조
	6.3 15-24세 HIV/AIDS에 대한 종합적이고 올바른 지식을 가진 인구비율	-	-	22 (2006)	-	인식 낮음
세부목표6.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세로 전환시킴	6.6a 말라리아 발병률(10만 명당)	43 (2000)	34 (2005)	59 (2008)	중단	순조롭게 진행
	6.6b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 (10만 명당)	0.37 (2000)	0.35 (2005)	0.11 (2008)	중단	순조롭게 진행
	6.7 살충처리된 모기장안에서 잠을 자는 5세미만의 아동비율(13말라리 아감염지역)(%)	-	-	89 (2008)	-	자료 불충분
	6.9a 인구 10만 명당 결핵(TB) 발병자 수	264 (1990)	406 (2005)	225 (2007)	중단	순조롭게 진행
	6.9b 10만 명당 결핵(TB)로 인한 사망률	76 (1990)	47 (2005)	45 (2007)	반감	순조롭게 진행
	6.10a 단기 복약확인 치료법(DOTS)을 통한 결핵(TB) 조기 퇴치율(%)	21 (1994)	46 (2004)	72 (2008)	지속	순조롭게 진행
	6.10b 단기복약확인 치료법(DOTS)을 통한 치료율(%)	73 (1994)	85 (2004)	92 (2008)	지속	순조롭게 진행

부표 2-8.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계속)

방글라데시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기준 연도 1990/91	중간 보고서 2007년	현재 상황	2015년 까지 목표	달성 정도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자료 불충분					
세부목표7.A: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결합시키고 환경자원의 손실 복원						
세부목표7.B: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히 저하시킴	7.1 산림면적 비율(녹지율)(%)	9.0	-	19.2(2007))임목밀도 >10%	20 임목밀도 >70%	순조롭게 진행
	7.2 이산화탄소배출, 1인당 톤	0.14	0.3 (2006)	0.30 (2007)	-	자료 불충분
	7.3 오존파괴 CFC 소비량, 톤	195.0	196.2 (2006)	155 (2007)	0.0	순조롭게 진행
	7.4 안전한 생물학적 재생산 범위 안에 있는 어류자원 비율(%)	-	-	-	-	자료 불충분
	7.5 총수자원 중 사용량 비율(%)	-	-	6.6 (2000)	-	자료 불충분
	7.6 보호권 내에 있는 육지, 해양지역 비율 (%)	1.6	-	1.68 (2007)	5.0	2015년 까지 달성 어려움
	7.7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	-	-	-	-	자료 불충분
세부목표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7.8 개선된 식수사용 인구 비율(%)	-	-	85.2 (2008.MICS) 80.0 (2008.JMP)	89.0	순조롭게 진행
	7.9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	-	-	80 (2008.MICS) 53 (2008.JMP)	70.0	순조롭게 진행
세부목표7.D: 2020년까지 최소 1억명의 빈민가 거주자들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7.10 빈민가에 사는 도시인구 비율(%)	-	-	7.8 (2001)	-	자료 불충분

부표 2-8.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계속)

방글라데시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기준 연도 1990/91	중간 보고서 2007년	현재 상황	2015년 까지 목표	달성 정도	
목표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세부목표8.A: 보다 개방적이고 원칙에 기초한 운영,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발전						
세부목표8.B: 최빈국들의 특별한 필요(요구)에 부응						
세부목표8.C: 내륙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요구)에 부응						
세부목표8.D: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장기적으로 상환가능하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단을 통해 해결	8.1a 방글라데시 ODA 수원 순금액(백만 달러)	1240.0	-	1000 (2008-9)	-	-
	8.1b 방글라데시 ODA 수원 순금액, OECD/DAC 공여국의 GNI 비율 대비(%)	5.7	0.2 (2006)	0.2 (2006)	-	-
	8.2 기초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원가능한 양자 원조 총액 비율(%)	-	42 (2005)	42 (2005)	-	-
	8.3 OECD/DAC 공여국의 양자 간 비구속성 원조 비율(%)	-	82 (2005)	82 (2005)	-	-
	8.7 방글라데시의 농산물, 직물, 의류에 대한 선진국 평균관세(%)	-	12-16 (2006)	12-16 (2006)	-	-
	8.12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대한 채무 비율	11.0	4.1 (2005-06)	2.9 (2008-09)	-	-
	8.14 인구 100명당 일반 전화선	0.2	13.6 (2006)	0.92 (2008)	-	사용자 저조
세부목표8.F: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8.15 인구 100명당 핸드폰 가입자	-	-	30.8 (2008)	-	-
	8.16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0.0	0.2 (2006)	3.4 (2008)	-	사용자 저조

자료: World Bank(2010).

부표 2-9. ODA 수원 현황

국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25.33	1,370.1	1,480.27	1,171.73	1,043.72	906.1	1392	1,414	1,317.7	1220	1,514.6	2061	1,226.94
호주	14.2044	17.909	13.312	18.99	16.24	22.89	11.95	24.6	15.09	9.06	35.15	45.14	41.36
오스트리아	0.05667	0.24	1.218	0.53	1.38	1.39	1.84	1.15	2.75	0.6	0.65	0.66	0.58
벨기에	4.67571	3.667	3.05	-0.91	1.7	-2.07	1.26	-0.1	-0.32	-0.64	-0.43	3.61	-2.65
캐나다	52.515	81.688	64.642	38.46	30.29	30.87	38.42	48.92	50.75	56.74	60.24	82.06	52.45
덴마크	10.7988	28.801	40.75	33.67	41.81	37.33	45.27	45.67	50.36	44.05	41.96	47.2	47.41
핀란드	0.53375	5.031	5.6	0.63	0.5	0.61	0.71	0.67	0.98	0.81	1.17	1.39	1.22
프랑스	6.745	18.815	25.815	21.29	13.06	7.33	7.16	0.87	-1.79	-2.19	-0.87	-3.68	-3.61
독일	56.3688	68.327	73.826	36.68	30.09	30.04	32.37	25.2	46.07	29.14	43.06	65.89	67.3
그리스	-	-	0.055	0.05	-	-	0.5	0.1	0.03	0.07	0.41	0.35	0.21
아일랜드	0.038	0.12	0.71	1.15	0.59	1.59	1.29	1.77	1.58	2.22	6.16	3.19	2.34
이탈리아	0.52429	0.9	3.962	0.19	0.41	2.27	0.1	0.72	1.87	0.14	2.77	6.81	7.22
일본	67.2488	222.01	193.626	201.62	125.64	122.72	115.3	38.23	-1.01	-7.45	-6.59	41.13	14.09
한국	-	0.25	2.819	6.42	0.87	2.08	10.07	23.51	31.94	22.19	10	8.05	13.55
룩셈부르크	-	-	0.164	0.11	-	0.32	0.24	0.61	0.3	0.22	0.45	0.57	0.62
네덜란드	22.6433	55.921	59.095	32.63	43.23	44.31	57.45	65.23	60.68	67.45	99.45	84.74	70.35
뉴질랜드	0.97	0.106	0.236	0.68	0.53	0.6	0.74	1	0.92	0.67	1.69	1.08	1.31
노르웨이	10.54	28.63	37.122	18.38	20.58	16.61	12.15	23.94	32.91	21.41	39.83	23.2	14.64
포르투갈	-	-	-	-	-	-	-	-	-	-	-	-	-
스페인	-	0.06	0.20571	0.02	0.08	1.47	5.25	0.09	0.21	1.4	12.15	9.44	6.01

단위: 백만 달러

국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스웨덴	24.0975	22.443	29.512	31.85	28.38	14.95	35.06	26.63	23.89	38.38	11.79	38.11	46.43
스위스	4.36444	6.157	15.21	14.62	12.28	13.59	10.87	11.83	10.7	13.4	20.13	17.88	22.91
영국	34.825	60.856	86.625	103.36	124.47	101.82	260.5	252.7	203.27	139.1	245.57	252.5	250.08
미국	146.75	159.8	91.867	62.54	87.13	72.14	56.61	62.85	49.15	41.77	49.14	93.19	63.82
타이완	-	-	0.02	-	-	-	-	-	-	-	-	-	-
체코	-	-	-	0.13	0.17	0.02	0.16	0.22	0.01	0.07	0.17	0.01	0.08
헝가리	-	-	-	-	-	-	-	-	-	-	-	0.03	-
폴란드	-	-	0.02	0.01	0	0	0	-	0.01	0.02	0.3	0.07	0.05
슬로바키아	-	-	-	-	-	-	-	0.26	-	-	0.08	-	0.05
태국	-	-	-	-	-	-	-	-	-	0.11	0.07	0.29	0.4
터키	-	-	0.05	-	0.01	-	-	0.11	0.07	1.92	2.14	1.44	0.96
아랍에미리트	13.1567	2.318	-1.475	-0.61	0.76	0.47	-1.05	-1.09	-1.09	-1.09	-1.09	-1.09	-0.61
아랍연합	42.31	40.338	14.373	29.38	12.2	1.12	2.68	7.56	3.25	0.02	15.32	14.02	8.02
기타공여국	-	-	-	-	-	-	-	-	-	0.04	0.32	0.03	0.08
AsDF	22.246	125.85	252.605	197.99	126.55	93.15	96.08	-4.47	68.81	195.1	204.38	305.1	154.62
EU Institutions	29.02	47.082	75.265	68.39	73.93	24.74	52.33	58.19	78.31	100.9	101.45	194.5	131.87
GAVI	-	-	-	-	-	-	-	-	-	-	8.99	28.28	27.1
GEF	-	-	-	-	-	9.04	-	-	0.22	-	3.35	1.09	-
Global Fund	-	-	-	-	-	-	0.1	9.25	9.42	12.29	24.93	33.82	24.04
IAEA	-	-	-	-	-	-	-	-	-	0.47	0.7	0.53	0.76
IDA	107.887	245.81	291.214	275.16	217.9	195.05	394.7	474.3	397.83	231.5	420.53	623.5	94.3

국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DB Sp.Fund	-	-	-	-	-	-	-	-	-	-	-	-	-
IFAD	-	10.991	7.29	12.56	7.17	5.92	8.43	8.37	8.54	3.03	6.26	5.83	9.01
IFC	-	-	-	-	-	-	-	-	-	-	-	-	-
IMF(SAF, ESAF, PRGF)	-	39.055	-9.8422	-87.02	-60.23	-22.33	65.28	146.6	99.37	148.5	-	-7.82	-22.9
IMF Trust Fund	37.5567	1.406	-	-	-	-	-	-	-	-	-	-	-
Nordic Dev.Fund	-	-	0.34	2.69	0.45	0.68	0.8	1.44	2.62	8.22	0.2	1.23	-0.2
UNAIDS	-	-	-	-	-	-	-	-	0.4	0.14	0.8	0.37	0.36
UNDP	5.47	27.47	16.66	18.83	12.22	14.39	15.89	19.59	16	11.83	16.42	5.9	12.88
UNECE	-	-	-	-	-	-	-	-	-	-	-	-	-
UNFPA	2.24	3.426	5.477	3.68	13.72	10.33	22.31	6.31	4.71	6.25	6.12	6.56	6.33
UNHCR	4.19	0.2867	7.102	1.89	2.2	2.36	2.17	-	0.08	0.27	0.49	0.21	0.6
UNICEF	10.305	16.016	27.38	12.47	12.84	11.28	10.86	10.95	11.55	11.77	16.04	20.75	22.19
UNRWA	-	-	-	-	-	-	-	-	-	-	-	-	-
UNTA	1.16125	3.042	5.308	5.48	6.62	7.08	7.54	7.26	10.07	4.65	7.65	0.81	0.81
WFP	21.7463	42.957	39.026	8.92	23.53	25.41	16.12	9.94	18.18	5.07	11.6	9.63	21.89
WHO	-	-	-	-	-	-	-	-	-	-	-	-	-
Arab agencies	8.48333	6.715	-0.509	-1.18	14.42	4.53	-7.34	2.75	8.96	0.32	-6.51	-6.2	16.61

*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표 2-10.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세부분야별 공여 현황

원조코드	2006	2007	2008	2009
3110: 농업정책및 행정관리	-	-	-	0.0294
3120: 농업개발	-	0.0769	0.0217	-
3130: 농지개발	-	0.0149	-	-
3140: 농업용수자원	-	0.0296	0.0256	-
3150: 농업관련기자재	-	-	-	-
3161: 식량생산	0.0166	-	-	-
3162: 경제작물/수출작물	-	-	-	-
3163: 축산	0.0584	0.0137	-	-
3164: 농지개혁	-	-	-	-
3166: 농업지도	-	-	-	-
3181: 농업관련교육/훈련	-	0.0272	-	0.0041
3182: 농업연구	-	-	-	-
3191: 농업관련서비스	-	-	-	-
3192: plant와 수확 후 병충해방제	-	-	-	-
3193: 농업금융서비스	-	-	-	-
3194: 농업협동조합	-	-	-	-
3195: 축산진료	0.0139	-	-	-
3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	-	-	-
3220: 임업개발	-	-	-	-
3281: 임업관련교육/훈련	-	-	-	-
3282: 임업연구	-	-	-	-
3291: 임업관련서비스	-	-	-	-
43040: 농촌개발	0.0428	3.6113	0.0936	-
52010: 식량원조/식량안보프로그램	-	-	-	-
72040: 긴급식량원조	-	-	-	-

자료: <http://stats.oecd.org>.

부표 2-11.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원조목적별 세부 프로젝트명
(2006-2009, 백만 달러)

원조목적코드	연도	원조 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 활동방식/ 프로젝트주제	원조총액	프로젝트주제	분야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09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개발 (농업관련단체훈련)	0.018205	Dispatch of Volunteers: Rural Development (Training Farmer Organizations)	III.1.a. 농업
	2009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개발 (농업관련단체훈련)	0.011161	Dispatch of Volunteers: Rural Development (Training Farmer Organizations)	III.1.a. 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농촌개발	0.07692	Support to NGO	III.1.a. 농업
31120: 농업개발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개발 (농업관련단체훈련)	0.021686	Dispatch of Volunteers - Rural Development (Training Farmer Organizations)	III.1.a. 농업
31130:농지 개발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지개발	0.014937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31140: 농업용수자원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업용수자원	0.029605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방글라데시 Chittagong지역 수자원과 폐수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준비	0.449843	Preparation of Master Plan for Water supply and Wastewater Management of the Detailed Planned Area of Chittagong Bangladesh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관개시설개발과교육	0.02561	Dispatch of Volunteers - Irrigation Deveopment and Education	III.1.a. 농업
31161:식량생산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0.0166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원조목적코드	연도	원조 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활동방식/ 프로젝트주제	원조총액	프로젝트주제	분야
31163:축산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0.05842	Dispatch of Volunteers	III.1.a.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축산	0.01367	Dispatch of Volunteers	III.1.a.농업
31181: 농업관련교육/ 훈련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업관련 교육/훈련	0.013614	Dispatch of Volunteers	III.1.a.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업관련 교육/훈련	0.013613	Dispatch of Volunteers	III.1.a.농업
	2009	MISC	무상원조	아시아태평양식물검역 국제표준위크숍	0.004093	Workshop for international standards on plant quarantine of Asia-Pacific	III.1.a.농업
	2006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0.01388	Training Program	III.1.a.농업
43040:농촌개발	2006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0.01803	Training Program	IV.2.다부문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0.02479	Dispatch of Volunteers	IV.2.다부문
	2007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0.1113	Training Program	IV.2.다부문
	2007	KOICA	무상원조	Burichang Upazila of Comilla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3.5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Burichang Upazila of Comilla	IV.2.다부문
	2008	KOICA	무상원조	빈곤퇴치를 위한 Brahmanparaupazila 지역농촌종합개발	0.958507	Brahmanpara Upazila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for Poverty Reduction	IV.2.다부문
	2008	KOICA	무상원조	BOGRA 지역발전프로그램	0.093568	Bogra Area Development Program	IV.2.다부문
	2008	KOICA	무상원조				

* 2006-2009, 약정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표 2-12.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농어촌개발 무상원조실적(2000~2009)

사업유형	연도	사업명	지원액 (달러)
프로젝트	2007	방글라데시 꾸밀라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36,380
	2008	방글라데시 꾸밀라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958,507
	계		994,887
연수생초청	2000	미국생산기술	8,841
	2000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5,905
	2000	농업정책	4,567
	2000	잠업기술 사후관리	2,672
	2000	새마을 운동(AARDO)	2,487
	2001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	6,269
	2001	작물생산기술 사후관리	2,898
	2001	벼생산기술 이전	7,194
	2001	가공식품 품질관리	7,072
	2002	새마을운동(AARDO)	2,596
	2003	원예재배기술	11,270
	2003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5,958
	2004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6,176
	2004	AARDO 새마을운동	4,284
	2006	서아시아 농촌개발	13,843
	2006	AARDO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1차	4,190
	2006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13,883
	2007	연안수산양식	9,356
	2007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7,100
	2007	AARDO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2차	11,911
	2007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7,159
	2007	미국생산기술-수확 후 관리	6,823
	2008	AARDO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3차	3,114
	2008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6,448
	2008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35,285
	2008	SAARC 원예재배기술	21,429

사업유형	연도	사업명	지원액 (달러)
	2008	SAARC 특별연수 - 미곡생산기술	10,569
	2008	연안수산물양식기술	9,761
	2008	SAARC 특별연수 - 농촌개발	11,224
	2009	AARDO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4차	5,279
	2009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10,393
	2009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43,441
계			309,397
해외봉사단	2000	원예	10,207
	2000	축산	20,193
	2001	축산	9,968
	2006	지역개발	24,787
	2006	원예	8,301
	2006	축산	8,301
	2006	원예	8,301
	2006	축산	3,124
	2006	축산	13,582
	2006	축산	13,582
	2006	축산	13,582
	2006	축산	6,248
	2007	관개개발	29,605
	2007	지역개발	14,937
	2007	원예	13,613
	2007	축산	13,670
	2007	원예	13,614
	2008	관개개발	25,610
	2008	지역개발	21,686
	2009	지역개발	18,205
	2009	지역개발	11,161
계			302,277

자료: <http://stat.koica.go.kr>.

부록 3

우즈베키스탄 각종 통계자료¹⁵

부표 3-1. 농지 등 면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지(km ²)	273,250	273,300	270,460	268,400	268,400	267,400	266,900	266,400	266,200	n.a.	n.a.
농지 (국토면적 중 %)	64.2	64.2	63.6	63.1	63.1	62.9	62.7	62.6	62.6	n.a.	n.a.
농경지(ha)	4,475,000	4,485,000	4,484,000	4,500,000	4,500,000	4,400,000	4,350,000	4,300,000	4,300,000	n.a.	n.a.
농경지(1인당 ha)	0.182	0.18	0.177	0.176	0.174	0.168	0.164	0.16	0.157	n.a.	n.a.
농경지 (국토면적 중 %)	10.5	10.5	10.5	10.6	10.6	10.3	10.2	10.1	10.1	n.a.	n.a.
곡물 생산면적(ha)	1,606,700	1,389,200	1,533,700	1,794,000	1,665,400	1,615,890	1,612,970	1,534,100	1,541,500	1,607,500	n.a.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 (국토면적 중 %)	0.8	0.8	0.8	0.8	0.8	0.8	0.8	0.8	0.8	n.a.	n.a.
산림(km ²)	32,120	n.a.	n.a.	n.a.	n.a.	32,950	n.a.	n.a.	n.a.	n.a.	32,760
산림 (국토면적 중 %)	7.6	n.a.	n.a.	n.a.	n.a.	7.7	n.a.	n.a.	n.a.	n.a.	7.7
관개농지 (총농지 중 %)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국토면적(km ²)	425,400	425,400	425,400	425,400	425,400	425,400	425,400	425,400	425,400	425,400	n.a.

¹⁵ 표에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이 자료의 출처임: <http://data.worldbank.org/country/uzbekistan>

부표 3-2. 농업인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부문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중 %)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농촌인구(명)	15,455,550	15,684,269	15,906,071	16,122,992	16,341,119	16,563,945	16,754,917	16,985,823	17,256,796	17,511,121
농촌인구 성장률 (연간 %)	1.4	1.5	1.4	1.4	1.3	1.4	1.1	1.4	1.6	1.5
농촌인구 (총인구 중 %)	62.7	62.8	62.9	63.1	63.2	63.3	63.3	63.2	63.2	63.1

부표 3-3. 농업생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99	101	108	108	120	131	138	140	149	145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1	101	107	111	117	123	134	137	145	155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0	101	103	109	114	119	125	126	132	137
곡물 생산량 (1ha당 kg)	2,435.9	2,919.7	3,608.9	3,403.4	3,518.3	4,041.6	4,111.9	4,399.3	4,350.2	4,577.5
농업노동자 1인당 농업 부가가치 (2000 불변, 달러)	1,576.2	1,630.8	1,721.5	1,831.7	2,002.4	2,113.9	2,233.4	2,345.4	2,444.7	2,584
농업 부가가치 (GDP 중 %)	34.4	34	34.3	33.1	30.8	28	26.1	24	21.4	19.5

부표 3-4.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1990	1995	2000	2005	2009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15세 이상 고용 인구 비율(%)	54	52	54	56	58
15-24세 고용 인구 비율(%)	36	32	34	36	39
고용인구당 GDP(기준 1990PPP\$)	11,015	8,405	9,587	11,065	13,124
하위 20% 소득률	11	-	8	7	-
5세 이하 아동 저체중비율(%)	-	15	7	4	-
빈곤격차율 하루 1.25달러 기준(%)	0	-	12	15	-
하루 1,25달러로 생활하는 인구 수 (인구비율%)	0	-	42	46	-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여성 문해율(15-24세 여성 %)	-	-	99	-	100
남성 문해율(15-24세 남성 %)	-	-	99	-	100
초등교육 마지막 학년까지 지속성(%)	-	-	98	98	98
초등교육 완료율(%)	-	98	96	98	92
초등교육 취학률(%)	-	-	-	93	90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여성의 의회진출율 (여성국회의석점유율)(%)	-	6	7	18	18
초등교육 진학율(여성/남성)(%)	99	97	99	98	98
중등교육 진학율(여성/남성)(%)	-	-	97	97	99
고등교육 진학율(여성/남성)(%)	-	-	83	70	70
비농업분야 여성 고용율(%)	37.0	36.0	37.1	40.3	39.4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예방접종, 홍역예방 (12-23개월 영아 중 %)	84	91	99	99	95
1,000명당 영아사망률	61	57	53	40	32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74	68	62	46	36
목표5: 모성보건 증진					
청소년기 출산율(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	-	28	14	13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	98	96	100	-
피임 비율(15-49세 여성 중 %)	-	56	67	65	-
신생아출생 10만 명당 산모사망률	53	32	29	30	30
임신 중 출산전 관리를 받은 여성비율(%)	-	95	97	99	-
가족계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 (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의지) (15-49세 기혼 여성 중 %)	-	14	-	8	-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15-24세 콘돔사용 여성비율(15-24세 여성 중%)	-	-	3	-	-
15-24세 콘돔사용 남성비율(15-24세 남성 중 %)	-	-	18	-	-
인구 10만 명당 결핵(TB) 발병자 수	128	128	128	128	128
HIV발병률, 여성(15-24세 %)	-	-	-	-	0.1
HIV발병률, 남성(15-24세 %)	-	-	-	-	0.1
HIV발병률, 남성(15-49세인구중 %)	0.1	0.1	0.1	0.1	0.1
결핵조기 발견율(%)	36	34	50	64	50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이산화탄소배출(kg per PPP\$ of GDP)	4	4	3	2	2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미터톤)	5	4	5	4	4
산림면적비율(%)	7.2	-	7.6	7.7	7.7
개량된 위생시설(접근가능 인구중 %)	84	85	91	97	100
개량된 식수시설(접근가능 인구중 %)	90	90	89	88	87
해양보호지역(%)	-	-	-	-	-
ODA 수원총액(백만 달러)	3	4	8	6	7

목표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0.0	0.0	0.5	3.4	16.9
인구 100명당 핸드폰가입자	0	0	0	3	59
인구 100명당 일반전화선	7	7	7	7	7
출산율	4	4	3	2	3

자료: <http://ddp-ext.worldbank.org>.

부표 3-5.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원조목적별 세부 프로젝트명

원조목적코드	연도	원조 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 활동방식/ 프로젝트주제	원조총액	프로젝트주제	분야
31140: 농업용수자원	2006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0.00549	Traininig Program	III.1.a. 농업
31161: 식량생산	2008	KOICA	무상원조	전문가파견: 곡물 종 자개발	0.007999	Beans Species Development Expert Dispatch Uzbekistan	III.1.a. 농업
31162:경제작물/ 수출작물	2006	MISC	무상원조	FAO양잠개발지원	0.02149	Support for FAO Sericulture Development	III.1.a. 농업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0.02729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09	MISC	무상원조	아시안전문가를위한 식물검역시스템연구	0.003083	Research study on plant quarantine system for related experts in ASEAN	III.1.a. 농업
31220: 임업개발	2006	KOICA	무상원조	연수생초청	0.00597	Traininig Program	III.1.b. 임업

* 2006-2009, 약정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표 3-6. ODA 수원 현황

국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1.73	62.62	28.16	83.72	87.69	139.7	158.3	155.4	185.7	153.8	189.2	194.5	245.8	169.7	149.2	169.7	187.2	190.3
호주	-	-	0.01	-	0	0.15	-	-	0.03	0.02	0.03	-	-	-	-	-	-	-
오스트리아	-	0.11	0.08	0.04	0.03	0.04	0.03	0.03	0.04	0.05	0.21	0.32	0.27	0.3	0.4	0.36	3.52	0.35
벨기에	-	-	-	-	-	0.01	-	-	-	-	-	-	4.97	-	0.02	-	-	-
캐나다	-	-	-	-	-	0.01	0.14	0.11	0.17	0.33	0.51	0.47	0.76	0.86	0.03	0.45	0.01	0.01
덴마크	-	-	-	-	-	0.01	-	-	-	-	-	-	-	-	-	-	-	-
핀란드	-	-	-	-	-	-	0.06	0.02	-	0.22	0.58	0.41	0.15	0.24	0.53	0.49	0.4	0.09
프랑스	0.1	0.38	1.11	0.83	1.75	1.64	2.18	2	4.21	3.74	1.58	2.3	3.11	3.12	2.68	2.81	2.95	2.87
독일	-	0.02	0.97	46.64	29.84	21.41	11.85	8.95	9.26	13.73	21.57	19.01	20.33	16.96	15.78	16.51	29.46	32.07
그리스	-	-	-	-	-	0.06	0.31	0.15	0.32	0.21	0.09	0.17	0.47	0.4	0.18	0.29	0.44	0.39
아일랜드	-	-	-	-	0.01	0.01	0.02	0.03	-	-	0.28	-	-	-	-	-	-	-
이탈리아	-	0.09	-	0.01	-	1.17	0.04	0.04	0.01	0.18	0.37	0.24	0.01	-	-	-	0.12	0.03
일본	1.25	0.76	2.55	16.05	25.3	83.16	103.0	81.63	82.2	30.92	40.16	63.22	99.75	54.44	18.61	56.32	48.63	20.41
한국	0	0	0.49	0.49	0.98	1.07	0.69	9.54	18.49	16.27	2.94	1.66	2.32	2.63	4.29	3.21	3.99	5.9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0.18	-	-	-	-
네덜란드	-	0.02	0.03	0.08	0.12	0.16	0.19	0.01	0.02	1.12	0.71	1.12	0.66	0.49	0.04	0.07	0.04	-
뉴질랜드	-	-	-	-	0.03	-	0.02	0.03	0.03	0.04	0.02	0.02	0.13	0.16	0.03	-	-	-
노르웨이	-	-	0.05	-	-	-	-	-	0.12	0.77	2.59	1.13	0.96	0.53	0.46	0.01	0.17	0.3
스페인	-	0.19	0.1	-	-	-	0.07	0.24	0.03	3.01	4.99	4.11	1.28	0.08	0.08	-	0.36	0.66
스웨덴	-	-	0.86	0.14	-	0.13	0.46	0.29	0.16	0.04	0.14	0.14	0.37	0.96	1.35	0.81	0.05	0.56
스위스	-	0.24	1.23	0.46	0.13	0.02	0.08	0.73	0.84	1.28	3.43	5.87	9.9	6.6	3	5.05	4.14	2.12
영국	0.01	0.96	0.75	0.59	0.96	0.95	0.84	0.99	0.65	0.76	1.37	0.59	1.45	0.55	0.13	0.05	1	1.84
미국	-	1	4	1	6	2	4.33	17.53	35.66	50.24	74.27	68.36	61.24	34.97	49.15	19.1	17.96	9.85
체코	-	-	-	-	-	-	0.09	0.08	-	0.02	0.09	0.14	0.31	0.39	0.31	0.45	0.26	0.33

단위: 백만 달러

국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스라엘	-	-	-	-	-	10.55	9.64	10.86	12.04	8.42	8.03	7.45	6.02	3.48	2.13	1.76	2.35	2.39
폴란드	-	-	-	-	-	-	0.04	0.08	0.1	0.11	0.11	0.13	0.12	5.96	4.52	4.6	-0.09	-0.56
슬로바키아	-	-	-	-	-	-	-	-	-	-	0.02	0.19	0.23	-	0.03	0.1	0.25	0.05
슬로바니아	-	-	-	-	-	-	-	-	-	-	-	-	-	-	-	-	0.01	0.01
태국	-	-	-	-	-	-	-	-	-	-	-	-	-	-	0.01	0.02	0.05	0.03
터키	60.36	55.13	0.06	2.79	-	-	3.29	0.93	0.28	0.36	0.6	0.6	5.48	4.27	3.79	7.25	7.25	8.84
아랍국가들	-	0.02	-	-	0.71	0.13	1.31	0.22	4.21	4.58	4.02	0.27	-0.05	-0.42	-0.31	0.22	3.89	11.63
기타공여국	-	-	-	-	-	-	-	-	-	-	-	0	0.03	0	0.14	0.18	0.21	0.12
AsDF	-	-	-	-	-	-	0.46	0.09	1.2	4.46	6.76	3.35	2.61	-	0.15	0.17	4.16	19.44
EBRD	-	-	1.27	1.43	1.12	1.08	1.98	0.46	0.01	1.34	1.54	2.58	2.92	2.54	0.04	0.26	0.18	-
유럽연합	-	2.61	11.15	8.36	12.78	11.33	11.73	16.11	10.71	6.11	7.36	5.08	3.1	9.18	12.61	10.36	10.6	6.1
GAVI	-	-	-	-	-	-	-	-	-	-	-	-	-	-	-	0.23	3.66	5.87
GfE	-	-	-	-	-	-	-	-	-	0.75	-	-	0.2	1.21	-	3	5.03	1.7
Global Fund	-	-	-	-	-	-	-	-	-	-	-	-	0.41	3.92	5.65	8.44	6.34	12.24
IAEA	-	-	-	-	-	-	-	-	-	-	-	-	-	-	0.66	0.49	0.23	0.14
IDA	-	-	-	-	-	-	-	-	-	-	-	0.21	4.5	7.1	13.39	15.87	12.92	27.71
UNAIDS	-	-	-	-	-	-	-	-	-	-	-	-	-	0.14	0.18	0.38	0.26	0.27
UNDP	-	0.41	0.81	1.95	2.56	2.35	1.63	1.46	1.28	1.18	1.24	1.44	2.32	3.05	3.86	3.98	4.35	6.57
UNFPA	-	0.6	1.01	0.11	0.63	0.39	1.51	0.9	0.55	0.72	0.57	0.6	0.68	0.87	0.96	0.87	1.16	0.96
UNHCR	-	-	-	-	1.15	0.29	0.28	0.3	0.94	0.79	0.87	0.79	1.07	0.81	0.32	0.07	0.06	0.05
UNICEF	-	0.04	1.56	2.27	3.4	1.32	1.8	1.22	1.46	1.59	1.85	1.84	1.93	2.27	2.51	2.77	2.97	3.46
UNTA	0.01	0.04	0.07	0.48	0.19	0.27	0.25	0.37	0.73	0.52	0.35	0.74	0.81	1.37	1.42	1.16	0.37	0.37
Arab agencies	-	-	-	-	-	-	-	-	-	-	-	-	5	0.09	0.08	1.6	7.54	5.13

*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록 4

아제르바이잔 각종 통계자료¹⁶

부표 4-1. 농지 등 면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지(km ²)	47,404	47,456	47,449	47,546	47,549	47,586	47,560	47,565	47,567	n.a.	n.a.
농지 (국토면적 중 %)	57.4	57.5	57.4	57.5	57.5	57.6	57.6	57.6	57.6	n.a.	n.a.
농경지(ha)	1,825,600	1,835,700	1,837,300	1,838,500	1,840,700	1,843,200	1,841,300	1,854,000	1,860,200	n.a.	n.a.
농경지(1인당 ha)	0.227	0.226	0.225	0.223	0.222	0.22	0.217	0.216	0.214	n.a.	n.a.
농경지 (국토면적 중 %)	22.1	22.2	22.2	22.2	22.3	22.3	22.3	22.4	22.5	n.a.	n.a.
곡물 생산면적(ha)	640,726	752,440	813,191	765,399	806,034	792,935	773,895	728,680	882,711	1,113,808	n.a.
영년생 작물 재배면 적(국토면적 중 %)	2.9	2.7	2.7	2.7	2.7	2.7	2.7	2.7	2.8	n.a.	n.a.
산림(km ²)	9,360	n.a.	n.a.	n.a.	n.a.	9,360	n.a.	n.a.	n.a.	n.a.	9,360
산림 (국토면적 중 %)	11.3	n.a.	n.a.	n.a.	n.a.	11.3	n.a.	n.a.	n.a.	n.a.	11.3
관개농지 (총농지 중 %)	n.a.	30	30	30	30	30	30	30	30	n.a.	n.a.
국토면적(km ²)	82,605	82,604	82,618	82,652	82,672	82,660	82,630	82,620	82,620	82,620	n.a.

16 표에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이 자료의 출처임: <http://data.worldbank.org/country/azerbaijan>

부표 4-2. 농업인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부문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중 %)	41	40	40.2	40	39.5	39.3	39.1	38.7	n.a.	n.a.
농촌인구(명)	3,927,685	3,953,372	3,978,078	4,003,390	4,033,588	4,070,047	4,103,128	4,137,903	4,173,392	4,209,659
농촌인구 성장률 (연간 %)	1.2	0.7	0.6	0.6	0.8	0.9	0.8	0.8	0.9	0.9
농촌인구 (총인구 중 %)	48.8	48.7	48.7	48.6	48.6	48.5	48.4	48.2	48.1	47.9

부표 4-3. 농업생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0	113	119	125	126	148	144	140	145	152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99	109	115	118	120	135	139	142	147	151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0	103	105	109	119	128	135	141	150	152
곡물 생산량(1ha당 kg)	2,335.2	2,599.5	2,623.2	2,604.1	2,588.7	2,593.1	2,599.3	2,667.4	2,741.4	2,606.7
농업노동자 1인당 농업 부가가치 (2000 불변, 달러)	870.8	959.5	1,010.6	1,058.7	1,102.8	1,183.2	1,199.8	1,211.6	1,274.4	1,341.9
농업 부가가치(GDP 중 %)	17.1	16.1	15.2	13.5	11.8	9.9	7.5	7	6.3	8.2

부표 4-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원료 수입 (총수입물품 중 %)	1.7	1.4	1.2	1	0.9	1	1	1	0.9	1
농업원료 수출 (총수출물품 중 %)	2.4	0.8	1.3	1.5	1.1	1	0.7	0.6	0.04	0.1

부표 4-5. 농업자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기계 - 트랙터(대)	27,052	27,058	27,091	27,099	27,099	15,462	18,270	21,071	21,592
농기계 - 트랙터 (농경지 100km ² 당 대)	148.2	147.4	147.5	147.4	147.2	83.9	99.2	113.7	116.1
비료 소비량 (농경지 1ha당 kg)	n.a.	n.a.	10.4	7.6	12	13.4	13.3	10.7	20.9

부표 4-6. 농촌생활

구 분	2000	2001	2005	2008
농촌 개선된 수원지 (점근이 가능한 농촌인구 %)	59	n.a.	66	71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인구 비 (총농촌인구 중 %)	n.a.	42.5	n.a.	18.5

부표 4-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와 지표	1990	1995	2000	2005	2009	현 황	달성정도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15세 이상 고용 인구비율(%)	57	55	57	59	60	빈곤 수준이 2001년 약 50%에서 2008년 약 16%로 하락	달성함.
15-24세 고용 인구비율(%)	38	36	37	37	39		
고용인구당 GDP(기준 1990PPPS)	9,019	3,869	5,371	13,290	23,580		
하위 20% 소득률	-	7	7	-	8		
5세 이하 아동 저체중비율(%)	-	9	14	8	-		
빈곤격차율 하루 1.25달러 기준(%)	-	4	1	0	0		
하루 1.25달러로 생활하는 인구 수(인구비율 %)	-	16	6	0	1		
고용 취약층(총고용인구 비율 %)	-	-	-	63	53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여성 문해율(15-24세 여성 %)	-	-	100	100	100	1-9학년 등록률이 90%를 훨씬 넘음. 그러나 빈곤층의 탈락률이 비빈곤층보다는 높음.	달성가능예상.
남성 문해율(15-24세남성 %)	-	-	100	100	100		기초교육은 거의 모두 시킨다고 하는 전통이 있는 나라임.
초등교육 마지막학년까지 지속성 (%)	-	-	96	97	98		
초등교육 완료율(%)	-	81	90	93	92		
초등교육 취학률(%)	89	-	88	84	86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여성 의회 진출률 (여성국회의석 점유율) (%)	-	12	12	11	11	1-9학년 기초교육 등록률에서는 심각한 성 불평등은 없음. 문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중등 및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의 접근성임.	달성가능예상.
초등교육 진학률(여성/남성)(%)	99	112	98	95	99		특히 농촌지역에서 여학생들이 중등학교 탈락시점이 남학생보다 빠르다는 점, 그리고 중등 이상의 학교 진학이 더 적다는 점이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성 불평등은 없음.
중등교육 진학률(여성/남성)(%)	101	104	95	95	103		
고등교육 진학률(여성/남성)(%)	67	89	71	87	99		
비농업분야 여성 고용율(%)	-	47.5	47.6	46.5	43.6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예방접종, 홍역예방 (12-23개월 영아 중 %)	52	64	67	67	67	100명 이상이었던 1990년 이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달성가능예상.
1,000명당 영아사망률	78	75	58	40	30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아 이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정부는 접근성과 진료의 수준 등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국가출산보건 전략(2008-15)의 틀 내에서 출산보건서비스를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000명당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98	93	69	46	34		

목표5: 모성보건 증진							
청소년기 출산율(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	-	37	34	33	국립통계위원회(2009)와 WHO, HFA DB 2009에 따르면 2008년의 모성사망률은 10만 명당 26.3명이어서 2000년의 37.6명과 비교됨.	달성가능. 모성사망률이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목표치보다 세 배 가량 높음. 정부는 세계은행의 지원에 국가출산보건전략(2008-15)의 하나로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음.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	-	84	88	-		
피임 비율(15-49세 여성 중 %)	-	-	55	51	-		
신생아출생 10만 명당 산모사망률	64	79	59	44	38		
임신 중 출산 전 관리를 받은 여성 비율(%)	-	98	66	77	-		
가족계획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임신을 늦추거나 피하려는 의지)(15-49세 기혼 여성 중 %)	-	-	-	23	-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15-24세 콘돔사용 여성비율(15-24세 여성 중 %)	-	-	1	-	-	보건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AIDS 진단 건수는 2001- 2008년에 0.1에서 0.7로 늘어났음.	달성가능. 초기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가 늘어나고 검사가 가능해 질수록, 그리고 교역망이 늘어날수록 출현율이 초반에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함. 보건부는 현재 글로벌펀드(Global Fund)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임. 특히 취약집단에 예방적 조치를 제고하고 있음.
15-24세 콘돔사용 남성비율(15-24세 남성 중 %)	-	-	-	1	-		
인구 10만 명당 결핵(TB) 발병자 수	-	-	-	25	-		
HIV발병률, 여성(15-24세 %)	110	110	110	110	110		
HIV발병률, 남성(15-24세 %)	-	-	-	-	0.1	2004년에 국가 결핵프로그램을 통해 질병등록 및 통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DOTS 범위를 전체로 확대 시키게 되었음.	
HIV발병률, 남성(15-49세 인구 중 %)	-	-	-	-	0.1		
결핵조기 발견율(%)	0.1	0.1	0.1	0.1	0.1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이산화탄소배출(kg per PPP \$ of GDP)	2	3	2	1	0	추정치에 따르면, 약 76%의 가구가 개선된 식수원에 접근 가능함(도시지역은 93%, 농촌은 58%).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세계은행과 ADB의 지원으로 정부는 전국에 걸쳐 식수에 대한 접근성과 수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이 지체되고 있음. 구소련 시절 위해물질의 청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야 할 것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미터톤)	6	4	4	4	4		
산림면적비율(%)	11.2	-	11.3	11.3	11.3		
개량된 위생 시설(접근 가능 인구 중 %)	-	44	44	45	45		
개량된 식수 시설(접근 가능 인구 중 %)	70	71	74	77	80		
해양보호지역(%)	-	-	-	-	-		
ODA 수원총액(백만 달러)	0	15	17	26	26		
목표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인구 100명당 인터넷사용자 수	-	1	5	1	1		
인구 100명당 핸드폰가입자	0.0	0.0	0.1	8.1	42.0		
인구 100명당 일반전화선	0	0	5	27	88		
출산율	9	8	10	13	16		

자료: World Bank(2010); <http://ddp-ext.worldbank.org>.

부표 4-8.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액	0.3	37	82.99	147.9	118.6	96.11	184.1	120.2	169.4	139.1	229.5	349.3	300.6	175.7	216.5	205.7	225.2	235.0	232.3
호주	-	-	0.01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0.18	0.01	0.01	0.01	0.03	0.03	0.12	0.15	0.2	0.32	0.34	0.74	0.86	0.37	0.46	2.16	0.6
벨기에	-	-	-	-	-	0.01	-	-	-	-	-	-	-	-	0.07	1.07	0.02	1.71	-
캐나다	-	-	0.39	0.51	0.04	-	0.08	0.2	0.58	0.32	0.32	0.76	1.05	0.87	1.35	0.08	1.52	0.16	0.27
덴마크	-	0.03	-	-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0.63	-	0.19	0.18	0.28	0.12	0.08	0.07	0.49	0.17	0.18	0.05	0.2	0.16
프랑스	-	0.5	0.68	0.61	0.37	0.41	0.36	3.2	1.42	0.79	1.46	2.91	1.29	2.44	2.22	10.67	9.52	28.17	27.89
독일	-	-	0.82	2.11	5.82	4.13	3.63	15.26	19.2	9.17	6.81	9.83	13.58	16.96	19.11	12.01	24.27	26.43	42.65
그리스	-	-	-	-	-	-	0.27	0.06	0.19	0.12	0.09	0.08	0.25	0.31	0.64	0.2	0.31	0.3	0.16
아일랜드	-	-	-	-	0.01	0.01	0.01	-	-	-	-	-	0.05	0.23	0.02	-	-	0.07	-
이탈리아	-	-	-	-	-	-	-	-	1.65	0.01	0.03	0.72	0.21	0.11	1.24	0.05	-	0.16	0.03
일본	-	0.07	-	0.04	0.06	0.3	2.84	3.47	10.83	36.39	101	141.8	79.82	9.64	8.25	4.06	11.36	-2.8	-2.03
한국	-	-	-	0.05	-	0.01	0.02	0.01	0.06	0.06	0.02	0.08	0.03	0.07	0.13	0.3	0.78	3.87	1.67
룩셈부르크	-	-	0.14	0.18	-	0.19	-	-	-	-	-	-	0.14	-	0.02	-	-	-	-
네덜란드	-	-	0.69	1.39	4.6	4.41	1.26	2.71	1.1	0.8	2.59	4.06	3.86	3.5	5.47	0.05	0.06	-	-
노르웨이	-	-	-	1.97	2.2	1.34	2.18	2.28	2	2.23	2.71	3.52	5.4	5.66	6.36	5.63	5.31	3.9	3.99
스페인	-	-	-	-	0.12	-	0.01	-	-	-	-	0.02	0.05	0.07	0.07	0.11	0.01	0.36	0.65
스웨덴	-	-	-	2.59	1.68	1.63	0.33	0.84	0.51	0.13	0.07	0.36	0.31	0.47	1.16	0.58	1.35	1.03	0.63
스위스	-	-	-	0.73	3.02	0.82	0.69	0.95	0.94	0.63	0.99	5.65	2.53	3.05	5.58	3.64	6.18	10.5	5.48
영국	-	0.44	2.03	2.87	2.81	2.45	1.97	0.58	1.2	0.75	1.15	0.47	0.29	0.16	0.04	-	0.35	1.87	1.41
미국	-	-	-	13	11	9	2	5.87	12.49	18.89	30.91	61.53	49.27	47.58	42.8	56.54	48.98	41.95	40.43
체코	-	-	-	-	-	-	-	-	-	-	0.05	0.08	0.02	0.03	0.04	0.04	0.06	0.04	0.07
헝가리	-	-	-	-	-	-	-	-	-	-	-	-	-	-	-	0.01	-	0.03	0.03
이스라엘	-	-	-	-	-	-	6.83	4.33	5.05	4.38	2.45	2.7	2.73	1.78	0.86	0.71	0.69	1.4	1.64

국 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폴란드	-	-	-	-	-	-	-	0.02	0.02	0.01	0.02	0	0.02	0.02	0.03	0.13	0.47	0.33	0.22
슬로바키아공화국	-	-	-	-	-	-	-	-	-	-	-	-	0.01	-	-	-	-	-	0.02
태국	-	-	-	-	-	-	-	-	-	-	-	-	-	-	-	-	-	0.01	-
터키	0.3	31.36	61.1	0.58	9.84	-	-	7.31	2.28	3.72	3.33	4.14	3.65	22.9	28.62	36.87	36.22	33.9	27.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	-	-	-	-	-	-	-	-	-	-	-	-	-	-	2.15	2.75	3.35
아랍연합	-	-	-	0.17	0.28	-	0.73	0.26	0.32	0.1	4.64	5.26	3.89	1.35	-0.54	-1.17	2.25	3.74	4.03
기타 공여국들	-	-	-	-	-	-	-	-	-	-	-	0.01	0.01	0.04	0.06	0.04	0.13	0.09	0.07
AsDF	-	-	-	-	-	-	-	-	-	-	-	-	-	-	0.5	4.05	13.07	9.54	15.75
EBRD	-	-	-	0.23	0.86	0.71	0.46	1.87	1.06	0.08	1.08	2.08	2.3	3.05	2.44	0.16	0.14	0.07	-
유럽연합	-	4.5	6.86	102.8	28.74	30.1	21.96	26.19	21.75	20.12	12.78	22.37	24.56	10.61	26.02	18.67	9.04	13.01	12.48
GAVI	-	-	-	-	-	-	-	-	-	-	-	-	-	-	-	-	0.13	0.16	0
GEF	-	-	-	-	-	-	-	-	-	-	0.35	-	0.2	-	5.84	-	-	-	-
Global Fund	-	-	-	-	-	-	-	-	-	-	-	-	-	-	0.97	6.16	3.96	6.4	5.85
IAEA	-	-	-	-	-	-	-	-	-	-	-	-	-	-	-	0.99	0.18	0.44	0.54
IDA	-	-	-	-	30.2	35.8	55.35	20.64	60.5	27.2	27.56	56.92	74.74	49.17	45.63	56.31	51.98	42.16	36.08
IFAD	-	-	-	-	-	-	-	1	1.18	2.19	1.95	1.66	1.79	1.91	3.29	2.75	3.24	3.92	3.55
IMF(SAF, ESAF,PRGF)	-	-	-	-	-	-	76.51	19.83	16	-	10.25	7.77	20.47	-21.6	-5.18	-24.1	-25.6	-15.4	-15.6
UNAIDS	-	-	-	-	-	-	-	-	-	-	-	-	-	-	0.07	0.01	0.07	0.09	0.09
UNDP	-	-	-	0.01	0.66	0.97	4.4	1.34	2.71	2.07	2.21	2.17	2.45	2.43	2.91	2.96	2.13	2.77	1.43
UNFPA	-	-	-	0.53	0.06	0.43	0.71	0.68	0.49	0.62	0.78	0.75	0.57	0.53	0.64	0.76	0.69	0.76	0.68
UNHCR	-	-	7.45	6.32	5.47	-	0.2	-	0.36	4.11	3.5	3.18	2.38	1.76	1.29	0.98	1.22	1.26	1.62
UNICEF	-	-	1.04	1.86	5.49	2.71	1.11	1.04	0.95	1.02	0.82	0.93	0.89	1.07	1.21	1.51	1.37	0.98	0.97
UNTA	-	-	0.03	0.07	0.17	0.04	0.15	0.08	0.16	0.37	0.39	0.42	0.54	0.66	1.43	1.43	0.69	0.55	0.55
WFP	-	-	1.21	8.56	4.94	-	-	-	3.92	2.41	3.11	3.26	1.93	1.35	1.89	1.72	2.52	1.04	0.26
Arab agencies	-	0.1	0.36	0.72	0.17	-	-	-	0.2	-	5.8	3.38	-1	6.4	2.93	-0.79	7.93	5.05	7.46

자료: <http://stats.oecd.org>.

부표 4-9. 우리나라의 아제르바이잔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원조목적별 세부프로젝트명

원조목적코드	연도	원조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 활동방식/ 프로젝트 주제	원조총액 (천 달러)	프로젝트 주제
31140: 농업용수자원	2008	KOICA	무상원조	아제르바이잔 북쪽에 위치한 강의 취수 및 관개시설 디자인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1,700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Design of Water Intake Structures and Irrigation in the Northern Rivers in Azerbaijan -1
	2007	MISC	무상원조	농업관련 교육/훈련	53.8	training programme on technology of agricultural water
	2007	MISC	무상원조	농업관련 교육/훈련	70.0	support for the enhancement of the 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31181: 농업관련교육/ 훈련	2008	MISC	무상원조	수확후 관리에 대한 개선 지원	54.0	support for the enhancement of Azerbaijan post-harvest management
	2009	MISC	무상원조	아시아 전문가를 위한 식물검역에 대한 조사	3.1	Research study on plant quarantine system for related experts in ASEAN
	2009	MISC	무상원조	아제안국가 축산생산물관리에 대한 세미나	2.0	The Seminar on livestock product safety management for Asian countries
31182: 농업연구	2006	MISC	무상원조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양자협력의 기반형성	31.4	The Formation of the Basis of Korea-Azerbaijan Bilateral Cooperation

* 2006-2009, 약정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록 5

볼리비아 각종 통계자료¹⁷

부표 5-1. 농지 등 면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지(km ²)	369,990	370,060	371,110	366,470	366,170	369,620	366,980	368,280	n.a.
농지(국토면적 중 %)	34.2	34.2	34.3	33.8	33.8	34.1	33.9	34	n.a.
농경지(ha)	3,000,000	3,000,000	3,100,000	3,514,000	3,579,000	3,806,000	3,491,000	3,609,000	n.a.
농경지(1인당 ha)	0.361	0.353	0.358	0.398	0.397	0.415	0.373	0.379	n.a.
농경지(국토면적 중 %)	2.8	2.8	2.9	3.2	3.3	3.5	3.2	3.3	n.a.
곡물 생산면적(ha)	757,989	742,201	768,395	744,911	775,942	861,350	888,530	945,620	945,620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 (국토면적 중 %)	0.2	0.2	0.2	0.2	0.2	0.2	0.2	0.2	n.a.
산림(km ²)	600,910	598,208	595,506	592,804	590,102	587,400	584,698	581,996	n.a.
산림(국토면적 중 %)	55.5	55.2	55	54.7	54.5	54.2	54	53.7	n.a.
관개농지(총농지 중 %)	n.a.	n.a.	n.a.	n.a.	n.a.	n.a.	n.a.	n.a.	n.a.
국토면적(km ²)	1,083,300	1,083,300	1,083,300	1,083,300	1,083,300	1,083,300	1,083,300	1,083,300	1,083,300

17 표에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이 자료의 출처임: data.worldbank.org/country/bolivia

부표 5-2. 농업인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부문 경제활동인구(명)	1,562,000	1,600,000	1,639,000	1,680,000	1,723,000	1,769,000	1,817,000	1,862,000	1,906,000	n.a.
농업부문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중 %)	36.8	41.5	39.6	n.a.	n.a.	n.a.	n.a.	n.a.	n.a.	n.a.
농촌인구(명)	3,177,236	3,201,943	3,225,594	3,247,908	3,268,524	3,287,178	3,305,642	3,322,144	3,336,714	3,349,427
농촌인구 성장률(연간 %)	0.8	0.8	0.7	0.7	0.6	0.6	0.6	0.5	0.4	0.4
농촌인구(총인구 중 %)	38.2	37.7	37.2	36.8	36.3	35.8	35.3	34.9	34.4	34

부표 5-3. 농업생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1	105	109	115	111	120	121	121	n.a.	n.a.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2	102	108	114	112	118	112	113	n.a.	n.a.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0	100	107	110	114	117	113	113	n.a.	n.a.
곡물 생산량 (1ha 당 kg)	1,641.6	1,784.9	1,712.1	1,963.3	1,618.6	1,926.9	2,100	1,849.1	1,849.1	n.a.
농업노동자 1인당 농업 부가가치 (2000 불변, 달러)	697.1	704.1	690.4	732.2	715.7	730.8	743.8	721.3	723	n.a.
농업 부가가치 (GDP 중 %)	15	15.2	14.9	15.4	15.4	14	13.5	12.9	13.5	13.8

부표 5-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원료 수입 (총수입물품 중 %)	1.6	1.6	1.1	1.5	1.8	1.4	1.3	1.1	0.9	0.7
농업원료 수출 (총수출물품 중 %)	3.1	2.7	2.3	2.1	1.9	1.8	1.6	1.6	1.1	1.3

부표 5-5. 농업자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기계 - 트랙터(대)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농기계 - 트랙터 (농경지 100km ² 당 대)	20	20	19.4	17.1	16.8	15.8	17.2	16.6
비료 소비량(톤)	7,503	11,529	13,342	12,916	18,120	24,621	15,464	n.a.
비료 소비량 (농경지 1ha당 kg)	n.a.	n.a.	4.3	3.7	5.1	6.5	4.4	4.6

부표 5-6. 농촌생활

구 분	2000	2002	2005	2006	2008
농촌 개선된 수원지 (접근이 가능한 농촌인구 %)	56	n.a.	63	n.a.	67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갭(%)	n.a.	43.4	n.a.	n.a.	n.a.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인구비 (총농촌인구 중 %)	75	83.5	n.a.	63.9	n.a.

부표 5-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세부목표와 지표		기준 1990년	2006/ 2007	2015 전망 (볼리비아정부)	2015 목표	달성 정도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1.A: 2015년까지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 반감	빈곤율	48%	38%	22%	24%	달성 가능
세부목표1.C: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비율 반감	5세 미만 저영양	38%	26%	0	19%	달성 가능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부목표2.A: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순 초등학교 등록률	-	93%	95%	100%	달성 가능
	15-25세 집단 문맹률	-	1.5%	0	0	달성 가능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세부목표3.A: 2005년까지는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함.	초등교육 수료 격차	-	-0.6	-	0	이미 달성
	중등교육 수료 격차	-	-1.5	-	0	이미 달성
	노동시장 고용비	-	17%	-	50%	불가능
	의회 의원비	-	19%	-	50%	불가능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세부목표4.A: 2015년까지 5세미만 유아사망률 2/3 감소	영유아 사망률	81/1000	54	27	27	달성 가능
목표5: 모성보건 증진						
세부목표5.A: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 3/4 감소	사망률	416/10만	229	104	104	달성 가능
세부목표5.B: 2015년까지 출산관련 보건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시설에서의 출산	-	65%	70%	70%	달성 가능
세부목표6.A: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저지 및 감소세로 전환시킴	백만 명당 AIDS 감염률	-	19	13	13	달성 가능

부표 5-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계속)

목표/세부목표와 지표		기준 1990년	2006/ 2007	2015 전망 (볼리비아정부)	2015 목표	달성 정도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세부목표6.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세로 전환시킴	1천 명당 말라리아	-	5.2	2	2	달성 가능
	샤가스병 3% 이상인 주	-	30.4	0	0	달성 가능
	결핵 치료율	-	76%	85%	95%	불가 능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세부목표7.B: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히 저하시킴	산림 면적	-	48%	48%	48%	달성 가능
	국립공원 비율	-	17%	17%	17%	달성 가능
세부목표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마시기 적합한 식수(총인구 중 비율)	58%	73%	82%	79%	달성 가능
	위생상태(총인 구 중 비율)	28%	56%	71%	64%	달성 가능

자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2009).

부표 5-8. ODA 수원 현황

국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4.33	72.53	258.2	628.3	481.7	743.7	689.3	938.4	785.4	643.0	849.9	476.7	627.8	725.8
호주	-	2	3	5	-	0.03	-	0.03	-	-	-	-	-	-
오스트리아	0.04	0.382	0.193	2.353	2.98	63.24	0.29	0.26	0.34	0.24	0.19	0.37	0.25	0.26
벨기에	0.058	1.415	2.577	19.60	9.31	9.5	19.12	14.24	17.31	10.33	10.48	14.89	17.81	24.8
캐나다	-	0.405	4.048	8.946	5.67	8.82	14.64	12.07	11.85	14.87	17	22.8	21.48	24.29
덴마크	-	1.239	2.06	9.321	20.88	26.42	30.55	28.68	28.48	26.16	25.87	34	36.22	34.32
핀란드	-	2	0.066	0.219	0.22	0.28	0.52	0.82	0.87	0.28	0.41	0.7	0.28	1
프랑스	0.03	0.401	2.752	18.92	8.28	8.44	33.92	11.6	17.8	16.42	39.78	7.23	13.94	10.01
독일	1.522	9.537	22.05	72.19	45.34	51.65	71.93	43.82	75.31	51.43	47.04	39.79	52.7	45.67
그리스	-	-	-	-	-	-	-	-	-	-	-	0.01	-	0.01
아일랜드	-	-	6	0.031	0.05	0.03	0.39	0.14	0.15	0.12	0.54	1.25	1.21	1.17
이탈리아	0.014	0.252	6.866	13.92	1.76	-0.39	4.57	2.91	9.51	4.58	3.64	7.87	8.71	7.8
일본	0.034	5.152	37.29	71.82	43.73	65.91	37.5	32.32	50.82	40.58	100.4	36.93	35.48	31.78
한국	-	-	1	0.165	0.11	0.5	0.2	0.54	0.59	4.36	4.5	8.66	5.23	1.84
룩셈부르크	-	-	-	0.238	0.12	0.12	0.39	1.1	0.59	1.12	0.97	1.08	1.1	0.96
네덜란드	-	0.927	11.26	43.15	33.25	73.31	62.59	50.32	48.06	46.68	34.41	48.26	41.43	45.56
뉴질랜드	-	-	-	8	-	-	0.01	0.02	0.03	-	-	-	0.35	0.03
노르웨이	-	3	1.43	3.097	2.8	3.22	3.29	3.79	3.38	3.7	3.64	5.07	6.41	6.4
포르투갈	-	-	-	-	-	-	-	-	0.01	-	-	-	-	-
스페인	-	-	1.083	26.81	22.44	29.69	30.76	51.61	54.54	66.68	51.6	74.63	93	97.6

단위: 백만 달러

국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스웨덴	2	0.03	1.251	13.76	18.8	20.22	16.43	23.45	28.96	20.76	17.91	25.96	27.56	29.63
스위스	0.023	1.058	7.657	16.20	10.55	10.64	13.37	14.31	20.86	17.99	14.02	14.69	12.55	19.77
영국	0.301	0.996	2.896	16.99	12.59	45.58	14.19	13.1	50.83	-24.2	8.69	-105	1.02	0.53
미국	27.96	25.5	57.2	103.9	97.37	119.0	127.7	248.3	137.5	139.6	193.0	122.3	123.8	101.5
타이완	-	-	-	0.029	-	-	-	-	-	-	-	-	-	-
체코	-	-	-	-	-	0.11	0.18	0.17	0.16	0.14	0.14	0.23	0.13	0.11
이스라엘	-	-	-	0.052	0.09	0.12	0.25	0.2	0.07	0.05	0.04	0.09	0.16	0.06
폴란드	-	-	-	-	-	-	-	-	-	-	-	0.01	-	0.04
태국	-	-	-	-	-	-	-	-	-	-	-	0	0.01	0
터키	-	-	-	-	-	-	-	-	-	-	-	0	0.12	0.04
아랍국가들	-	-	-	2	-	-	-	-	-	-	-	-	-	-
기타공여국들	-	-	-	-	-	-	-	-	-	-	-	0.94	-	-
유럽연합	-	0.664	10.17	28.74	25.36	26.71	22.6	73.14	36.59	39.38	52.01	43.86	43.79	77.83
GAVI	-	-	-	-	-	-	-	-	-	-	-	0.07	2.62	3.53
GEF	-	-	-	-	-	-	-	-	-	-	-	-	-	13.77
Global Fund	-	-	-	-	-	-	-	-	3.4	2.36	5.77	3.36	5	4.83
IAEA	-	-	-	-	-	-	-	-	-	-	0.53	0.21	0.45	0.09
IBRD	-	0.293	0.351	-	-	-	-	-	-	-	-	-	-	-
IDA	1.412	4.143	26.09	78.30	50.64	89.81	98.05	138.33	117.73	62.87	29.84	14.88	24.32	32.27
IDB Sp.Fund	1.734	12.88	34.08	44.86	59.95	71.72	92.42	178.5	82.1	100.4	42.44	36.21	39.16	99.78
IFAD	-	-	1.637	2.321	0.42	-0.76	-0.98	1.48	0.46	0.6	0.21	-0.35	0.96	1.15
IMF(SAF,SAF,PRCF)	-	-	7.725	14.46	-5.1	3.57	-17.0	-18.9	-21.7	-22.0	132.0	-	-	-

국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MF Trust Fund	-	1.916	1.9	-	-	-	-	-	-	-	-	-	-	-
Nordic Dev.Fund	-	-	-	0.622	1.17	1.76	1.53	2.4	0.65	8.55	4.15	1.49	0.79	0.24
UNAIDS	-	-	-	-	-	-	-	-	-	0.12	0.19	0.05	0	0.05
UNDP	0.24	2.948	6.495	3.069	1.39	1.24	0.95	1.83	1.42	0.91	1.06	1.62	1.64	2.05
UNFPA	-	0.014	0.524	1.518	1.11	2.72	3.2	2.21	1.25	1.02	0.85	1.2	1.29	1.58
UNHCR	-	-	0.02	0.146	-	-	-	-	-	-	-	-	-	-
UNICEF	0.037	0.493	1.891	4.734	1.14	1.37	1.21	1.16	2.08	1.77	1.54	1.71	1.08	1.49
UNTA	0.01	0.266	0.766	1.597	1.67	2.32	2.02	1.99	2.06	2.21	1.49	1.35	0.58	0.58
WFP	0.03	1.615	5.183	5.551	5.67	2.74	2.84	2.57	2.17	3.24	2.9	4.62	4.16	1.42
Arab agencies	-	-	0.704	0.666	1.95	4.03	-0.93	-0.81	-0.97	-0.2	0.54	3.81	1.06	-0.06

* 순지출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표 5-9.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농업, 농촌분야 공여 현황-원조목적별 세부프로젝트명

원조목적코드	연도	원조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활동방식/ 프로젝트주제	원조총액 (천달러)	프로젝트주제	분야
43040: 농촌개발	2007	KOICA	무상원조	농촌개발	81.3	장비공급	IV.2. 다부문

* 2006-2009, 약정액 기준
자료: <http://stats.oecd.org>.

부록 6

솔로몬군도 각종 통계자료¹⁸

부표 6-1. 농지 등 면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지(km ²)	760	770	790	830	830	830	830	840	840	n.a.	n.a.
농지(국토면적 중 %)	2.7	2.8	2.8	3	3	3	3	3	3	n.a.	n.a.
농경지(ha)	14,000	15,000	15,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n.a.	n.a.
농경지(1인당 ha)	0.034	0.035	0.034	0.036	0.035	0.034	0.033	0.032	0.031	n.a.	n.a.
농경지 (국토면적 중 %)	0.5	0.5	0.5	0.6	0.6	0.6	0.6	0.6	0.6	n.a.	n.a.
곡물 생산면적(ha)	973	448	493	607	800	1,000	1,000	933	1,000	1,000	n.a.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 (국토면적 중 %)	2	2	2	2.1	2.1	2.1	2.1	2.1	2.1	n.a.	n.a.
산림(km ²)	22,680	n.a.	n.a.	n.a.	n.a.	22,410	n.a.	n.a.	n.a.	n.a.	22,130
산림(국토면적 중 %)	81	n.a.	n.a.	n.a.	n.a.	80.1	n.a.	n.a.	n.a.	n.a.	79.1
관개농지 (총농지 중 %)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국토면적(km ²)	27,990	27,990	27,990	27,990	27,990	27,990	27,990	27,990	27,990	27,990	n.a.

18 표에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이 자료의 출처임: <http://data.worldbank.org/country/solomon-islands>

부표 6-2. 농업생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2	97	98	100	108	117	115	117	118	119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2	97	98	100	108	117	114	117	118	119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99	101	105	106	109	110	112	113	113	113
곡물 생산량 (1ha당 kg)	4,649.5	4,649.5	4,598.3	3,207.5	3,125	3,000	3,250	3,001	2,800	2,800
농업노동자 1인당 농업 부가가치 (2000 불변, 달러)	1,203.8	1,162.2	1,231.8	1,601	1,577.6	1,575.8	1,637	1,859.6	1,981.2	1,776.8
농업 부가가치 (GDP 중 %)	34.7	24	31	39.9	37.7	34.5	35.7	44.3	41.2	38.9

부표 6-3. 농업인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촌인구(명)	350,303.6	358,722.2	367,222	375,803.3	384,470.5	393,221.6	401,762	410,350.5	418,955.3	427,534.5
농촌인구 성장률 (연간 %)	2.5	2.4	2.3	2.3	2.3	2.3	2.1	2.1	2.1	2
농촌인구 (총인구 중 %)	84.3	84	83.8	83.5	83.3	83	82.7	82.4	82	81.7

부표 6-4.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세부목표 및 지표		진행상황				목표대비 2010상황 (달성정도)
		1990	2000	2003 ~08	2015 목표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문제 퇴치						
세부목표1.C: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비율 반감	5세 이하 영양부족 인구비율(%)	21	21	21	11	절반달성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부목표2.A: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초등학교 등록률(%)	83	74	80	100	달성가능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세부목표3.A: 2005년까지는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함.	초등학교에서 남아 대 여아 비율(%)	86	94	96	100	진전
	중학교에서 남아 대 여아 비율(%)	63	79	84	100	진전
	국회에서 여성의 의석점 유율(%)	0	2	0	-	자료부재 달성 어려움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4.A: 2015년까지 5세 미만 유아사망률 2/3 감소	1000명당 영아사망률	86	65	53	25	절반달성
	5세 이하 아동사망률	121	88	70	12	달성 어려움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세부목표5.A: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 3/4 감소	10만 명당 모성사망률	550	130	220	-	-
	전문 보건직원의 도움 하에 출산율(%)	-	85	-	-	-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세부목표6.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세로 전환시킴	10만 명당 말라리아 발병자 수	45,000	15,172	19,600	8000명 이하	50% 미만
	10만 명당 결핵 발병자 수	312	185	128	-	-

부표 6-4.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계속)

목표/세부목표 및 지표		진행상황				목표대비 2010상황 (달성정도)
		1990	2000	2003 ~08	2015 목표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세부목표7.B: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히 저하시킴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	99	91	78	-	-
	국가보호지정 구역(%)	-	0	0.7	-	-
	이산화탄소 배출량(1인당 톤)	0.5	0.4	0.4	-	-
세부목표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개량된 물자원에 대한 접근(%)	68.5	70	70	100	70% 달성
	개량된 위생에 대한 접근(%)	-	31	32	-	-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세부목표8.F: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000명당 고정회선 및 휴대폰 (명)	15	21	30	-	-
	1,000명당 PC보유(명)	-	39	47	-	-

부록 7

스리랑카 각종 통계자료¹⁹

부표 7-1. 농지 등 면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토면적(km ²)	62,710	62,710	62,710	62,710	62,710	62,710	62,710	62,710	62,710	62,710	n.a.
농지(km ²)	23,500	23,510	23,560	23,700	23,100	25,100	24,400	23,900	26,400	n.a.	n.a.
농지 (국토면적 중 %)	37.5	37.5	37.6	37.8	36.8	40	38.9	38.1	42.1	n.a.	n.a.
농경지(ha)	915,000	916,000	936,000	950,000	900,000	1,100,000	1,050,000	1,000,000	1,250,000	n.a.	n.a.
농경지(1인당 ha)	0.049	0.049	0.049	0.05	0.046	0.056	0.05	0.05	0.06	n.a.	n.a.
농경지 (국토면적 중 %)	14.6	14.6	14.9	15.1	14.4	17.5	16.7	15.9	19.9	n.a.	n.a.
곡물 생산면적(ha)	867,548	796,560	848,790	946,340	748,720	950,200	938,270	835,540	1,090,760	1,017,930	n.a.
영년생 작물 재배면적 (국토면적 중 %)	15.9	15.9	15.6	15.6	15.5	15.5	15.1	15.1	15.1	n.a.	n.a.
산림(km ²)	20,820	n.a.	n.a.	n.a.	n.a.	19,330	n.a.	n.a.	n.a.	n.a.	18,600
산림 (국토면적 중 %)	33.2	n.a.	n.a.	n.a.	n.a.	30.8	n.a.	n.a.	n.a.	n.a.	29.7

19 표에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으면 다음이 자료의 출처임: <http://data.worldbank.org/country/sri-lanka>

부표 7-2. 농업생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작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2	97	99	101	96	106	108	106	119	115
식품 생산지수 (1999-2001 = 100)	101	98	100	103	98	108	109	108	121	120
축산물 생산지수 (1999-2001 = 100)	99	108	109	109	114	116	106	114	118	123
곡물 생산량 (1ha당 kg)	3,338.1	3,424.9	3,405	3,282.5	3,563.7	3,467.1	3,619.4	3,821.6	3,661.7	3,721.6
농업노동자 1인당 농업 부가가치 (2000 불변, 달러)	803.5	768.8	779.1	783.1	776.2	793.9	831.5	844.9	902.7	926.4
농업 부가가치(GDP 중 %)	19.9	20.1	14.3	13.2	12.5	11.8	11.3	11.7	13.4	12.6

부표 7-3. 농업인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부문 고용인구 (총고용인구 중 %)	n.a.	n.a.	34.5	34.3	33.5	30.3	32.2	31.3	n.a.	n.a.
농촌인구(명)	15,775,658.4	15,888,427.4	15,995,813.4	16,231,861.8	16,499,883.6	16,698,132	16,883,214	16,988,490	17,112,617.5	17,237,651.9
농촌인구 성장률 (연간 %)	0.7	0.6	0.8	1.5	1.6	1.2	1.1	0.6	0.7	0.7
농촌인구 (총인구 중 %)	84.3	84.4	84.5	84.7	84.8	84.9	84.9	84.9	84.9	84.9

부표 7-4. 농업원료 수입 및 수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 원료 수입 (총수입물품 중 %)	n.a.	1.3	1.2	1.1	1.1	1.2	1.4	1.4	1.1	1.2
농업원료 수출 (총수출물품 중 %)	n.a.	1.6	1.7	2	2.2	2.1	2.7	2.3	3.1	3.2

부표 7-5. 농업자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료 소비량 (농경지 1ha당 kg)	304.6	259.2	287	255.3	276.8	290.3	284.3

부표 7-6. 농촌생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촌 개선된 수원지 (접근이 가능한 농촌인구 %)	77	n.a.	n.a.	n.a.	n.a.	84	n.a.	n.a.	88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갭(%)	n.a.	n.a.	5.6	n.a.	n.a.	n.a.	n.a.	3.2	n.a.
농촌 빈곤선 기준 빈곤인구 (총농촌인구 중 %)	n.a.	n.a.	24.7	n.a.	n.a.	n.a.	n.a.	15.7	1n.a.

부표 7-7. 새천년개발목표 진행 현황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	1990	1995	2000	2005	2009
목표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15세 이상 고용 인구비율(%)	62	61	61	60	60
15-24세 고용 인구비율(%)	52	50	47	45	45
고용인구당 GDP(기준 1990PPP\$)	11,748	12,513	13,714	15,479	16,964
5세 이하 아동 저체중 비율(%)	-	-	25	-	21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여성 문해율(15-24세 여성 %)	78	-	83	-	87
남성 문해율(15-24세 남성 %)	87	-	90	-	92
초등교육 완료율(%)	79	-	82	86	88
초등교육 취학률(%)	-	-	84	88	90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여성의 의회 진출률(여성국회의석 점유율) (%)	13	12	14	16	19
초등교육 진학률(여성/남성)(%)	89	-	92	96	97
중등교육 진학률(여성/남성)(%)	83	-	92	95	96
고등교육 진학률(여성/남성)(%)	-	-	99	105	108
비농업분야 여성 고용율(%)	34.8	37.0	36.4	36.7	-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예방접종, 홍역예방(12-23개월 영아 중 %)	73	74	72	78	82
1,000명당 영아사망률	64	61	55	48	43
1,000명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92	88	79	68	61
목표5: 모성보건 증진					
청소년기 출산율(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 수	-	-	60	54	50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	50	-	62	-	65
피임 비율(15-49세여성 중 %)	57	-	61	-	61
신생아출생 10만 명당 산모사망률	400	370	340	290	260
임신 중 출산 전 관리를 받은 여성비율(%)	-	-	75	-	82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인구 10만 명당 결핵(TB) 발병자 수	128	129	136	141	137

HIV발병률, 여성(15-24세 %)	-	-	-	-	0.7
HIV발병률, 남성(15-24세 %)	-	-	-	-	0.4
HIV발병률, 남성(15-49세인구 중 %)	0.3	0.8	1.0	1.0	0.8
결핵조기 발견율(%)	55	46	45	56	62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이산화탄소 배출(kg per PPP\$ of GDP)	1	1	1	1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미터톤)	4	4	4	5	5
산림면적비율(%)	32.1	-	31.4	31.3	31.1
개량된 위생시설(접근 가능 인구 중 %)	52	55	57	59	61
개량된 식수시설(접근 가능 인구 중 %)	77	80	83	85	87
해양보호지역(%)	5	6	8	9	9
ODA 수원총액(백만 달러)	11	10	8	17	19
목표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0.1	0.8	6.7	16.0	27.1
인구 100명당 핸드폰 가입자	0	2	12	34	69
인구 100명당 일반전화선	10	12	16	19	18
출산율(산모 1인당 출산아동 수)	3	3	3	3	3

자료: <http://ddp-ext.worldbank.org>.

부표 7-8. 한국의 스리랑카 농업, 농촌분야 지원 현황-원조목적별 세부프로젝트명

원조목적 코드	연도	원조 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활동방식/ 프로젝트 주제	원조총액 (천 달러)	프로젝트주제	분야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06	MISC	무상원조	ISPM에 대한 지역워크숍	1.16	Regional workshop on draft of ISPM(International Standard on Phytosanita Measures)	III.1.a. 농업
	2009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촌개발(농업관 련조직훈련)	12.046	Dispatch of Volunteers: Rural Development (Training Farmer Organizations)	III.1.a. 농업
31120: 농업개발	2006	MISC	무상원조	농촌진흥청연합 프로그램(Alum ni association program)	10	RDA Alumni Association Program	III.1.a. 농업
	2007	MISC	무상원조	농촌개발	10	RDA Alumni Association Program	III.1.a. 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 개발	15.507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 개발	8.187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 개발(농업관련조 직훈련)	10.99	Dispatch of Volunteers - Rural Development (Training Farmer Organizations)	III.1.a. 농업
	2008	MISC	무상원조	해외 농촌진흥청 연합-농업협력	10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overseas RDA alumni association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 개발프로그램실 행과 교육	23.506	Dispatch of Volunteers - Rural Development Program Performance and Education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촌개발(농업관 련조직훈련)	16.903	Dispatch of Volunteers - Rural Development (Training Farmer Organizations)	III.1.a. 농업
	2009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농촌 개발프로그램실 행과 교육	17.389	Dispatch of Volunteers: Rural Development Program Performance and Education	III.1.a. 농업

원조목적 코드	연도	원조 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활동방식/ 프로젝트 주제	원조총액 (천 달러)	프로젝트주제	분야
31130: 농지개발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지개발	41.65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지개발	9.825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지개발	11.882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31140: 농업용수 자원	2006	KOICA	무상원조	VALACHCHE NAI지역 빗물배수관건설	3900	Construction of Storm Water Drainage at Valachchenai	III.1.a. 농업
31161: 식량생산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45.73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원예기술이전	16.903	Dispatch of Volunteers - To transfer Horticulture Technology	III.1.a. 농업
31163: 축산	2008	KOICA	무상원조	전문가과견: 가축질병예방	41.486	Animals Disease Prevention Expert Dispatch Sri Lanka	III.1.a. 농업
	2008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가축보건과 치료	3.02	Dispatch of Volunteers - To provide health care and medical treatment to animal	III.1.a. 농업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2007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농업관련교육/훈련	9.825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2007	MISC	무상원조	농업관련교육/훈련	5.38	workshop f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III.1.a. 농업
	2008	MISC	무상원조	식물검역 국제표준워크숍	4.504	Workshop for international standards on plant quarantine	III.1.a. 농업
	2009	MISC	무상원조	아시아태평양 식물검역 국제표준 워크숍	4.093	Workshop for international standards on plant quarantine of Asia-Pacific	III.1.a. 농업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27.45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31195: 축산진료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10.43	Dispatch of Volunteers	III.1.a. 농업

원조목적 코드	연도	원조 기관	원조방식 (유/무상)	ODA 활동방식/ 프로젝트 주제	원조총액 (천 달러)	프로젝트주제	분야
	2006	KOICA	무상원조	전문가파견	99.85	Dispatch of Expert	III.1.a. 농업
43040: 농촌개발	2006	KOICA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80.55	Dispatch of Volunteers	IV.2. 다부문
	2006	KOICA	무상원조	훈련프로그램	22.17	Traninig Program	IV.2. 다부문
	2009	MISC	무상원조	새마을운동교육	3.02	Saemaul Undong Education for Foreign Leaders	IV.2. 다부문
72040: 긴급식량 원조	2009	KOICA	무상원조	WFP를 통한 지원	632.879	To assist Sri Lanka through WFP	VIII.1. 긴급식 량원조

자료: <http://stats.oecd.org>.

부록 8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49개국		12개국	48개국		43개국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알바니아	마셜	앵귤라섬*	몬세라트*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가나	알제리	미크로네시아 연합	앤티가바부다	나우루
방글라데시	말라위	케냐	아르메니아	몰도바	아르헨티나	오만 ¹
베냉	몰디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몽골	바베이도스	팔라우
부탄	말리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모로코	벨라루스	파나마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나미비아	벨리즈	세르비아
부룬디	모잠비크	파키스탄	카메룬	니카라과	보츠와나	세이셸
캄보디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카보베르데	니우에섬	브라질	남아공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타지키스탄	중국	팔레스타인	칠레	세인트헬레나*
차드	니제르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파라과이	룩셈부르크	세인트 키츠네비스
코모로	르완다	베트남	콩고공화국	페루	코스타리카	세인트 루시아섬
콩고민주 공화국	사모아	짐바브웨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크로아티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지부티	상투메 프린시페		에콰도르	스리랑카	쿠바	수리남
적도기니	세네갈		이집트	스와질랜드	도미니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²
에리트레아	시에라리온		엘살바도르	시리아	피지	터키
감비아	솔로몬군도		그루지야	태국	가봉	우루과이
기니	소말리아		과테말라	토켈라우제도*	그레나다	베네수엘라

기니비사우	수단		가이아나	통가	자메이카	
아이티	탄자니아		온두라스	튀니지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동티모르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라오스	토고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리비아	
레소토	투발루		이란	월리스앤푸투나*	말레이시아	
	우간다		이라크		모리셔스	
	바누아투		요르단		마요트섬*	
	예멘		코소보 ³		멕시코	
	잠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합계 : 152개국

주: *는 영토(Territory)를 나타냄

1. 앤티가바부다와 오만은 2007년 고소득국 기준을 초과함. DAC의 목록수정규정에 따라, 두 나라는 2010년까지 고소득국을 유지한다면 2011년 졸업할 것임.
2. 바베이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는 2006년 고소득국 기준을 초과함. DAC의 목록수정규정에 따라 두 나라가 2010년까지 고소득국을 유지한다면 2011년 졸업할 것임.
3. 코소보의 지위에 관해서 OECD는 어떠한 법적 입장도 취하지 않음.

2009년 4월 이래로 외채과다빈곤국(HIPCs): 아프가니스탄, 베냉,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키르기즈스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카라과,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부록 9

세계은행의 양허성 자금 지원대상 국가 분류

구 분	범주 4		범주 3			
	\$6,885 이상		\$1,165-\$6,885			
A. 국제부흥 개발은행 차관만 가능한 국가 (IBRD Only) ¹	대한민국	19,840	카자흐스탄	6,740	중국	3,620
	트리니다드토바고	16,560	파나마	6,740	투르크메니스탄	3,420
	크로아티아	13,810	몬테니그로	6,550	엘살바도르	3,370
	적도기니	12,420	보츠와나	6,320	마살군도	3,060
	폴란드	12,260	코스타리카	3,260	우크라이나	2,800
	앤티가바부다	12,130	세르비아	5,990	모로코	2,790
	리비아	12,020	불가리아	5,770	과테말라	2,630
	베네수엘라	10,200	남아프리카	5,770	시리아	2,410
	세인트키츠네비스	10,150	벨라루스	5,540	스와질랜드	2,350
	칠레	9,460	자메이카	5,010	파라과이	2,280
	우루과이	9,400	콜롬비아	4,950	인도네시아	2,230
	러시아	9,380	이란	4,540	마크로네시아연합	2,220
	멕시코	8,960	도미니카공화국	4,530	이라크	2,210
	팔라우	8,940	알제리	4,420	이집트	2,070
	터키	8,730	마케도니아	4,400	필리핀	1,970
	세이셸	8,480	나미비아	4,310	벨리즈	n.a.
	브라질	8,070	페루	4,160	수리남	n.a.
	루마니아	8,040	알바니아	3,950		
	레바논	7,970	피지	3,950		
	아르헨티나	7,600	에콰도르	3,940		
	가봉	7,370	태국	3,760		
	모리셔스	7,240	요르단	3,740		
	말레이시아	7,230	튀니지	3,720		
구 분	범주 3		범주 2		범주 1	
	\$1,165-\$6,885		\$1,165 이하		\$995 이하	
B.혼합 (Blend) 국가 ²	그레나다	5,580	우즈베키스탄	1,100	짐바브웨 ³	n.a.
	세인트루시아 섬	5,190	파키스탄	1,02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5,130	베트남	1,010		

	도미니카공화국		4,900					
	아제르바이잔		4,85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700					
	아르메니아		3,100					
	카보베르데		3,010					
	조지아		2,530					
	볼리비아		1,630					
	파푸아뉴기니		1,180					
	인도		1,170					
구 분	범주 3		범주 2		범주 1			
	\$1,165-\$6,885		\$1,165 이하		\$995 이하			
C. 국제개발 협회 원조만 가능한 국가 (IDA Only) ²	몰디브	3,870	나이지리아	1,140	잠비아	97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50
	앙골라	3,490	상투메프린시페	1,140	모리타니	960	감비아	440
	통가	3,260	코트디부아르	1,060	솔로몬군도	920	모잠비크	440
	코소보	3,200	예멘	1,060	라오스	880	네팔	440
	사모아	2,840	세네갈	1,040	코모로	870	토고	440
	바누아투	2,660	레소토	1,020	키르기스스탄	870	기니 ³	370
	부탄	2,020	니카라과	1,010	케냐	770	니제르	340
	스리랑카	1,990			베닌	750	시에라리온	340
	키리바시	1,890			가나	700	에티오피아	330
	콩고공화국	1,830			타지키스탄	700	말라위	280
	혼두라스	1,820			말리	680	콩고민주공화국	160
	몰도바	1,590			캄보디아	650	라이베리아	160
	몽골	1,590			차드	620	부룬디	150
	지부티	1,280			방글라데시	590	아프가니스탄	n.a.
	수단	1,230			부르키나파소	510	마다가스카르	n.a.
	카메룬				기니비사우	510	에리트레아	n.a.
	가이아나				탄자니아	500	아이티	n.a.
	동티모르				르완다	460	미얀마 ³	n.a.
							소말리아 ³	n.a.

* n.a.: 일정한 범위 안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

** 이전 회계연도 이후 변경된 사항: 1) 2009년 11월 22일 베트남은 ‘국제개발협회 원조만 가능한 국가(IDA Only)’에서 ‘혼합국가(Blend)’로 재분류됨. 2) 2010년 5월 1일 기니는 IDA에 대하여 연체상태(non-accrual status)²⁰ 국가가 되었음.

²⁰ 연체상태(non-accrual status)는 가장 오래된 연체가 6개월을 넘긴 경우에 발생함. 연체가 해결되는 경우 비연체 상태(accrual status)로 복원됨.

1. 세계은행의 아틀라스 측정방법에 따른 2009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며, 화폐는 미 달러임.
2. “국제개발협력 원조만 가능한 국가”는 a) 빈곤정도, b) 신용도에 따라 선정함. IDA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FY11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인당 GNI가 1,165달러(아틀라스 측정방법)가 분기점임. IDA 자금을 받으려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충족시켜야 함. 소규모 도서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됨. 예외적으로, 분기점보다는 1인당 GNI가 높고 구조조정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는 있지만 신용이 낮아 IBRD 용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IDA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10년 6월 30일 현재 차관과 신용에서 연체상태 국가들임.

자료: World Bank, 2010, Operation Manual-Operation Policies.

참고 문헌

<http://www.odawatch.net>

<http://hdr.undp.org>

<방글라데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0, “방글라데시 국가개황”

한국국제협력단, 2010, “원조동향보고자료(2010.1.13)”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방글라데시 정치·경제 동향(2010.6)”

Asian Development Bank, 2009,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Midterm Review”, August

Asian Development Bank, 2010, “Bangladesh,”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10a, “Crop Statistics (Major Crop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10b, “Crop Statistics (Minor Crops)”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10c, “Foreign Trade Statistics of Bangladesh 2008-09”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8, “Preliminary Report of Agriculture Census 2008”

World Bank, 2010, *Bangladesh Country Assistance Strategy 2011-2014*

World Bank, ADB, DFID, Japan, 2005, “Bangladesh Joint Country Assistance Strategy: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y Note” (2005. 11. 20)

<http://100.naver.com>

<http://data.worldbank.org>

<http://gain.fas.usda.gov>

<http://stat.koica.go.kr>

<http://stats.oecd.org>

<http://www.adb.org>

<http://www.cia.gov>

<http://www.fao.org>

<우즈베키스탄>

박평식 외, 2009,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농업투자환경 조사”,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1권 4호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0,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
수출입은행, 2009, “우즈베키스탄 면화산업 현황 및 시사점”, 해외경제 시리즈 2009년 4월호
조영관, 이시영, 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tate Statistic Committee of Uzbekistan, 2011, “Uzbekistan Statistical Review”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2010, “Cotton: World Markets and Trade”
<http://ddp-ext.worldbank.org>
<http://stats.oecd.org>
<http://faostat.fao.org>
<http://www.stat.uz>
<http://www.worldbank.org>

<아제르바이잔>

한국수출입은행, 2010, 「2010 세계국가편람」
Asian Development Bank, 2010, “Azerbaijan,”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Dudwick, Nora, Karin Fock, and David Sedik, 2007, *Land Reform and Farm Restructuring
in Transition Countries: The Experience of Bulgaria, Moldova, Azerbaijan, and
Kazakhstan*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7, “Strategy for Azerbaijan” (18
September 2007)
World Bank, 2010. *Azerbaijan-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Y11-14*
World Bank, 2008,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Report No. 44831 (July 28,
2008)
<http://100.naver.com>
<http://data.worldbank.org>
<http://ddp-ext.worldbank.org>
<http://faostat.fao.org>
<http://stats.oecd.org>
<http://www.adb.org>
<http://www.azer.com>
<http://www.cia.gov>
<http://www.oecd.org>
<http://www.worldbank.org>

<볼리비아>

이상현, 2007,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 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볼리비아공화국대사관, 2010, “한-볼리비아 관계” (2010.8)

한국수출입은행, 2010, 「2010세계국가편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9, “Interim Strategy Note for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for the Period FY2010-FY2011,” Report No. 48372-BO (April 9, 2009)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s, 2010, “The Bolivian Economic Performance and Investment Program, 2010-2015,” Unpublished PPT document

Oxford Policy Management, 2008, *Making Aid More Effective Through Gender, Rights and Inclusion: Evidence from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Boliva Case Study* (June 2008)

<http://100.naver.com>

<http://data.worldbank.org>

<http://faostat.fao.org>

<http://keri.koreaexim.go.kr>

<http://stats.oecd.org>

<http://www.cia.gov>

<http://www.undp.org>

<http://www.worldbank.org>

<솔로몬군도>

한국수출입은행, 2006, “세계국가편람”

<http://100.naver.com>

<http://data.worldbank.org>

<http://en.wikipedia.org>

<http://faostat.fao.org>

<http://news.bbc.co.uk>

<http://www.fao.org>

<http://www.state.gov>

<스리랑카>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0, “스리랑카 국가개황”

Mahinda Chintana, 2006, “스리랑카의 새로운 비전”

<http://www.cia.gov>

<http://data.worldbank.org>

<http://ddp-ext.worldbank.org>

<http://www.fao.org>

<http://faostat.fao.org>

<http://gain.fas.usda.gov>

<http://stats.oecd.org>

<http://www.google.co.kr>

<http://www.oecd.org>

<http://www.wikipedia.org>

기타연구보고 M111

중점협력국 농업분야 현황 기초조사 - 6개국을 대상으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7.

발 행 2011. 7.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ISBN 978-89-6013-252-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